



**안 동 시**

**3대문화권사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

**2018.12**

**(주) 더 디 랩**



# 제 출 문

안동시청 귀중

본 보고서를 ‘3대문화권사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주] 더 디 랩



## <제목 차례>

<b>제1장 연구의 개요</b>	<b>1</b>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범위	2
<b>제2장 사업분석</b>	<b>3</b>
<b>제1절 선행계획 현황</b>	<b>4</b>
1.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4
2. 3대문화권사업 평가	18
3. 3대문화권사업 향후방향	20
4. 탐방로사업	23
<b>제2절 사업환경</b>	<b>30</b>
1. 거시환경	30
2. 관광트렌드	56
3. 안동시 현황	64
4. 관련 상위계획 및 법·제도	78
<b>제4절 관련사례</b>	<b>84</b>
1. 국내사례	84
2. 해외사례	87
3. 국내외 관련사례 시사점	88
<b>제3장 탐방로 활성화 방안</b>	<b>89</b>
<b>제1절 탐방로 활성화 방향성</b>	<b>90</b>
1. SWOT 분석을 통한 요인 도출	90
2. 탐방로 활성화 전략방향	91
3. 2차 탐방로 사업방향	92
4. 사업후보지 검토	93
<b>제2절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b>	<b>96</b>
1. 도입 후보시설	96
2. 도입 후보시설 비교검토	103
3. 보행현수교 조성효과	104
4. 보행현수교 운영주체	105
5.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검토	108
<b>제3절 변직골 구간 보행편의성 확보</b>	<b>118</b>
1. 도입 후보시설	118

2. 도입 후보시설 비교검토 .....	121
<b>제4절 관광활성화 제고 .....</b>	<b>122</b>
1. 유희시설 도입 검토 .....	122
2. 편의시설 확보 .....	128
3. 3대문화권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131
4. 지역경제 활성화 .....	139
 <b>제4장 종합결론 .....</b>	 <b>140</b>
1. 기존계획상의 한계점 .....	141
2. 개선방안 .....	142
3. 기대효과 .....	142
4. 연계관광 활성화 .....	144

## <표 차례>

<표 1>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주요내용 및 예산 .....	5
<표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시설규모 .....	6
<표 3>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주요시설 .....	6
<표 4>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	7
<표 5>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규모 .....	9
<표 6> 한국문화테마파크 주요시설 .....	9
<표 7> 한국문화테마파크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	9
<표 8> 유림문학유토피아 시설규모 .....	11
<표 9> 유림문학유토피아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	12
<표 10> 선성현문화단지 시설규모 .....	13
<표 11> 선성현문화단지 추진현황 및 계획(2016년 6월 기준) .....	14
<표 12>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시설규모 .....	16
<표 13>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	16
<표 14> 2011년 3대문화권사업 정책적 권고사항 요약 .....	18
<표 15> 2014년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평가내용 및 조치사항 요약 .....	19
<표 16> 3대문화권사업 비용 및 매출 추정액 .....	22
<표 17> 1차 탐방로 조성공사 시설물 현황 .....	24
<표 18> 1차 탐방로 선성수상길 방문객 수 .....	26
<표 19> 지자체별 호수 인접 탐방로 현황 .....	27
<표 20> 탐방로사업 예산현황 .....	27
<표 21> 외부 거시환경 분석 Framework : STEEP 분석 .....	30
<표 22> 한국 인구 추이 .....	31
<표 23> 2017 사회트렌드 키워드 .....	34
<표 24> 2018 사회트렌드 키워드 .....	36

<표 2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 분야별 변화 .....	39
<표 26> 한국경제 주요지표 전망[%] .....	46
<표 27>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 .....	48
<표 28>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 관련사항 .....	54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정책방향 중 관광 관련과제 .....	54
<표 30> 2017 글로벌 관광트렌드 .....	56
<표 31> 2017~2018년 국내 관광트렌드 .....	57
<표 32> 2017년 국내여행 참가 횟수 .....	60
<표 33> 2017년 국내여행 총비용 .....	61
<표 34> 2017년 관광여행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	62
<표 35> 안동시 토지유형별 면적현황 .....	65
<표 36> 안동시 주요하천 .....	67
<표 37> 안동시 연도별 기상개황 .....	67
<표 38> 2015년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	69
<표 39> 안동시 성장동력사업 .....	71
<표 40> 안동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구성비 .....	71
<표 41> 안동시 주요 지정문화재 .....	73
<표 42> 안동시 주요 서원/향교 .....	74
<표 43> 경상북도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순위(2017) .....	75
<표 44> 안동시 상위권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	76
<표 45>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권역별 기본방향 .....	77
<표 46>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	78
<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81
<표 4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83
<표 49> 보행현수교 운영사례 .....	103
<표 50> 관리운영 방식 비교 .....	106
<표 51> 안동시 협동조합 설립현황(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6
<표 52>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법 비교 .....	109
<표 53> 도산권역 연간 방문객 .....	110
<표 54> 안동시 도산권역 외 연간 방문객 .....	111
<표 55> 보행현수교 연도별 이용객 .....	111
<표 56> 보행현수교 연도별 수익 .....	112
<표 57> 보행현수교 비용항목별 금액 .....	113
<표 58> 보행현수교 연도별 비용 .....	113
<표 59>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입장료 1,000원 .....	114
<표 60>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입장료 1,000원 .....	114
<표 61>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입장료 2,500원 .....	115
<표 62>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입장료 2,500원 .....	115
<표 63> 보행현수교 이용객 1인당 사회적 편익 .....	116
<표 64> 보행현수교 연도별 사회적 편익 .....	116
<표 65>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무료입장 .....	117
<표 66>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무료입장 .....	117

<표 67>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지역투어패스 .....	132
<표 68>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걷기 행사 .....	133
<표 69>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사생대회 및 사진공모전 .....	134
<표 70>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UCC공모 .....	135
<표 71>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스토리 체험 .....	138
<표 72> 보행현수교 이용객 .....	143
<표 73> 보행현수교 초기투자비 및 연간운영비 .....	143
<표 74> 보행현수교 재무적 수익의 연평균 수지 및 사업타당성 .....	143
<표 75> 보행현수교 사회적 편익의 연평균 수지 및 사업타당성 .....	144

##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시설배치계획 .....	7
<그림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감도 및 현황사진 .....	7
<그림 3>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배치계획 .....	10
<그림 4> 한국문화테마파크 조감도 및 현황사진 .....	10
<그림 5> 유림문학유토피아 조감도 및 현황사진 .....	12
<그림 6> 선성현문화단지 시설배치계획 .....	14
<그림 7> 선성현문화단지 조감도 및 현황사진 .....	15
<그림 8>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시설배치계획 .....	17
<그림 9>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감도 및 현황사진 .....	17
<그림 10> 3대문화권 통합관리전략 방향성 .....	20
<그림 11> 3대문화권 장소브랜드 컨셉 .....	21
<그림 12> 탐방로 조성공사 전체계획도 .....	23
<그림 13> 1차 탐방로 전경 .....	26
<그림 14> 1차 탐방로 방문현황 .....	26
<그림 15> 탐방로 코스 현황 .....	28
<그림 16> 한국 인구 피라미드 .....	31
<그림 17>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	32
<그림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p*) .....	33
<그림 19> 시·도별 1순위 가구유형(2000~2045년) .....	33
<그림 20> OECD 평균 및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 .....	38
<그림 21>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전망 .....	40
<그림 22> 세계 지역별 온라인 여행상품 점유율 .....	41
<그림 23>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현황(2016) .....	41
<그림 24> 연도별 여행 및 예약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 .....	42
<그림 25> FIT 여행 및 전자상거래 추이 .....	42
<그림 26> 가상현실 콘텐츠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	43
<그림 27> 관광 및 학습에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	44
<그림 28> OECD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45
<그림 29>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	46



<그림 30> 연도별 소비심리지수 변화 .....	47
<그림 31> 2016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계소득 .....	47
<그림 32> 소비양극화 지수 추이 .....	48
<그림 33> 울산광역시 태화강 환경복원 사례 .....	49
<그림 34> 언플러그드 캠핑 홍보 카드뉴스 .....	50
<그림 35> 친환경 관광 이동수단 .....	51
<그림 36> 덴마크 코펜하겐의 그린투어 .....	52
<그림 37> 강원도 어름치마을 사업 관련 조직 .....	53
<그림 38> 융복합관광 유형과 사례 .....	58
<그림 39> 2015~2017년 국민 국내여행 총량 .....	59
<그림 40> 연도별 국내여행 참가 횟수 .....	60
<그림 41> 연도별 국내여행 참가 횟수 .....	61
<그림 42> 2013~2017 국민여행 여행지 주요 활동 .....	62
<그림 43> 안동시 입지여건 .....	64
<그림 44> 안동시 교통여건 .....	65
<그림 45> 안동시 지형지세 .....	66
<그림 46> 2016년 안동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	68
<그림 47> 2013년 안동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	70
<그림 48> 안동시 주요 지정문화재 .....	72
<그림 49> 안동시 주요 서원/향교 .....	74
<그림 50> 안동시 주요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지 .....	75
<그림 51> 안동시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	76
<그림 52>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권역 구분 .....	77
<그림 53> 논산시 탐정호 및 파주시 마장호수 도입시설 .....	84
<그림 54> 제천시 청풍호 도입시설 .....	84
<그림 55> 의왕시 왕송호수 도입시설 .....	85
<그림 56> 춘천시 남이섬, 가평군 자라섬 도입시설 .....	86
<그림 57> 스위스 외시넨 호수 도입시설 .....	87
<그림 58>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도입시설 .....	87
<그림 59> 독일 라체부르크 호수 도입시설 .....	88
<그림 60> 탐방로 활성화 전략방향 .....	91
<그림 61> 탐방로 활성화 사업후보지 검토 .....	93
<그림 62> 국내 보행현수교 사례 .....	97
<그림 63> 국외 보행현수교 사례 .....	98
<그림 64> 케이블카 사례 .....	99
<그림 65> 짚라인 사례 .....	101
<그림 66> 워르스트글라이더 사례 .....	102
<그림 67>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후보시설 비교 .....	103
<그림 68> 보행현수교 조성효과 .....	104
<그림 69> 보행현수교 수요추정 .....	110
<그림 70> 에코플라이어 사례 .....	118
<그림 71> 숲하늘길 사례 .....	119

<그림 72> 로프다리 사례 .....	120
<그림 73> 변직골 구간 보행편의성 확보 후보시설 비교 .....	121
<그림 74> 마운틴카트 사례 .....	122
<그림 75> 트로티바이크 사례 .....	123
<그림 76> 알파인코스터 사례 .....	124
<그림 77> 알파인슬라이더 사례 .....	125
<그림 78> 루지 사례 .....	126
<그림 79> 관광활성화 유희시설 비교 .....	127
<그림 80> 탐방로사업 주차장 추가확보 후보지 .....	128
<그림 81> 수변관광지 카페 사례 .....	129
<그림 82> 수변관광지 포토존 사례 .....	130
<그림 83> 연계관광 디지털마케팅 사례 .....	131
<그림 84> 탐방로 스토리 기반 체험콘텐츠 사례 : 니지겐모리 .....	136
<그림 85> 의상체험 사례 : 전주한옥마을 .....	137
<그림 86>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사례 : 한국민속촌 .....	137

# 제1장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중 기 조성된 안동선비순례길의 이용성을 제고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탐방로 2차 개발(안)을 수립하고자 함
-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3대문화권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도산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연구의 목적

- 기 추진 중인 탐방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탐방로 및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을 기반으로 한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2.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안동시 도산면, 예안면 일원

#### 2) 시간적 범위

- 2개월

#### 3) 주요 연구내용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활용방안 및 개발방향 도출
- 국내·외 사례조사
- 탐방로 2차 공사 코스별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분석
- 3대문화권 사업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등

## 제2장 사업분석

---

**제1절 선행계획 현황**

**제2절 사업환경**

**제3절 관련 상위계획 및 법·제도**

**제4절 관련사례**

## 제2장 사업분석

### 제1절 선행계획 현황

#### 1.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 1)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개요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은 역사·문화자원과 친환경 녹색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여개 사업이 3조5,4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 사업의 목적은 ‘5+2 광역경제권’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지역성장을 유도하고 대경권이 보유한 유교, 신라, 가야의 문화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생태자원의 잠재력을 발굴·활용하여서 생태·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종합적 관광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안동시 사업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의 2개 선도사업과, 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의 3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동시의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총 3,9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선도사업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330,558㎡)
  - 한국문화테마파크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433,012㎡)
- 전략사업
  - 유림문학유토피아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일원(74,971㎡)
  - 선성현문화단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일원(53,611㎡)
  - 전통빛타래길쌈마을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72,023㎡)
- 사업준비기간
  - 기준연도 : 2016년
  - 목표연도 : 2020년
- 사업운영기간
  - 준공연도 2017년 : 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중 한옥체험관, 전통빛타래길쌈마을
  - 준공연도 2019년 : 선성현문화단지
  - 준공연도 2020년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표 1〉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주요내용 및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예산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선도사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966	1,343	178	445	-
	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302	687	94	269	252
	소계		3,268	2,030	272	714	252
전략사업	유림문학유토피아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178	123	16	39	-
	선성현문화단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337	220	28	89	-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25	71	9	45	-
	소계		640	414	53	173	0
총계			3,908	2,444	325	887	252

\*자료원 :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자료(2018.10.)

##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추진현황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2008년 선정)」의 선도사업으로, 한국정신문화의 근간인 유교문화를 21세기 첨단 문명과 결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요소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유교문화 중심지로서 안동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유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21세기 첨단문명을 활용하는 공원이며,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선비산수 탐방로 등이 조성됨
  -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 사업기간: 2010년~2020년(11년간)
  - 사업규모: 330,558㎡
  - 사업비: 1,966억 원(국 1,343, 도 178, 시 445)
-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인문가치 포럼의 전진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유교문화의 글로벌 허브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1,500석 규모의 회의실과 지원시설로 조성됨
-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동아시아의 화해와 소통을 위한 곳으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결합된 라키비움(Rachiveum) 공간이 조성됨
- 선비산수 탐방로는 옛선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트래킹 공간으로 수변을 따라 걷는 퇴계 예던길과, 수림을 따라 걷는 마의 예던길로 약 144km가 조성됨
- 주요시설
  - 특수시설: 컨벤션, 박물관, 어린이전시관, 기획전시관, 포럼연구소 등
  - 편익시설: 레스토랑, 팬트리, 주차장 등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활성화 방안

- 관리시설: 회의지원실, 사무관리실, 기계·전기실 등
- 기타시설: 탐방로(수변, 수림, 자전거), 전망대 등

〈표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시설규모

구분	시설규모	시설구조 및 내용
세계유교박물관 및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 연면적 : 28,430㎡ (8,600평)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지하2층~지상2층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조성공사	• 탐방로: 130km	• 수변코스(50km) • 수림코스(80km)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표 3〉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주요시설

구분	공간	세부시설	면적
세계유교문화 박물관	지상2층	도입부(정보카페)	549.67㎡
		유교정신관	1,152.11㎡
	지상1층	유교문명관	684.67㎡
		미디어아트타워	385.54㎡
	지하1층	유교미래관	500.87㎡
	지하2층	어린이전시관 뮤지엄샵,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667.54㎡ 703.05㎡
안동국제 컨벤션센터	지상2층	중회의실	1,362.58㎡
		소회의실	143.67㎡
		회의지원(회의장 홀 포함)	996.16㎡
		레스토랑	1,009.01㎡
	지상1층	회의지원	124.94㎡
		포럼연구소	355.07㎡
	지하1층	대회의장	2,993.01㎡
		회의지원	605.10㎡
		팬트리(대회의장 지원용)	647.65㎡
		노블레스홀	2,273.30㎡
기타	지상2층	기계전기실	482.47㎡
		기타공용	545.11㎡
	지상1층	사무관리/지원	483.31㎡
		기계전기실	2,473.13㎡
	지하1층	기타공용	726.83㎡
		사무관리/지원	109.56㎡
		기계전기실	52.66㎡
		기타공용	622.92㎡
	지하2층	지원시설	242.27㎡
		기계전시실	227.35㎡
		기타공용	733.30㎡
		주차장	6,481.81㎡
탐방로	수변탐방로		50km
	수림탐방로		80km
	쉽터		4,052.00㎡
	수변데크		1,239.00㎡
	조성녹지		21,354.00㎡
	상징광장		7,850.00㎡



-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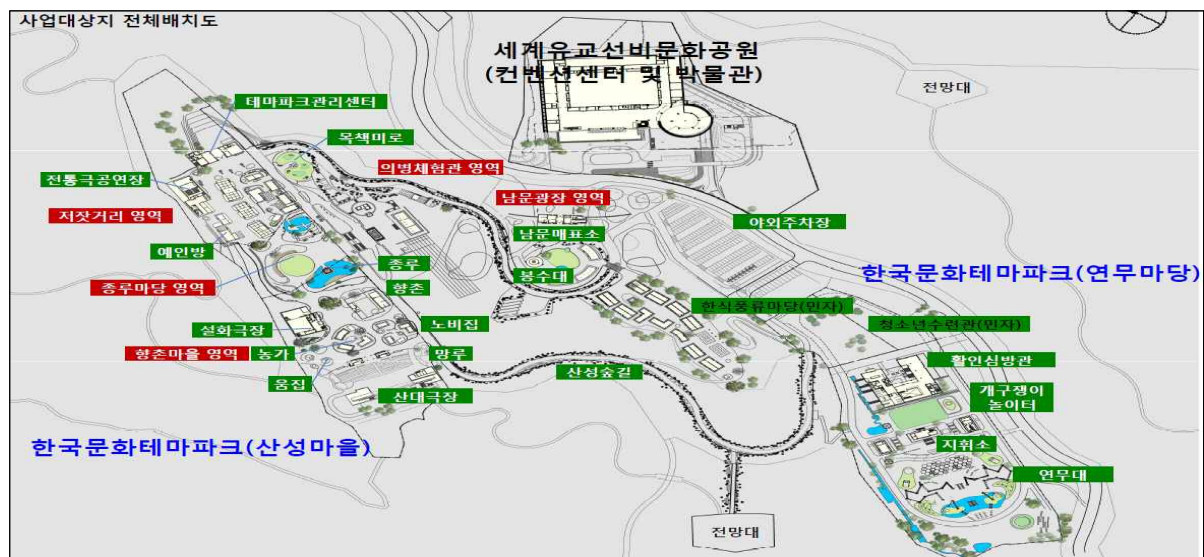
- 세계유교박물관 및 컨벤션센터는 2014년 12월 기반공사 착수, 2016년 12월 컨벤션센터 및 박물관 건립공사 착수, 2017년 10월 탐방로 1차공사 준공
- 2019년 8월 탐방로 2차공사 착수, 2020년 12월 사업준공 예정

〈표 4〉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대문화권사업 선정
2010년	3월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한국관광공사)
2011년	4월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고시(국토교통부)
	10월 선도사업조정 업무위탁협약(안동시↔경북도개발공사)
2014년	5월 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도고시 제2014-161호, 162호)
	7월 기반조성 설계VE 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12월 본 단지 기반공사 착수((주)진영종합건설)
2016년	9월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기획재정부)
	10월 산지전용 협의 완료
	12월 컨벤션센터 및 박물관 건립공사 착수
2017년	10월 탐방로 조성공사(91km) 준공
2018년	11월 탐방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8월 탐방로(2차) 공사 착수
2020년	12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준공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그림 1〉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시설배치계획



〈그림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감도 및 현황사진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3) 한국문화테마파크 추진현황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2008년 선정)」의 선도사업으로, 한국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재구성하여 체험, 치유, 유희, 숙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휴양형·에듀테인먼트형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한국문화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관광요소로 재구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산업화를 위한 테마파크로, 16세기 산성마을의 삶을 주제로 유교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남문광장, 산성마당, 연무마당, 산성숲길 등이 조성됨
  - 위치: 도산면 동부리 일원
  - 사업기간: 2010년~2020년(11년간)
  - 사업규모: 433,012㎡
  - 사업비: 1,302억 원(국비 687, 도비 94, 시비 269, 민자 252)
- 남문광장은 진입공간으로 한옥체험촌, 한식풍류마당, 판매시설, 광장, 한식풍류마당, 봉수대, 조선시대 직업인 분장 체험을 위한 선비 숙녀 변신방 등의 시설이 도입됨
- 산성마당은 16세기 산성 마을의 주요시설물 재현과 함께 의병체험관, 전통극 공연장, 설화극장, 산대극장 등이 조성됨
- 연무마당은 의병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연무대, 체험치유시설인 활인심방관, 전통민속놀이터 등으로 조성됨
- 산성숲길은 산성마당과 연무마당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미니동물원, 숲속산장, 산책로, 필드아키장 등 숲속을 이동하며 테마 미션을 수행하는 공간임
- 주요시설
  - 휴양·공연·체험시설: 전통극공연장(실내), 설화극장(실내), 산대극장(야외), 의병체험

관(3D인터랙티브체험), 활인심방관(사상체질진단, 찜질시설), 연무대(챌린지시설), 개구쟁이놀이터 등

- 편익시설: 한식풍류마당(상업시설), 주차장 등
- 관리시설: 종합관리센터
- 기타시설: 오수처리시설, 산성숲길, 연못, 전망대 등

〈표 5〉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규모

구분	시설규모	시설구조 및 내용
한국문화테마파크 건립공사	• 연면적 : 13,587㎡ (4,110평)	• 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2층/지상1~3층(12개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 연장, 토공, 배수공, 구조 물, 포장공	• 콘크리트, 인도, 아스콘포장 • 옹벽, 통로박스 • 측구, 배수관, 수로박스 등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표 6〉 한국문화테마파크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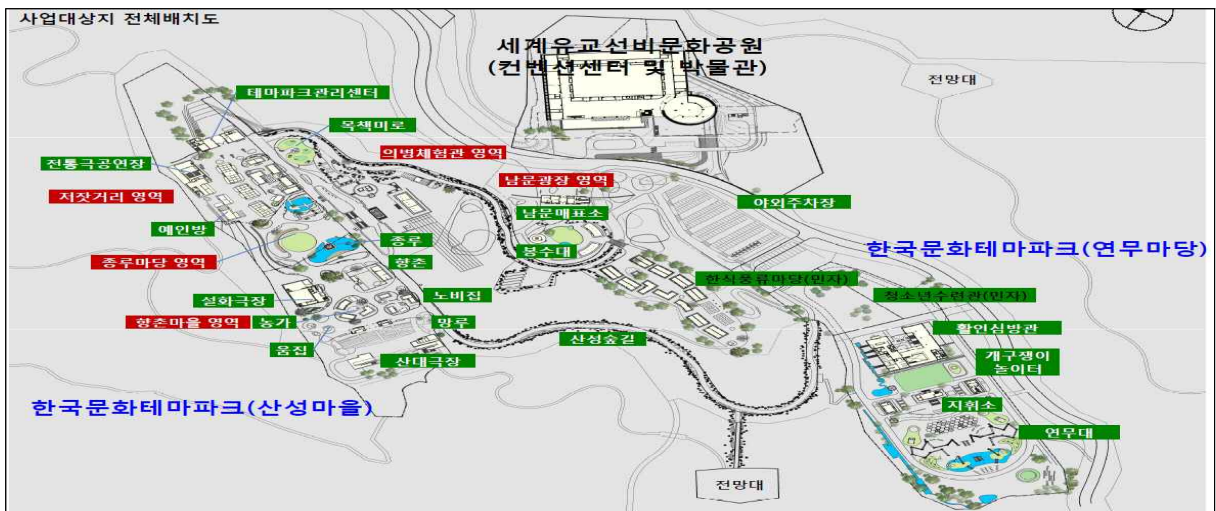
구분	공간	세부시설	면적
산성 마을	성곽길	남문역참	58.75㎡
	저잣거리	포목전, 지전, 목공예공방, 대장간, 도자기공방	레지던시
		선비숙녀변신방	223.93㎡
		전통극공연장	공연콘텐츠
	종루광장	조선진영 군막	25.00㎡
	군영	의병체험관	985.77㎡
		군사지휘소	125.87㎡
		원옥	25.38㎡
		궁도활터	846.14㎡
연무 마당	향촌	선비의 방	116.18㎡
		전통놀이장	40.74㎡
		민가(비격진천뢰)	40.74㎡
		설화극장	공연콘텐츠
	연무대	미로	348.51㎡
			2,837.01㎡

- 추진현황
  - 한국문화테마파크는 2014년 12월 기반공사 착수, 2017년 11월 한국문화테마파크 건축공사 착수, 2020년 12월 사업준공 예정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대문화권사업 선정
2010년	3월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한국관광공사)
2011년	4월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고시(국토교통부)
	10월	선도사업조성 업무위탁협약(안동시↔경북도개발공사)
2012년	12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고시(국토교통부)
	12월	진입도로 착공(기봉건설(주))
2013년	12월	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경상북도)
2014년	5월	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도고시 제2014-161호, 162호)
	7월	기반조성 설계VE 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12월	본 단지 기반공사 착수((주)진영종합건설)
2015년	1월	본 단지 건설폐기물용역 착수((주)문경환경)
	6월	진입도로 개설공사(1.76km) 준공
2016년	10월	산지전용 협의 완료
2017년	3월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기획재정부)
	11월	한국문화테마파크 건축공사 착수
2020년	12월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 준공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그림 3〉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배치계획





〈그림 4〉 한국문화테마파크 조감도 및 현황사진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4) 유림문학유토피아 추진현황

- 유림문학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2008년 선정)」의 전략사업으로,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기존 이육사박물관 시설의 증축 및 신축을 통해, 안동 유림의 삶과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음
- 퇴계 이황에서 이육사로 이어지는 유림사상과 정신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유림정신을 통하여 과거와 근대를 문학으로 체험하는 문학 교육 및 체험 콘텐츠 시설임
- 단순 전시 중심의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유림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문인들의 문학활동과 관광객의 문학체험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마련과 함께 문학인, 관광객,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문학관광지로 경쟁력을 확보함
  - 위치: 도산면 원천리 일원
  - 사업기간: 2012~2017 (6년간)
  - 사업규모: 74,971㎡
  - 사업비: 178억 원(국비 124, 도비 16, 시비 38)
- 이육사박물관 증축, 이육사시비공원 정비, 야생화정원, 잔디마당, 생태경관녹지, 이육사시상길, 이육사 묘소 가는 길 정비 등이 주요사업임
- 주요시설
  - 휴양문화시설: 박물관 정비, 정신관 증축, 생활관 증축
  -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소공원 시상길
  - 기타시설: 야외스탠드 및 광장 정비, 오수처리시설 등

〈표 8〉 유림문학유토피아 시설규모

구분	시설구조 및 내용	시설규모
이육사문학관증축	• 문학정신관	1,269㎡
	• 문학생활관 20실	1,322㎡
	• 육우당 및 기타편의시설	91㎡
주변정비공사	• 시비산책로정비	1.2km
	• 주차장	7,676㎡
	• 공원조성	25,071㎡
	• 잔디마당	3,989㎡
	• 야생화정원	1,549㎡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추진현황

- 2015년 2월 이육사문학관 증축공사 착공, 9월 유림문학유토피아 주변정비공사 착공 후 2016년 12월 이육사문학관 증축공사 준공, 2017년 11월 유림문학유토피아 주변정비공사 준공

〈표 9〉 유림문학유토피아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3대문화권사업 선정
2010년	3월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11월	중앙 투융자심사 완료
201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3년	12월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
2014년	3월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변경승인 고시
	8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시행
2015년	2월	이육사문학관 증축공사 착공
	6월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리) 시행(선진엔지니어링외 2)
	9월	유림문학유토피아 주변정비공사 착공
2016년	12월	이육사문학관 증축공사 준공
2017년	11월	유림문학유토피아 주변정비공사 준공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그림 5〉 유럽문학유토피아 조감도 및 현황사진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5) 선성현문화단지 추진현황

- 30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3대문화권 전통생활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주제로 한국적 전통자원을 활용·개발하여 역사·문화 체험 거점지역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성현 문화단지를 조성함
- 선성현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3대문화권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는 역사와 문화의 체험거점지역으로, 유교문화 인지도 향상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체험을 위한 관광지임
- 선성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문화의 전통성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활용 측면에서 추진됨
  - 위치: 도산면 서부리 일원
  - 사업기간: 2012~2019년(8년간)
  - 사업규모: 53,611㎡
  - 사업비: 337억 원(국비 220, 도비 28, 시비 89)
- 선성현으로의 시간여행을 컨셉으로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강점을 극대화, 선성현 문화단지 특성을 강화하는 체험공간 조성,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한 여가공원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관아 등을 활용한 역사재현을 중심으로 관광과 휴양기능을 도입함
- 주요시설
  - 예안현 재현 : 예안현 역사관, 예안현 체험단지(객사, 아문, 내아, 관창, 군광청, 장관청, 송원정, 인리청, 동헌, 형리청, 정지, 관심루 등)
  - 문화재 정비 : 예안향교 주변정리, 송곡고택 주변정비, 용암정 주변정리
  - 서부리 마을 활성화 : 예안현 민가촌 조성
  - 테마체험 : 산성공원, 수중정원, 야생화공원, 정자공원, 선성산성 복원

〈표 10〉 선성현문화단지 시설규모

구분	시설구조 및 내용	시설규모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	• 객사 · 동헌 · 내아 · 군관청 · 역사관 · 민간촌 등	• 건축면적 2,261.32㎡ • 목조 : 1층(28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역사관, 지하1/2층(1동)
한옥체험관 조성공사	• 체험관	• 건축면적: 748.44㎡ • 1층(7동) : 6실, 32명 수용
	• 식당	• 72명 수용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추진현황
  - 2015년 5월 한옥체험촌 건축공사 착공, 2016년 4월 선성현문화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7년 6월 한옥체험관 및 식당 건립공사 준공, 2019년 12월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준공예정

〈표 11〉 선성현문화단지 추진현황 및 계획(2016년 6월 기준)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3대문화권사업 선정
2010년	3월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1월 중앙 투융자 심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4년	10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2015년	5월 한옥체험촌 건축공사 착공(영진중건)
2016년	4월 선성현문화단지 조성공사 착공(새천년중건)
2017년	6월 한옥체험관 및 식당 건립공사 준공
	7월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착수
	8월 문화재 발굴(정밀) 조사용역 착수(2,360㎡)(공정률 90%)
	11월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기획재정부)
2019년	12월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준공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그림 6〉 선성현문화단지 시설배치계획



〈그림 7〉 선성현문화단지 조감도 및 현황사진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6)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추진현황

- 안동 대표 특산품인 안동포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 체계적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전승공간 확보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전수기회를 확대하며, 우수한 디자인과 삼배기능을 전시판매,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위치: 임하면 금소리 일원
  - 사업기간: 2013~2017년(5년간)

- 사업규모: 72,023㎡
- 사업비: 125억 원(국비 71, 도비 9, 시비 45)
-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안동포 역사 문화의 장, 안동포 전승발전의 장, 안동포 농경 문화의 장으로 구분됨
- 안동포 역사문화의 장은 안동포전시관, 창작공방, 안동포 작업 체험장, 천년의 마당, 안동포 갤러리 등이 조성됨
- 안동포 전승발전의 장은 디자인하우스, 안동포 전승교육관, 어울림 마당이 조성됨
- 안동포 농경문화의 장은 대마 재배지, 염색작물 재배지, 길쌈광장, 밋타래 언덕, 대마휴게쉼터, 길쌈작업센터, 포토존 등의 시설이 조성됨
- 주요시설
  - 휴양문화시설: 안동포갤러리, 안동포전시관, 안동포전승관, 디자인하우스
  - 공공편의시설: 도로, 주차장, 길쌈광장
  - 기타시설: 대마웰빙 찜질방, 휴게음식점, 오수처리장 등

〈표 12〉 전통밋타래길쌈마을 시설규모

구분	시설구조 및 내용	시설규모
전통밋타래길쌈마을 조성사업	• 디자인하우스	• 400㎡
	• 안동포전승교육관	• 1,009㎡
	• 천연염색체험장, 대마경작지, 경작체험농장, 어울림마당, 기타편의시설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추진현황
  - 2016년 2월 공사 착공, 2017년 12월 준공

〈표 13〉 전통밋타래길쌈마을 추진현황 및 계획(2018년 10월 기준)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3대문화권사업 선정
2010년	3월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12월	투융자 심사(경북도)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당엔지니어링 외 1)
2014년	9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 결정)
2014년	12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공원조성계획)
2015년	5월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2015년	10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승인 신청



구분		주요 추진내용
2016년	2월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착공
	6월	안동포문화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7년	9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11월	삼굿장 및 대마건조장 건립공사 착수
	12월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준공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그림 8〉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시설배치계획



〈그림 9〉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감도 및 현황사진



\*자료원 :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안동시(2018년 10월)

## 2. 3대문화권사업 평가

### 1)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2010년)

- 2010년 정부 광역권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한국관광공사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50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음
- 사업비는 국비 2조 1,095억 원(50.5%), 지방비 1조 8,174억 원(43.5%), 민자2,492억 원(6.0%) 등 총 4조 1,76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
  - 전체 예산의 47.1%가 유교문화권 사업비(1조 9,677억 원)로 투입되며, 이어 신라문화권 21.5%(8,963억 원), 가야문화권 13.8%(5,764억 원) 순으로 구성됨

### 2) 3대문화권사업 간이에비타당성 조사 (2011년)

-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은 3대문화권 전체 50개 사업 중 35개 사업에 대해 간이에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3대문화권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 9,468억 원으로 재산정되었음
  - 유교문화권 사업비는 1조 6,099억 원으로 감액되었음
- 3대문화권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관련부처의 추진의지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관광콘텐츠 계획 미흡, 시너지효과 창출 매커니즘의 부재, 부처 간 협의·논의 필요 등 목표한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국개발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표 14〉 2011년 3대문화권사업 정책적 권고사항 요약

구분	내용
지속적인 수요창출 방안 마련	• 본 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들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등의 관광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통합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시너지창출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등이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 단위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수요 창출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재정운영계획 수립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정운영계획 강구
생태환경훼손 최소화	• 관련부처 및 지자체는 향후 상위계획단계에서 각 사업의 환경훼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3) 3대문화권사업 중간평가 (2014년)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2013년간 추진된 3대문화권사업의 사업내용 적절성 및 적시성을 검토하고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총 50개 사업에서 46개 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2조 9,468억 원에서 23.7%(6,992억 원) 감액되어 2조 2,476억 원으로 축소 조정됨
- 3대문화권사업 평가내용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요창출 및 구체적 운영계획, 콘텐츠 확보방안 미흡
  -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세부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확보 필요
  - 실질적인 수요 유인방안 필요
  - 특화된 콘텐츠 창출 필요
  - 영주지구와 차별화 / 연계방안 마련 필요

〈표 15〉 2014년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평가내용 및 조치사항 요약

구분	주요 평가내용	조치사항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 수요창출, 운영계획 불확실</li> <li>• 박물관: 기존시설과 중복, 구체적인 콘텐츠 확보방안, 관리운영계획 수립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축소조정</li> <li>• 세계유교박물관은 안동시 내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확보방안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후 추진</li> </ul>
한국문화 테마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수요 유인방안, 관리운영 방안 미흡</li> <li>• 특화된 콘텐츠 미흡</li> <li>• 영주지구와 차별/연계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능 재설정 추진 필요(안동은 한국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체험제공 관광단지)</li> </ul>
유럽문학 유토피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문학이 아닌 이육사 문학관 중심 → 타당성 낮음</li> <li>• 콘텐츠 확보, 구체적 관리운영계획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문학의 큰 틀에서 이육사를 조명하는 노력, 콘텐츠 필요</li> <li>•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li> </ul>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 미흡</li> <li>•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동포전시관 중심 사업에서 탈피</li> <li>• 마을연계체험/교육 특화</li> <li>• 안동포전시관 모델링사업 부적합</li> </ul>
선성현 문화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다소 낮음</li> <li>• 인근 관광자원, 지역사회와 효과적인 연계성 확보방안, 관리운영방안 불확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사업비 재산정, 축소</li> <li>• 농암고택 정비사업 제외</li> </ul>

### 3. 3대문화권사업 향후방향

#### 1)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개요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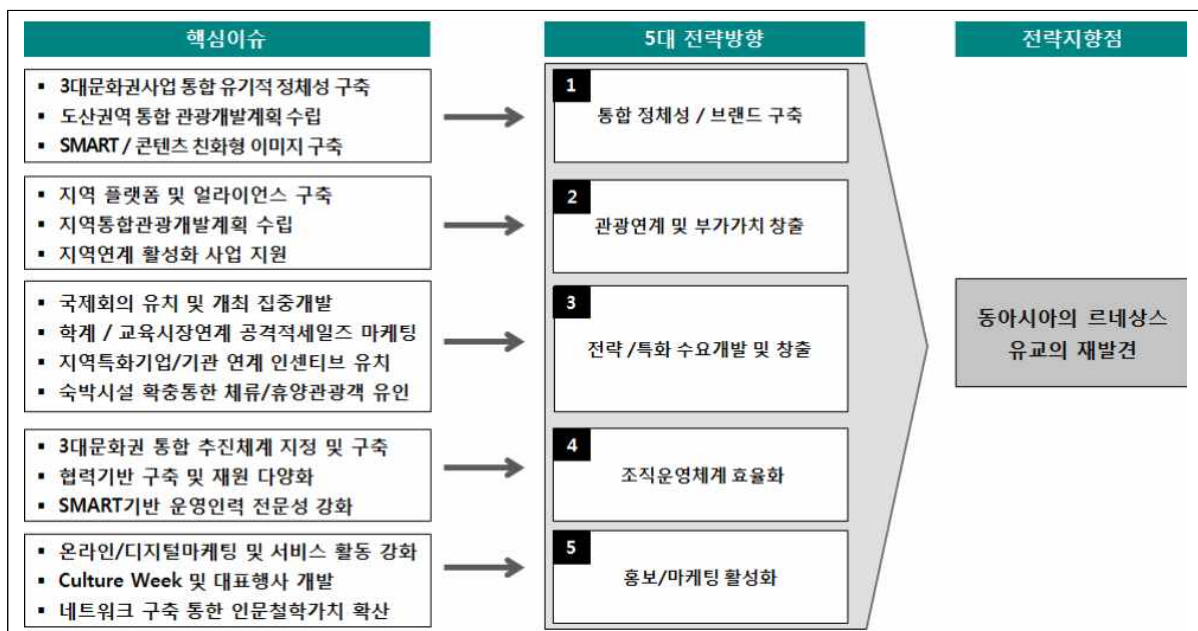
- 2011년 간이에비타당성 조사 및 2014년 중간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2013년 선도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한국문화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컨셉과 구조를 구체화하였음
- 이후 유림문학유토피아,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선성현문화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각 사업에 대한 조직 및 인력설계, 마케팅 및 홍보방안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함께 각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 2) 통합관리전략

##### [전략적 지향점]

- 유교문화를 축으로 한 3대문화권사업의 독창성, 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안정적 관광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국적 다양한 시설과 장소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전략,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설계, 인력 확보 등의 관점에서 이슈를 검토하였음

〈그림 10〉 3대문화권 통합관리전략 방향성



\*자료원 : 안동시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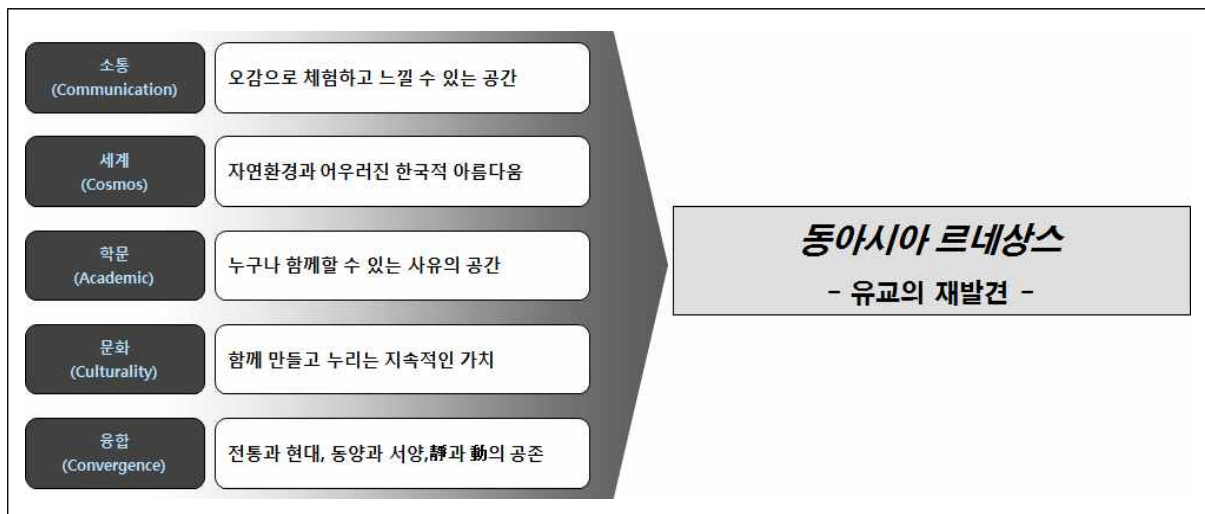


- 이를 종합하여 ‘동아시아의 르네상스, 유교의 재발견’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전략방향을 도출하였음
  - 통합 정체성 / 브랜드 구축 : 브랜드 이미지 구축
  - 관광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 : 안동시 관광 활성화
  - 전략/특화 수요개발 및 창출 : 관광관련 산업 활성화
  - 조직운영체계 효율화 : 조직운영전략 수립
  - 홍보/마케팅 활성화 : 마케팅전략 수립

### [통합 정체성 및 브랜드 구축]

- 3대문화권사업을 통합한 유기적 정체성 구축을 위해 소통, 세계, 학문,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유교의 재발견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장소브랜드 컨셉을 도출하였음

〈그림 11〉 3대문화권 장소브랜드 컨셉



\*자료원 : 안동시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2017.07)

### [관광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

- 안동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3대문화권사업 시설 명소화, 고부가관광객 유치, 관광콘텐츠 및 통합홍보마케팅 등 지역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2개의 선도사업, 3개의 전략사업이 포진되어 있는 도산권역에 대한 통합관광개발 관점에서 및 각 사업의 기능을 부여하였음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 유교관련 학술, 교류, 사색 공간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 세계 유교 및 동아시아 정신문명 뿌리에 대한 고찰
  - 컨벤션센터 : 서양의 물질중심가치에서 인문가치 중심의 학문교류의 장
  - 산수탐방로 : 인문, 정신문화에 대한 성찰 등 사색의 공간

- 한국문화테마파크 : 한국적 문화체험 기반의 놀이, 휴양 공간
  - 전문 전통극, 극공연팀 상설 운영 or 주말운영
  - 거리행사 운영팀 통한 기존 구상 프로그램 활성화
  - SMART/콘텐츠 친화형 이미지 구축, VR과 드론 합성으로 오감체험 서비스 제공
- 유림문학유토피아 : 한국정신문화의 문학기반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
  - 유림문학 기반의 한국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 한국현대문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 경북지역 문화·예술 거점
- 선성현문화단지 : 전통적 서민문화, 생활, 먹거리 관련 편의 공간
  - 전국 각 지역별 판아 등 전통양식의 건축물 재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화 요소가 필요함
  - 생활문화적 체험요소를 가미한 전통적 서민문화와 먹거리 편의공간
  - 다양한 전통양식 건축물에서 음식체험 등이 가능한 형태의 생활문화체험
- 전통빛타래길쌈마을 : 안동포 중심의 경제·체험 공간
  - 한국전통의상 교육 및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의복 및 생산체험공간
  - 경제·의복 등의 전통체험 공간과 가변적 프로그램 설계로 다양한 체험

### [전략/특화 수요개발 및 창출]

- 유교를 비롯한 3대문화권 사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 응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융합을 지향함
- MICE산업 및 출판·영상사업, 테마파크의 유원관광자원 사업, 전략사업의 체험관광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관광관련 기초사업이 될 수 있음
- 3대문화권사업내의 ‘유교’의 테마를 유지하며 일상 생활문화자원의 잠재력 재발견 및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사이클링(upcycling)전략을 추진함

### 3) 수익성 검토

- 해당연구에서 안동시의 3대문화권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약 63억 원, 매출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이에 따라 매년 약 23억 원의 손실보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표 16〉 3대문화권사업 비용 및 매출 추정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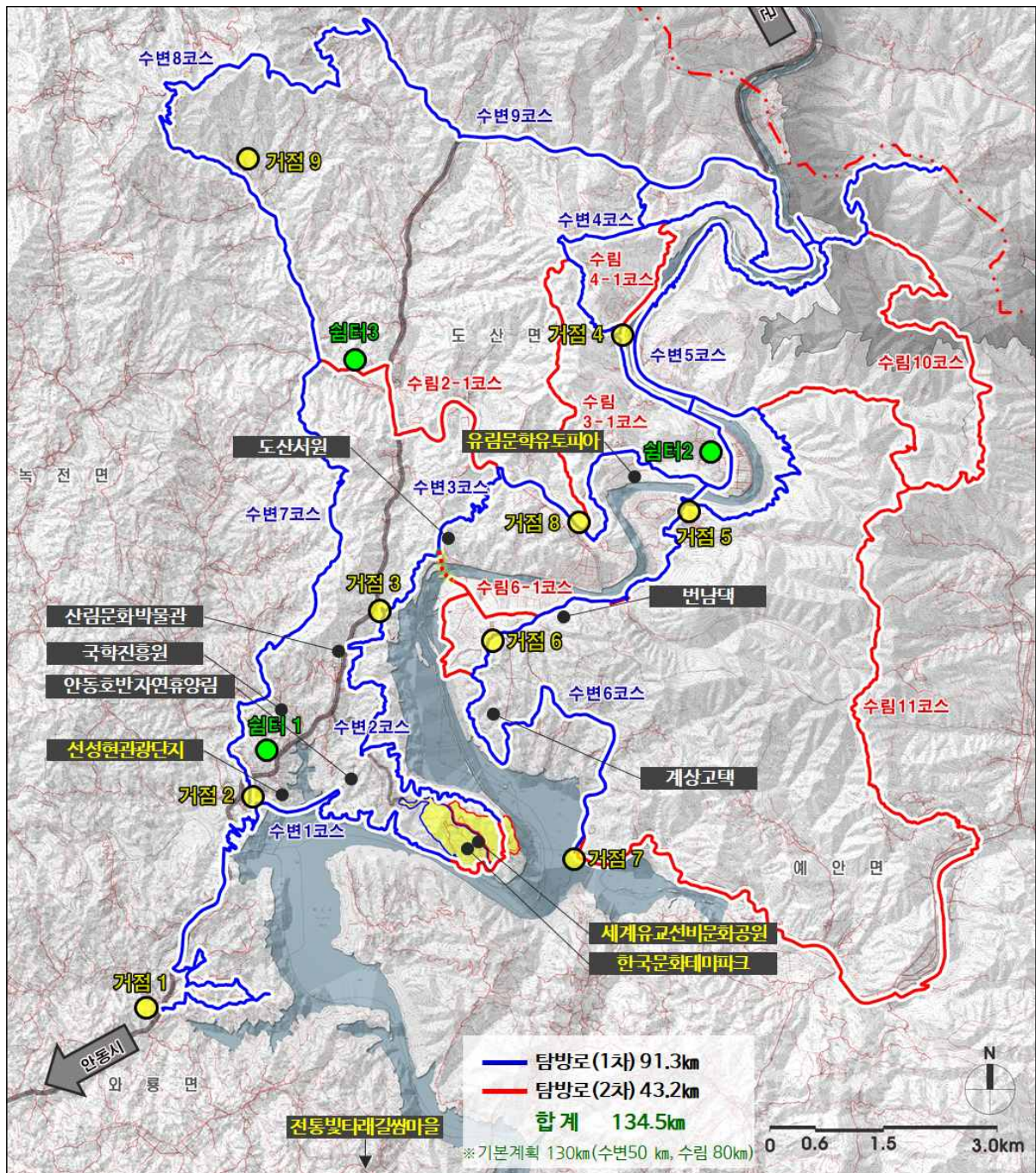
구분	운영비용	매출	추가 필요예산
금액	6,312,815,596	3,985,230,265	2,327,585,331



## 4. 탐방로사업

### 1) 사업개요

〈그림 12〉 탐방로 조성공사 전체계획도



\*자료원 : 경북개발공사

- 목적 : 안동호 중심의 풍부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과 더불어 안동의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체험하고 옛 선현의 가르침을

깨닫는 탐방로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규모
  - 사업비 : 71,511백만 원 (2016년 9월 기준)
  - 조성규모 : 130km(수변 50km, 수림 80km)
- 1차 탐방로
  - 사업비 : 34,601백만 원
  - 조성규모 : 91km (2013.2~2017.10 준공)
  - 주요시설 : 데크로드 L=12.7km, 섬유매트 L=12km, 거점 9개소, 쉼터 3개소, 기타주차장 확장구간
- 2차 탐방로
  - 사업비 : 36,910백만 원
  - 조성규모 : 43km (2019.08 착공 예정)

## 2) 1차 탐방로 사업성과

- 91km 규모로 조성된 1차 탐방로는 선성수상길 구간만으로도 연간 4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주변 생활권역의 경제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7〉 1차 탐방로 조성공사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수량, 면적, 길이	시설물명	수량, 면적, 길이
데크 (총 12,75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데크 : 3,394m</li> <li>수변데크 : 8,346m</li> <li>수상데크 : 1,011m</li> </ul>	섬유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21,265㎡</li> <li>길이 12,073m</li> </ul>
원주목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18단(폭1.8m)</li> </ul>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소</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소(각 34.56㎡)</li> </ul>	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 1개소(118.8㎡)</li> <li>거점 3개소(각 11.88㎡)</li> </ul>
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모정 4개소(각 15.21㎡)</li> <li>육모정 4개소(각 11.46㎡)</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소, 4,656㎡ (승용111, 버스6)</li> </ul>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등 80개</li> <li>공원등 5개</li> <li>지중투광등 26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형물(갯) 1개소</li> <li>조형물(붓&amp;책) 1개소</li> <li>흙먼지털이기 3개</li> </ul>

\*자료원 : 안동시청



〈그림 13〉 1차 탐방로 전경



\*자료원 : 안동시청

- 선성수상길 구간 기준으로 2018년 3~10월간 36,609명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총 방문객은 약 4만6천명 정도로 추정됨

〈표 18〉 1차 탐방로 선성수상길 방문객 수

시기	방문객 수(명)	비고
2018.01	1,690	• 3월 기준 추정치
2018.02	1,690	
2018.03	1,690	
2018.04	6,241	• 무인 계측기 측정치
2018.05	7,952	
2018.06	5,199	
2018.07	3,088	
2018.08	2,772	
2018.09	4,717	
2018.10	4,950	• 8월 기준 추정치
2018.11	2,772	
2018.12	2,772	
계	45,533	□

\*자료원 : 안동시청

- 도산면 서부리는 안동댐 수몰 이주단지로 쇠락한 시골마을이었으나 탐방로 개통 이후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고, 막걸리 등 지역생산품이 평소의 2배 이상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4〉 1차 탐방로 방문현황



\*자료원 : 안동시청



### 3) 2차 탐방로 사업계획 검토

- 43km 규모의 2차 탐방로까지 완공 시 총 134km 규모로 전국 호수지역 탐방로 중 최대규모로 조성됨
- 다수 지자체들에서도 호수의 수변 및 인접한 지역에 생태 및 역사·문화를 테마로 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탐방로 조성 규모는 호수면적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횡성호수길 30km를 제외하고는 10km 내외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

〈표 19〉 지자체별 호수 인접 탐방로 현황

구분		사업지	호수면적(km <sup>2</sup> )	탐방로 테마	탐방로규모(km)
경상남도	안동시	안동호	51.5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134.5
강원도	횡성군	횡성호수	5.9	횡성호수길	30.0
강원도	양구군	파로호	38.9	생태탐방로	14.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	67.5	청풍호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14.3
경상남도	진주시	금호지	0.3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9.5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2.3	우포늪생명길	8.4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1.0	생태탐방로	6.4
경기도	파주시	마장호수	0.3	휴(休)프로젝트 생태탐방로	3.3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0.4	생태탐방로	3.0

\*자료원 : 관련 보도기사 종합

- 탐방로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 시 연간 277,941명 방문이 예상됨
  - 선성수상길 연간 방문객 추정치 45,533명을 기준으로 추정 (4km/h로 3시간 이용 시 11개 구간 구분, 구간별로 선성수상길의 50% 방문 가정)
- 탐방로 총사업비 715억 원 중 1차 탐방로 조성을 위해 346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차 탐방로 조성예산으로 369억 원이 확보됨

〈표 20〉 탐방로사업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당초 (간이예타)	총사업비 조정 (2016.09)	집행액	잔액
계	-	77,859	71,511	34,601	36,910
수변탐방로	50km	49,500	34,601	34,601	-
수림탐방로	80km	26,400	36,910	0	36,910
쉼터	4,052m <sup>2</sup>	290			

구 분	사업량	당 초 (간이예타)	총사업비 조정 (2016.09)	집행액	잔액
수변테크	1,239㎡	98			
조성녹지	21,354㎡	993			
상징광장	7,850㎡	578			

\*자료원 : 경북개발공사

- 2차(43km)는 1차(91km)에 비해 탐방로가 짧고, 예산은 더 큼에 따라 보다 모객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의 조성방안 검토가 가능함

#### 4) 2차 탐방로 사업계획 보완 필요성

- 현재 도산권역의 안동호 주변으로 동·서에 위치한 탐방로를 연결하는 수단은 일부 시기에만 이용 가능한 잠수교와 임시 연락선이 있음
-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인접한 변직골 탐방로 구간에 지형상의 한계로 인해 500~600m에 해당하는 단절구간이 발생함

〈그림 15〉 탐방로 코스 현황



① : 잠수교, ② : 임시 연락선, ③ 변직골 단절구간

- 탐방로 완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지 구역과 안동호 동부를 연결하는 결절점 조성이 필요함
  - 해당구역에서 안동호 동부의 탐방로 및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기에는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임
  - 연락선은 있으나, 상시적인 연결통로 확보에 제한적임
- 한국문화테마파크 남부(변직골) 탐방로 단절구간의 연결로 확보가 필요함
  - 해당구역 수변 탐방로 체험을 위해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단지를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함
  - 탐방로 이용객 불편 및 유료시설 이용에 대한 통제 곤란이 우려됨
- 관광콘텐츠 측면에서는 도산권역에서 체험 가능한 콘텐츠가 ‘역사유적지 방문’,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휴양’에 국한되어 있음
  - 해당 활동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 체험수요 다양화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콘텐츠 확충이 필요함
  - 해당 활동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탐방로 완결성 확보와 관광콘텐츠 매력도 제고를 통한 도산권역 경쟁력 확보 검토 차원에서 2차 탐방로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제2절 사업환경

### 1. 거시환경

#### 1) 거시환경 분석 Framework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거시환경 측면에서 기회 및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는 요인을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표 21〉 외부 거시환경 분석 Framework : STEEP 분석

영역	분석관점	분석요소	세부요소
사회 (Social)	• 관광시장규모 및 관광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 분석	인구구조	• 연령별 인구구조 • 부양부담률
		가구형태	• 출산율 • 가구 구성원 수
		라이프스타일	• 신규 라이프스타일 • 여가활동
기술 (Technological)	• 최근 ICT 기술 발달 및 4차 산업혁명이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소비형태	• 기술융합 • SNS • 온라인/전자상거래 • 여행형태
		관광콘텐츠	• 가상현실
경제 (Economical)	•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및 개인소비 관점의 경제지표 분석	경제성장률	• 세계 경제성장률 • 한국 경제성장률
		소비심리	• 물가지수 • 소비심리지수 • 소득/소비 양극화
생태 (Ecological)	• 생태환경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관광시장 변화	환경존중문화	• 기후변화 이슈
		관광활동변화	• 친환경 레저 • 친환경 수단 활용 • 녹색관광
정책 (Political)	•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는 제약 요인 및 본 사업 연관 정책 검토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관광 관련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 문체부 2018년 정책방향

#### 2) 사회환경 : 인구구조

##### [연령별 인구구조]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 6천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3.8%인 707만 6천 명이며 2060년에는 41.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203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령인구는 수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표 22〉 한국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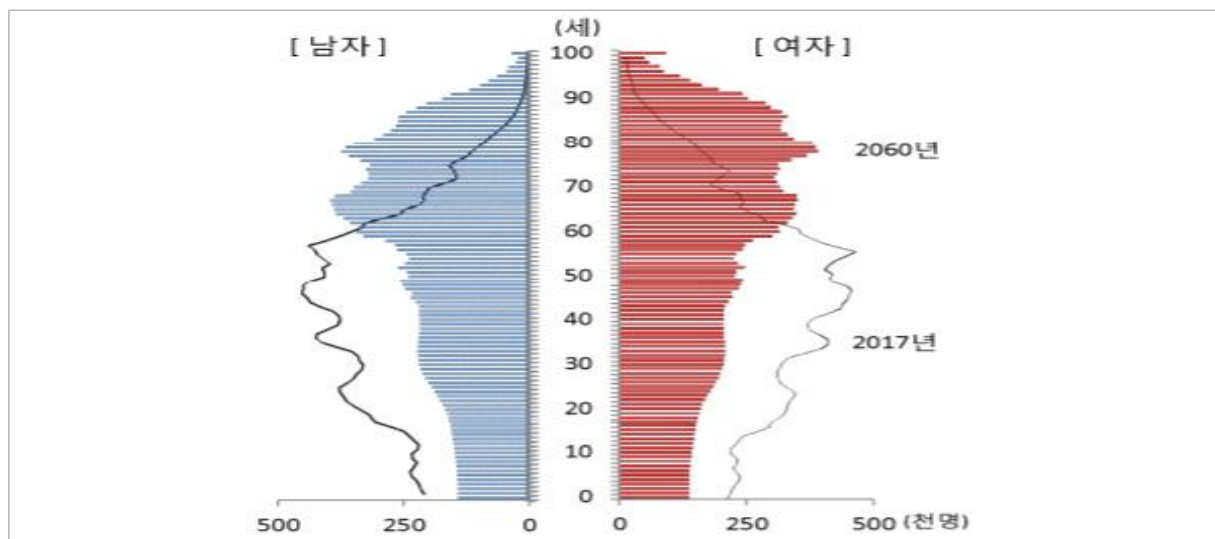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연도	추계인구	65세 이상	비중
1990	42,869	2,195	5.1
2000	47,008	3,395	7.2
2010	49,554	5,366	10.8
2017	51,446	7,076	13.8
2020	51,974	8,134	15.6
2030	52,941	12,955	24.5
2040	52,198	17,120	32.8
2050	49,433	18,813	38.1
2060	45,246	18,536	41.0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12)

-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현재는 30~50대가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나타내나, 2060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노후여가 확대에 따라 뉴 실버세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관광을 즐기는 노령세대인 골드세대가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그림 16〉 한국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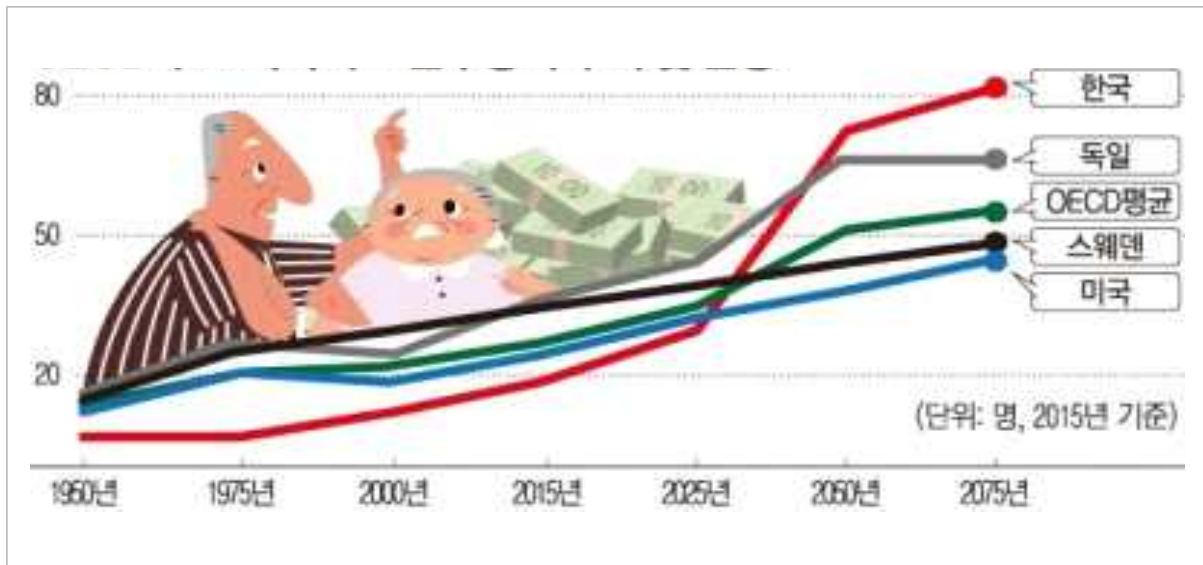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12)

## [부양부담률]

- 반면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소비 위축을 야기시켜 내수시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선진국의 부양부담률<sup>1)</sup>이 신흥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30년에는 한국도 신흥국의 부양부담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인부양비<sup>2)</sup>는 19.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로 인해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 2075년 80.1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17〉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자료원 : 국회입법조사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2017)

## 3) 사회환경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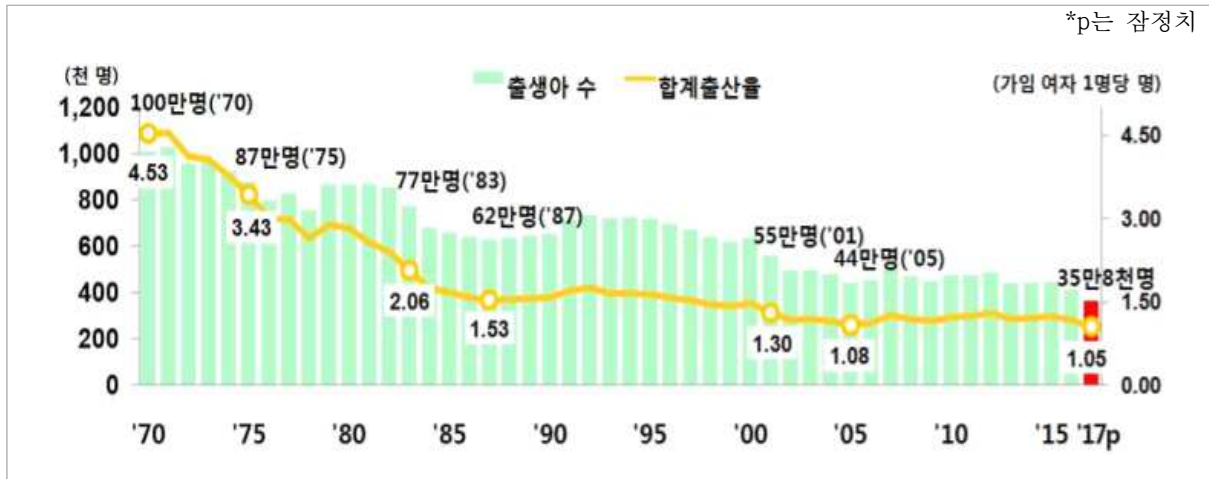
### [출산율]

-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은 내수시장 축소로 이어지게 되며, 제조업을 비롯하여 여행·관광시장에까지 전반적인 산업·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 부양부담률 = 비경제활동 인구 수 ÷ 경제활동 가능 인구 수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고령인구 ÷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

〈그림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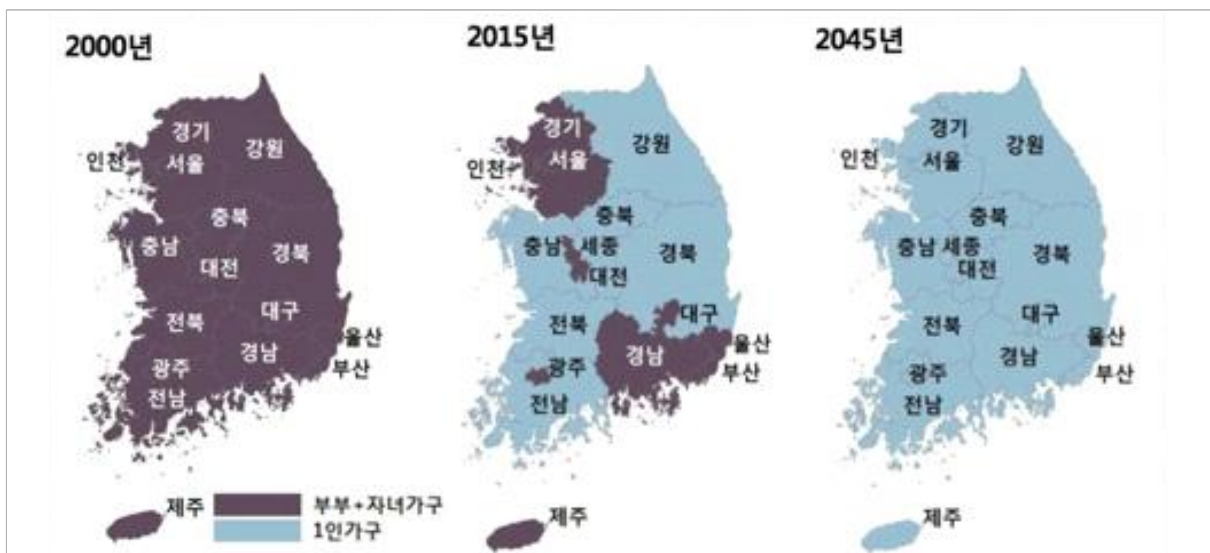


\*자료원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7)

### [가구 구성원 수]

- 혼인을 감소 및 이혼을 증가추세는 핵가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1인가구와 2인가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2026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36.3%에 달해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이며, 전국 1인가구 수가 809만8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2인가구 비중은 2015년 26.1%에서 2045년 3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인가구는 2015년 21.5%에서 2045년 19.8%로, 4인가구는 18.8%에서 7.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그림 19〉 시·도별 1순위 가구유형(2000~2045년)



\*자료원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2017)

- 주택구입, 양육비용 등을 부담하는 3~4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구매력은 약 15.7%p 높은 것<sup>3)</sup>으로 나타나 관광여행시장의 주요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음
- 개별·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형태에 적합한 관광시설 조성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4) 사회환경 : 라이프스타일

##### [2017년 사회트렌드]

- 2017년 사회트렌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혼자서도 여행을 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여행객 수의 증가가 예상됨
- AirBnB 등의 공유경제, 포켓몬Go의 AR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의 최소인원 기준을 적용하는 여행상품이 사라지는 추세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관광을 편히 갈 수 있음
- 현재와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스트레스 등에 대한 힐링, 경험 차원에서의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음
- 나홀로족, 맞춤형 소비트렌드에 따라 개인 또는 소수 단위의 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 기반의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가 요구됨

〈표 23〉 2017 사회트렌드 키워드

구분	내용
1. B+프리미엄 (Heading to B+ Premium)	• 기존 대중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힘
2. 1코노미 (Era of Alones)	• 자발적으로 혼자 소비생활을 즐김(혼밥, 혼술 등)
3. 경험 is 뭔들 (User Experience Matters)	• 물건을 파는 것에서 경험을 파는 것으로 시장법칙변화
4. 버림 (No Give up, No Live up)	• 새로 사기 위해 기존의 것을 버리는 현상
5. 캠테크 (Calm-Tech)	• 일상생활에 첨단을 결합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6. 컨슈머토피아 (Rebuilding Consumertopia)	• 수요가 적더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맞추는 수요 중심 경제의 심화
7. 영업의 시대 (Key to Success: Sales)	• 첨단 마케팅 시대에서 영업의 중요성이 부각됨

3) 1인가구 증가가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조사(2013), 대한상공회의소

구분	내용
8. 픽미세대	• 뛰어난 역량이 있지만 선택 받기위해 몸부림치는 세대
9. 옴로 라이프 (You Only Live Once Life)	•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는 소비형태
10. 각자도생	• 경기침체, 안전사고, 비리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살길을 모색함

\*자료원 : 트렌드코리아(2017)

## [2018년 사회트렌드]

-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 등장으로 기업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사소함에 주목하고 있음
  - 얼음물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영상을 통해 워터파크 홍보
  -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점심시간에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출시
-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보다 마음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
  - 위안비용 : 케미컬 포비아로 인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 유기농 채소에 소비함
  - 굿즈 소비 : 연예인, 유명인 등 애정을 갖는 대상에 대해 합리성을 따지지 않음
  - 탕진 소비 : 스트레스 해소, 단순 재미를 위해 인형뽑기방, 다이소 등에서 푼돈을 소비함
  - 일점호화 소비 : 평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에 아낌없이 소비함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이 직장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여가를 중시하는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벨 세대를 공략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 시에스타 서비스 : 영화관 좌석을 활용하여 점심시간 동안 휴식장소 제공
  - 탈잉(잉여탈출) : 다양한 재능을 필요한 이들끼리 매칭해주는 온라인 재능거래마켓
  - 하비인더박스 :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취미패키지 배송
- 대면 방식으로 일어나던 소비행위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양한 수요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 시간제약 탈피, 신속성 제공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24시간 무인세탁 편의점 등
  - 편의성 극대화 : QR코드 및 앱을 활용하여 매장 입장에서 자동결제까지 가능한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
  - 사생활 보호 : 사생활 노출 걱정을 덜어주는 로봇 직원을 활용한 무인호텔

- 맞춤형 서비스 세분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패션을 추천하는 ‘추천봇’, 로봇 금융자산전문가 ‘로보어드바이저’ 등
- 자존감 향상과 창의력 회복을 위해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는 휴식 형태가 나타남
  - 도심 속 패스트힐링 : 휴식 또는 취미와 결합된 ‘수면카페’, ‘납시카페’ 등
  - 창조적 체험공간 : 직접 만드는 ‘DIY카페’, 원데이클래스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취미생활 앱 ‘프립(Frip)’
  - 음주와 문화의 결합 :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을 구비하고 혼술과 함께 독서를 즐기는 ‘책맥카페’
  - 나홀로족의 코쿠닝(Cocooning) : 외출 자제, 셀프인테리어 등을 통해 집을 설 수 있는 최적공간으로 활용
- 다양한 형태의 소비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양시키고자 함
  - 창조적 소비 : DIY형 소비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또는 유사한 느낌을 통해 창조성이 발휘되는 소비
  - 보상 소비 : 자존감이 낮아져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는 심리적 보상 또는 자기 선물주기 소비
  - 노스텔지어 소비 : 단순한 과거회상을 넘어 추억 속 그리움을 느끼는 제품을 소비하는 복고소비
  - 개성표출 소비 :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개성표출 욕구와 결합한 소비 유행
-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SNS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SNS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생활 및 소비 형태가 등장함
  - 매력적인 캐릭터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 SNS에 담기에 좋은 이미지의 명소가 인기를 끄는 등 매력의 자본화가 이루어짐
  - SNS상에서 개인 간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사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와 의사를 표출하는 ‘미닝아웃’이 등장하였으며, SNS의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됨
  - 필요나 만족에 의해 결합되고 해체되는 ‘긱관계(Gig-relationship)’, 모르는 사람들과의 일회성 만남을 뜻하는 ‘티슈인맥’ 등 새로운 형태의 대인관계가 생겨남
  - 실제로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으나 SNS를 통해 대리경험을 하거나 문화를 공유하는 ‘랜(LAN)선이모’, ‘뷰니멀(Viewnimal)족’ 등이 생겨남

〈표 24〉 2018 사회트렌드 키워드

키워드	주요내용
소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확행(小確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타내며, 사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핵심임</li> <li>• 주변의 나무, 풀 등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살피며 걷는 ‘100m 마이크로 산책’. 자신만의 기준으로 동네맛집 리스트를 만드는 ‘O술랭 가이드’, 공부 인증샷을 꾸준히 올리는 ‘스터디 인증샷’ 등 사소하고 작은 성취에 행복감을 느낌</li> </ul>

키워드	주요내용
가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성비’를 추구하던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價心比)’로 옮겨가고 있음</li> <li>•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면서 소비로 마음의 안정과 작은 기쁨,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가격과 객관적인 성능에서 얻는 것보다 해당 상품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주관적 판단과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함</li> </ul>
워라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라밸(Work-Life-Balance)은 적당히 별면서 잘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며, 특히 자신, 여가, 성장은 희생할 수 없는 가치임</li> <li>• 점심시간 걷기를 즐기는 ‘워런치족’, 스트레스를 스스로 보상하는 ‘셀프 기프트’, 한밤중 여가·운동을 즐기는 ‘호모 나이트쿠스’, ‘나포츠(Night+Sports)족’ 등이 등장하였음</li> </ul>
언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및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비대면 소비 방식이 결합한 언택트(Untact)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li> <li>•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에 의한 연결성은 기존의 전통적 소비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언택트 기술은 대인관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되고 있음</li> </ul>
나만의 케렌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며 회복하는 장소임</li> <li>• 매일 삶의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는 현대인들도 자신만의 케렌시아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단순히 휴식만을 취하는 공간이 아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조적 행위와 자유로움의 공간이 되고 있음</li> </ul>
만물의 서비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이 본질이고 서비스는 덤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어, 꼬리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몸통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쟁력을 뒤흔들고, 구매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li> <li>• 서비스 경제에서는 ‘시간’과 ‘감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시간의 효율화, 높은 감성적 만족도를 주는 창의적 서비스디자인개념이 필요함</li> </ul>
매력의 자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의 기능이 개성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매력있는 상품을 찾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SNS가 이를 가속화함</li> <li>• 작은 상품 하나도 적극적인 매력 어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대이며, ‘선택장애’를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매력’은 가장 강력한 구매요인으로 작용함</li> </ul>
미닝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에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표현하고, 축제 같은 집회에 나들이 가듯 참석하며, 메시지를 담은 패션을 통해 취향과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미닝아웃(Meaning Out)’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li> <li>• 개인화된 매체에 자기주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신개념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에도 가성비 원칙을 적용하려는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관으로 인해 Gig-관계(Gig-relationship), 대안가족Alt-family 등 새로운 관계와 가족 개념이 등장함</li> <li>• 사람들에게 관계의 본질은 깊고 얇은 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애착, 소통의 필요를 누가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li> </ul>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된 장기불황, 계급사다리 붕괴, 수저계급론 논란 등과 더불어 자존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li> <li>• 자존감은 최근 주목 받는 수많은 소비 트렌드의 핵심적인 키워드이며, 현대인들은 낮아진 자존감을 다양한 소비로 해소하고 있음</li> </ul>

\*자료원 : 트렌드 코리아 2018

## [여가활동]

- 국내 근로시간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GWP<sup>4)</sup>의 확산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1년 2,512시간에서 2013년 2,163시간으로 349시간 감소됨

〈그림 20〉 OECD 평균 및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



\*자료원 : OECD 'Statistic DB'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주 52시간 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를 시행함에 따라, 여가활동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 여행·관광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

## 5) 기술환경 : 관광소비형태

### [기술융합]

-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ICT 융합 관광과 스마트관광이 대두됨
- 온디맨드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수요 증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여행경험의 질 향상, 정보채널 확대에 따른 여행상품 생산주기의 단축 등 관광소비 트렌드가 변화함
-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관광서비스 유통구조 전환, 개인 맞춤형 관광서비스 생산의 확대, 단일 플랫폼의 복합 플랫폼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가속화 등 관광서비스 공급구조도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서도 기술 변화 및 융합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4) GWP : Great Work Place의 약자이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말하며,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좋다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야근 및 연장근무 저감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표 2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 분야별 변화

구분	핵심기술	내용
여행업	가상 여행보조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가상 컨시어지 모바일 여행사 Pana는 여행 옵션 및 효율적인 예약 방법으로 응답</li> <li>향후 여행에 대한 가격 알림, 자동 체크인 등의 기능 추가</li> </ul>
	맞춤형 트립스 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개가 넘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가이드 및 개인별 구글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레스토랑이나 행선지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li> </ul>
호텔업	VR 경험 객실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리어트 호텔에서는 객실 내 엔터테인먼트 옵션으로 VR 룸서비스 제공</li> <li>예) 르완다 아이스트림 가게 및 칠레 안데스 산맥 가상 투어</li> </ul>
	호텔용 IoT 전원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ytexOne은 호텔시스템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환기, 조명, 점유 감지 및 엔터테인먼트, 미니바 등 서비스에 대한 진단 및 예측을 원격으로 모니터링</li> </ul>
	IoT 기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oT 플랫폼 전문기업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호텔 전용 플랫폼 ‘스마트 스테이(Smart Stay)’ 공동사업 추진</li> </ul>
	인공지능 안내서비스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BM과 제휴해 미국 전역에 있는 호텔 체인에 인공지능을 갖춘 고객 안내서비스 로봇 도입 추진</li> </ul>
	인공지능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enn-Na Hotel은 인공지능 로봇을 직원으로 배치</li> <li>기능성 드로이드를 호텔에 배치해 수하물, 로커 운반 및 룸서비스 제공</li> </ul>
카지노	로봇 딜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 파라다이스는 여성 카지노 딜러 대신 카드의 용량을 제한하는 로봇 딜러 배치</li> <li>향후 인공지능 로봇 딜러 개발 발표</li> </ul>
항공업	맞춤형 데이터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antas 항공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Umbel과 협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데이터 허브 구축</li> </ul>
	로봇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환승 승객을 게이트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가이드 Spencer 배치</li> </ul>
	에어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툴링, 프로토타입 제작, 항공기 부품 제작 등에 3D 프린팅 기술 적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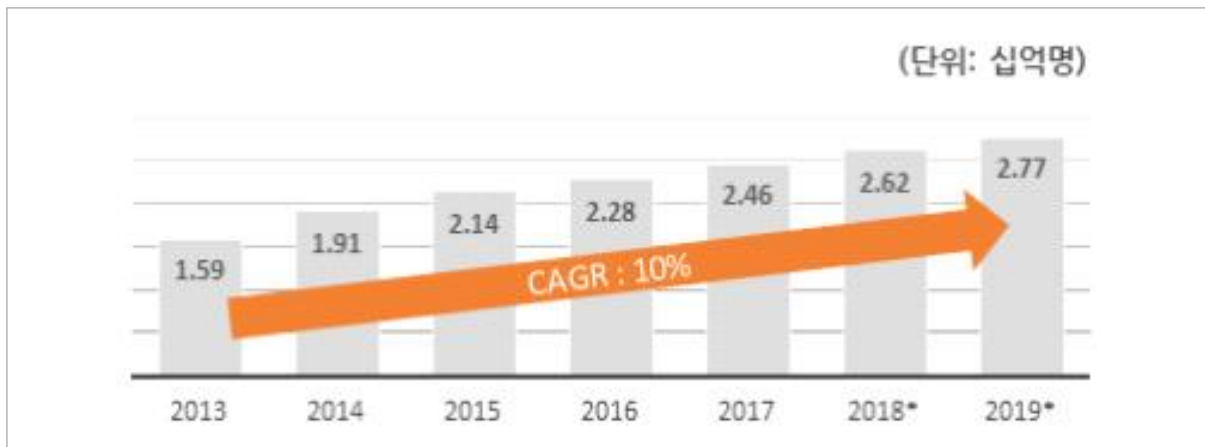
\*자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2017)

## [SNS]

- 전 세계 SNS 이용자 수는 2013년 15억 명 수준에서 2019년 27억 명 수준으로 연평균 10%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KTO 2015 글로벌 온라인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SNS는 정보획득 및 공유의 장으로서 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남
  - 실시간 참여 채널 중요성 증가 : SNS 고객문의에 대한 댓글 답변 등 실시간 반응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 통계에 의하면 70%의 트위터 사용자가 브랜드 계정으로 부터 답변 받기를 원하며, 53%의 사용자가 1시간 이내의 답변을 기대함.
  - 실시간 생방송 시스템 확대 : APP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소비자들의 참여확대가 인기.

-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확대 :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360° 비디오광고 런칭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식의 마케팅 기법이 접목되어 소셜미디어 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 검색엔진최적화 경향 강화 : 구글 검색을 통한 소셜미디어 유입의 폭이 확대되면서 검색엔진최적화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모바일 마케팅 : 2015년 기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의 국가의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설만큼 모바일 사용자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전망



\*자료원 : STATISTA(20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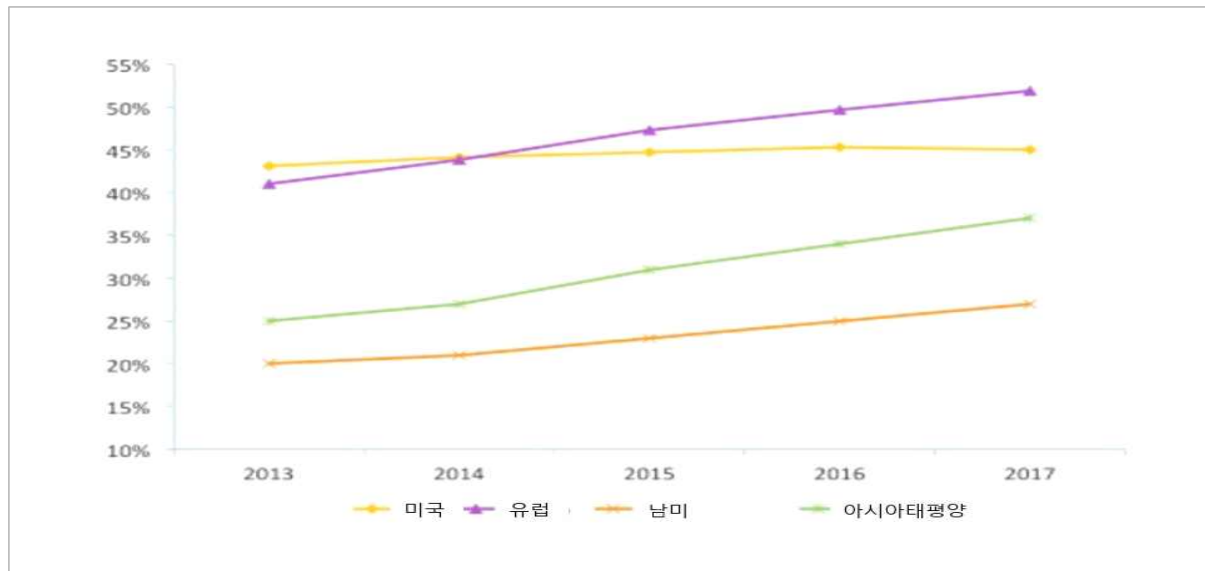
\*주 :최소한 한달에 한번 이상 SNS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

- SNS를 통해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확산이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관광 차별화 필요성이 증대됨

## [온라인/전자상거래]

- 여행서비스 유통 구조가 플랫폼 기반의 OTA(Online Travel Agency)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관광 추세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예 따라 플랫폼 혁신은 여행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환경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혁신노력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함에 따라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업체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초기의 숙박 예약 분야에 한정된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항공예약, 쇼핑, 렌터카, 통역앱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여행리서치 업체인 Phocuswright에 따르면, 여행상품 예약구매 시장의 온라인 점유율은 미국은 45%까지의 성장 이후 둔화된 양상을 나타내나, 세계적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여행상품의 온라인 예약구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유럽은 2014년을 기점으로 이미 온라인 예약이 오프라인 예약을 추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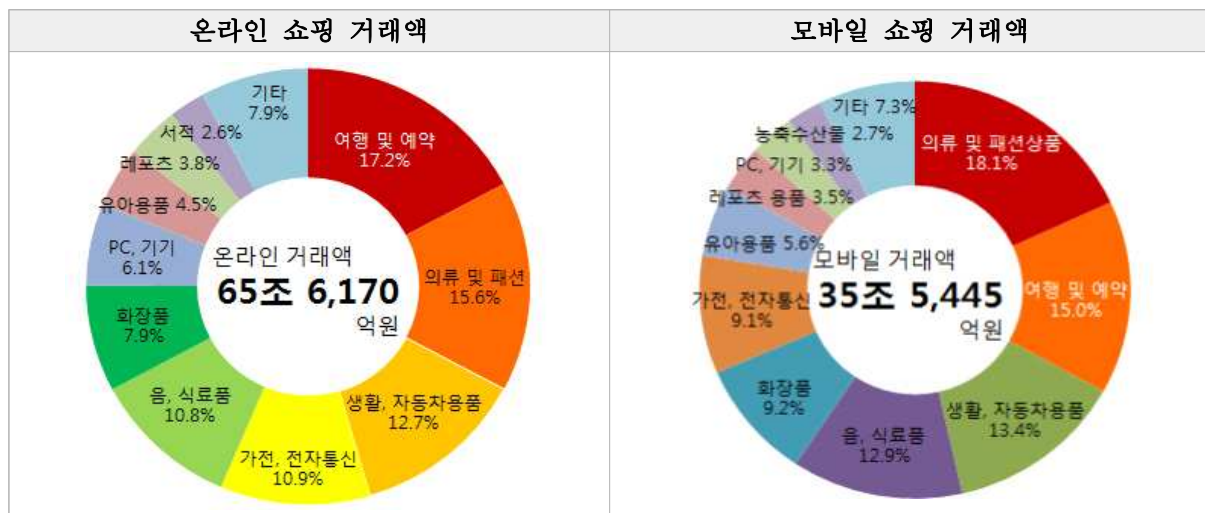
〈그림 22〉 세계 지역별 온라인 여행상품 점유율



\*자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2017)

-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2016년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래액은 65조6,170억 원에 달하였음
- 이 중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의 거래액은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 중 17.2%에 해당하는 11조 2,883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3〉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현황(2016)



\*자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2017)

- 성장세 측면에서도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01년 2,146억 원에서 2016년에는 11조2,883억 원으로 약 52.6배 가량 증가하였음

-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15~3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그림 24〉 연도별 여행 및 예약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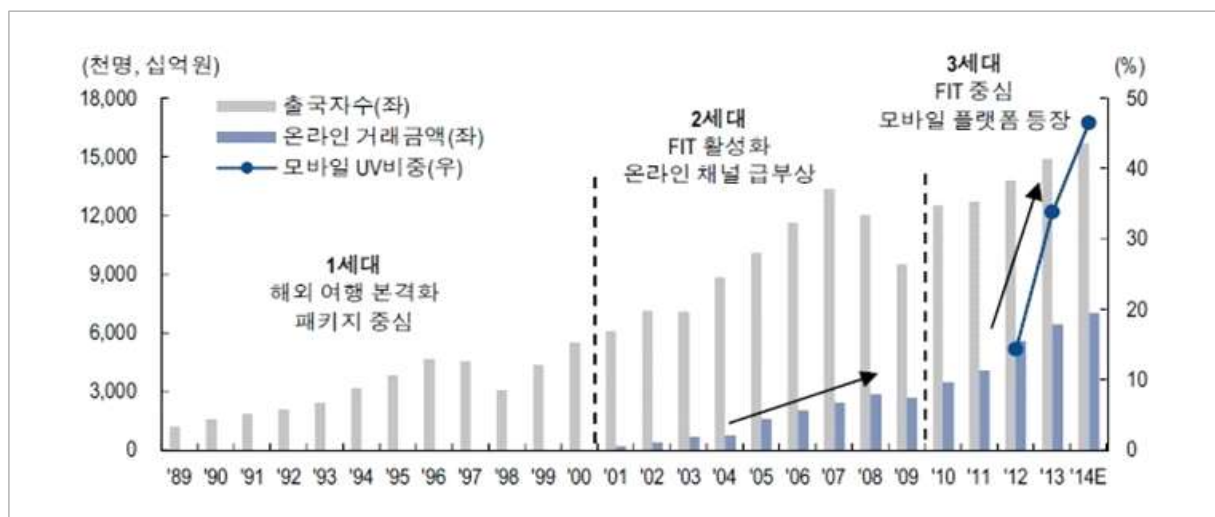


\*자료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2017)

## [여행형태]

- 인터넷 보급 확대는 정보의 개방성을 확대하여, 정보획득 경로와 비즈니스 플랫폼에 큰 변화를 가져옴

〈그림 25〉 FIT 여행 및 전자상거래 추이



\*자료원 : 뉴스투데이(2015)

\*UV(Unique Visitor) : 해당 웹사이트 순방문자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가격 비교, 온라인 예약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FIT(Free Independent Travel)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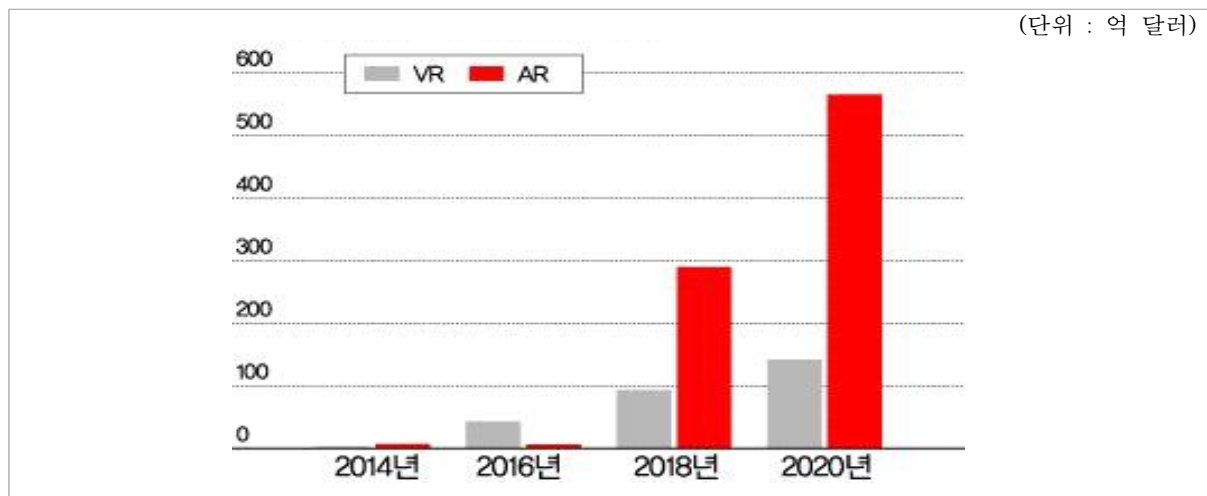
- 2012년 단체여행의 비율은 25.3%에서 2016년 25.0%로 0.3% 하락
- 이에 반해, FIT 여행의 비중은 2012년 64.4%에서 2016년 67.4%로 3.0% 확대
- 온라인/전자상거래 기반의 개별여행 시장 확대를 반영하여 개인 수요 중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모객효과를 높일 수 있음

## 6) 기술환경 : 관광콘텐츠

### [가상현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요약되는 4차산업혁명은 관광문화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해 문화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음

〈그림 26〉 가상현실 콘텐츠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AR·VR 기술발달이 관광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한 사례도 나타남
-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한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둘러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음
  - 일본에서 선보인 가상여행상품 '싱크 트래블'이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현실 고글을 쓴 이용자가 해외 현지에 360도 카메라를 든 가이드를 통해 원격영상을 보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물어볼 수 있음
  - 해외여행이 힘든 노령층이나 실제 여행에 앞서 간단한 사전답사를 원하는 예비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함
- 더불어, 가상현실 콘텐츠 자체가 관광 또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최근 용인 에버랜드, 잠실 롯데월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등에서 VR(가상현실) 테마파크를 도입하였으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스타필드 등 유통업체들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매장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업공간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확대 도입하고 있음
-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VR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실제처럼 체험하며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습존 : 화재안전장비 사용법 체험
  - 재난존 : 지진 강도, 태풍 세기 가상체험 및 상황별 대피법 학습
  - 학습존 : 지하철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방법, 탈출 요령
  - 추모존 : 재난 희생자 기억, 경각심 제고
  - 3차원 AR(증강현실) 체험공간 : 태블릿, 포토존, 구름다리 등 활용

〈그림 27〉 관광 및 학습에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자료원 : 헤럴드경제(2018), 국제뉴스(2018)

- AR이나 VR 기술을 관광 및 학습 콘텐츠 개발에 활용한다면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에 매우 용이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나 설비교체 없이도 모객을 위한 유인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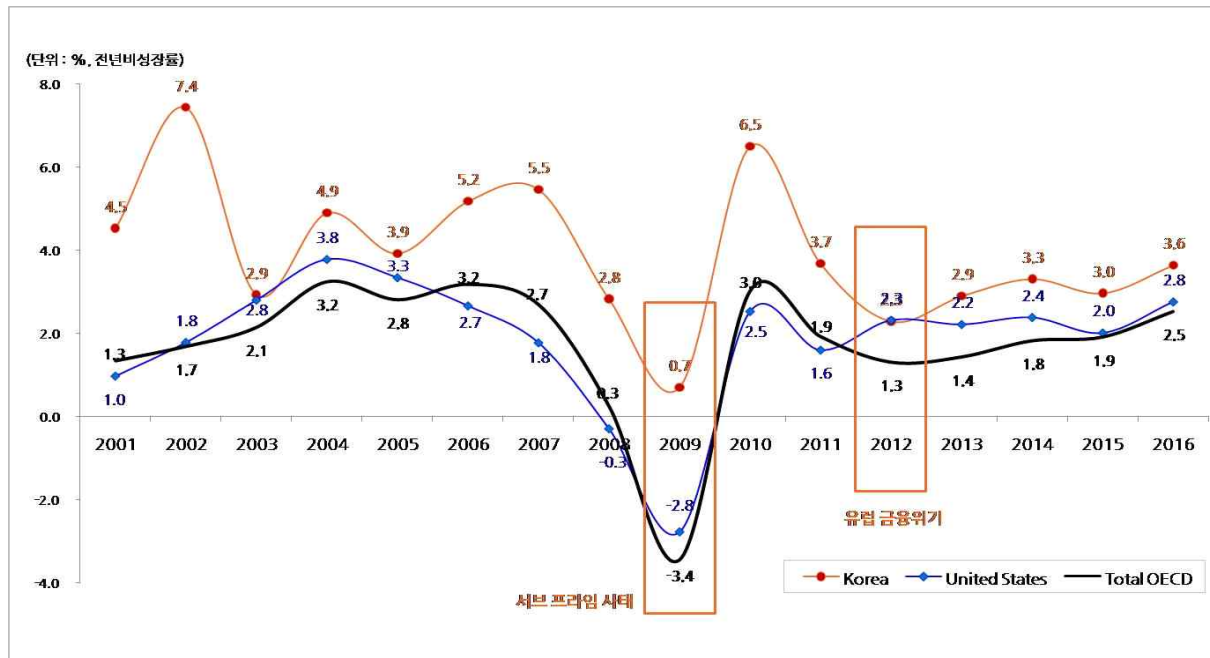
## 기 경제환경 : 경제성장률

### [세계 경제성장률]

- OECD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및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2006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3.4%의 냉각기를 겪고, 2010년 이후 3% 이하에 진입한 이후 성장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8〉 OECD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 OECD 'Economic Outlooks 2005-2016' (2015)

## [한국 경제성장률]

- 한국은 평년 대비 약화된 경제성장률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OECD 평균 및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냉각기에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이 -3.4%, 미국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였음에도 한국은 양(+)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음
  - 2007년까지의 고성장 추세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OECD는 '세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2017년 3.2%, 2018년 3.0%를 제시함
  - OECD는 한국 경제가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시작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계속해서 양(+)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관광객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6〉 한국경제 주요지표 전망(%)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2.8	2.8	3.2	3.0	3.0
실업률	3.6	3.7	3.7	3.5	3.4
소비자물가	0.7	1.0	2.1	2.1	2.1
일반정부 재정수지	1.3	2.1	1.8	1.7	1.5
경상수지(對GDP)	7.7	7.0	5.6	5.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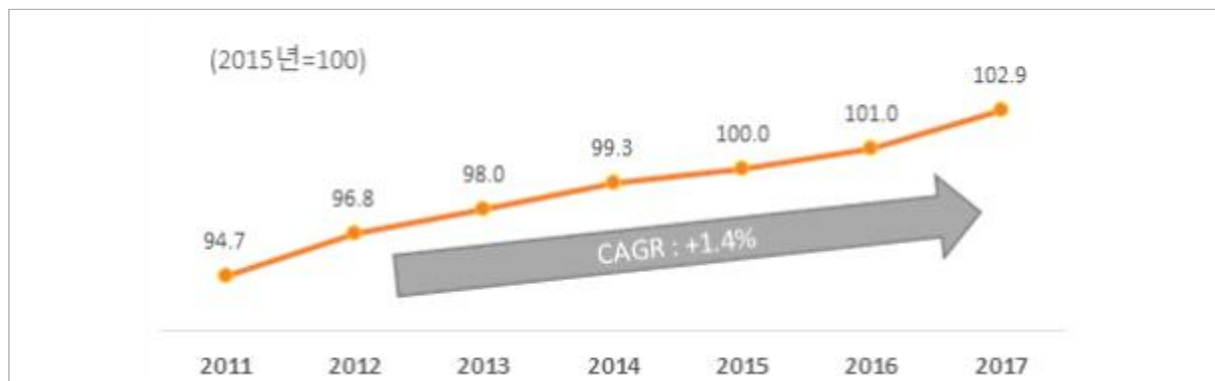
\*자료원 :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 정책브리핑’ (2017)

## 8) 경제환경 : 소비심리

### [물가지수]

-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는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 및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1.0대로 올라섬
- 2017년은 연평균 는 102.9로 전년에 비해 1.9 상승함
- 소비자물가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29〉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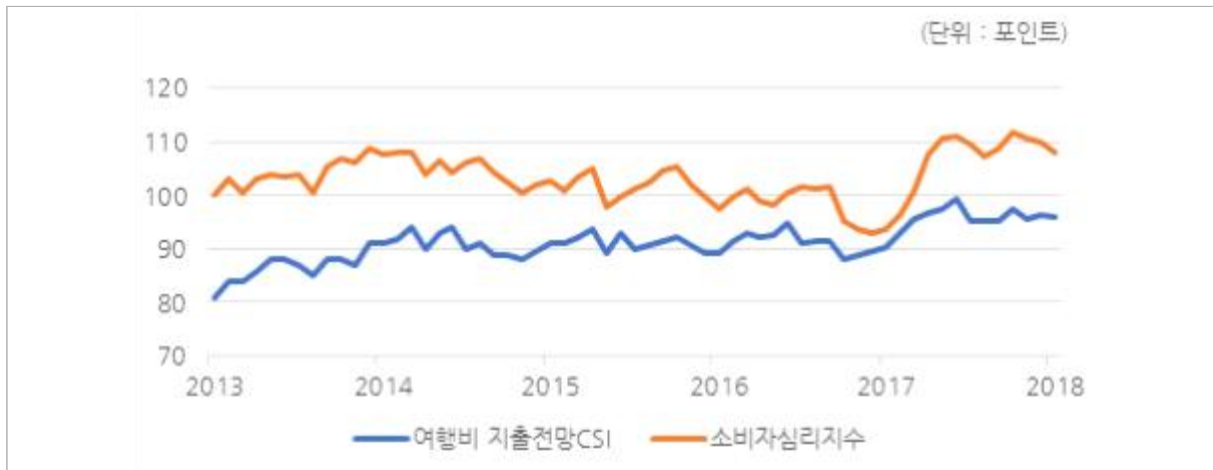
\*자료원 : 통계청 ‘소비자물가 총지수’

### [소비심리지수]

- 소비심리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이후 회복하고 있으나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0〉 연도별 소비심리지수 변화



\*자료원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2016년 11월 88p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17년 7월 99p로 대폭 상승한 후 등락을 지속해오고 있음
- 여행비 지출전망은 전반적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결과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
- 소비자물가의 상승과 소비심리지수의 감소 추세로 인한 관광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우려됨

### [소득/소비 양극화]

- 최근 소득수준 구간별 소득 증가 추이를 보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 2016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계소득



\*자료원 : 통계청, 연합뉴스(2017)

- 2016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소득수준 최상위 20%)의 전년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분위(소득수준 최하위 20%)와 2분위는 각각 5.6%, 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를 측정하는 소득 5분위 배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계층 불균형 및 빈곤가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니계수 등과 같이 소득배분의 균형수준을 의미하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격차의 Gap이 높음을 의미
  - 2012년 이후부터 소득 5분위 배율이 확대되기 시작
  -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 p 증가

〈표 27〉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배, 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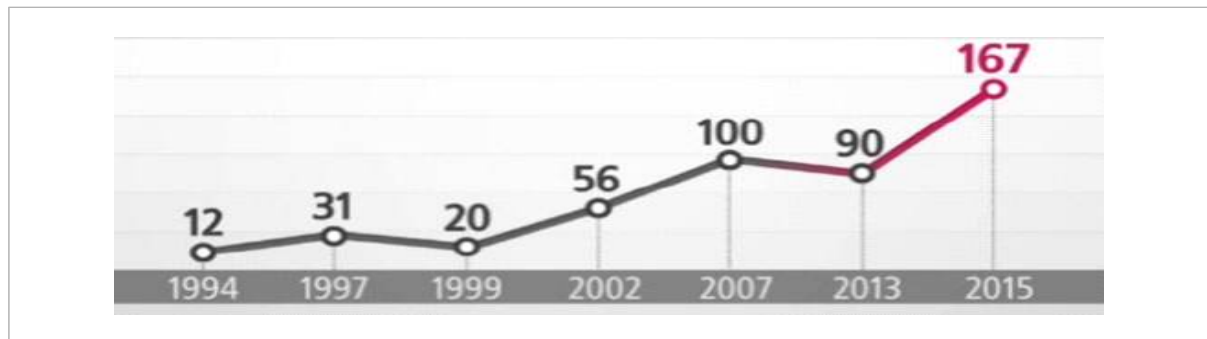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전체	시 장 소 득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1.08
	처분가능소득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0.34
	정부정책효과	1.27	1.49	1.67	1.95	2.08	2.13	1.97	2.16	2.67	3.13	3.87	-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수준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 ÷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

\*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심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을 의미하는 소비양극화 지수<sup>5)</sup>가 169로 나타나 1994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1994년 12, 2013년 90

〈그림 32〉 소비양극화 지수 추이



\*자료원 : 한국소비자원, 매일경제(2015)

- 5) 소비생활 양극화지수 :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본인의 소비계층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나눈 뒤 계층별 비중을 기준 시점(2007년=100)과 비교해 산출

- 여행시장에 있어서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함께 경제적으로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임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관광활동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음

## 9) 생태환경 : 환경존중문화

### [기후변화 이슈]

- 자연 파괴 등 환경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다방면에서 기본 가치에 대한 회귀 및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울산광역시는 과거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도시로만 인식되었으나, 태화강 환경복원을 통해 강물과 대숲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지로 변모하였음
  - 오산, 양산, 부산, 예산, 용인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하여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도 생태관광 및 환경 복원사례 체험을 위해 방문

〈그림 33〉 울산광역시 태화강 환경복원 사례



\*자료원 : 글로벌뉴스통신(2016)

- 중국 베이징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대비하여 고강도 스모그 예방조치를 지휘하여 차량 2부제 조치로 스모그 발생을 방지하였음
- 페루는 주요 관광지의 대기오염으로 관광 매력도가 저하됨에 따라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문제 적절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PAMA)’를 실행중에 있음
- 필리핀은 세계 3대 비치 중 하나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보라카이섬에 대해 호텔 및 레스토랑 등 관광업체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환경복원을 위해 6개월 동안 폐쇄하기로 함
- 하와이는 지구온난화 지속 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질 산성화에 따른 산호초

파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 손실 등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관광업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환경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음

## 10) 생태환경 : 관광활동변화

### [친환경 레저]

- 국내에서 2010년 초부터 캠핑 및 아웃도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중국에도 이러한 캠핑 및 아웃도어 등 친환경 레저 열풍이 확산되고 있음
  - 중국 장시성 우공산에서 ‘캠핑 축제’가 개최됨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 나가고자 ‘친환경 캠핑문화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음
  - 친환경·안전 캠핑문화 캠페인 추진, 민관협의회 출범, 친환경 캠핑장 조성 지원,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기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캠핑장도 많이 생겨났으나, 최근에는 캠핑의 본래 의미에 주목하여 전기나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즐기는 언플러그드 캠핑(Unplugged Camping)을 선호하는 이들도 늘고 있음

〈그림 34〉 언플러그드 캠핑 홍보 카드뉴스



\*자료원 : 한국환경공단 네이버포스트(2018)

### [친환경 수단 활용]

- 최근 국내에서는 제주도 및 지방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올레길 여행이 인기를 끄는 등 관광을 위한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움직임이 활발함
- 신안 슬로시티 증도는 전국 최초로 ‘차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전기차, 자전거, 마차 등의 이동수단을 운행하였음

- 춘천 남이섬은 바이크센터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35〉 친환경 관광 이동수단



\*자료원 : 조선일보(2010), 남이섬 홈페이지

- 프랑스 파리는 2007년에 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벨리브(Velib)’가 활성화되어 명물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인 ‘오토리브(Autolib)’를 추진하였음
- 대만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 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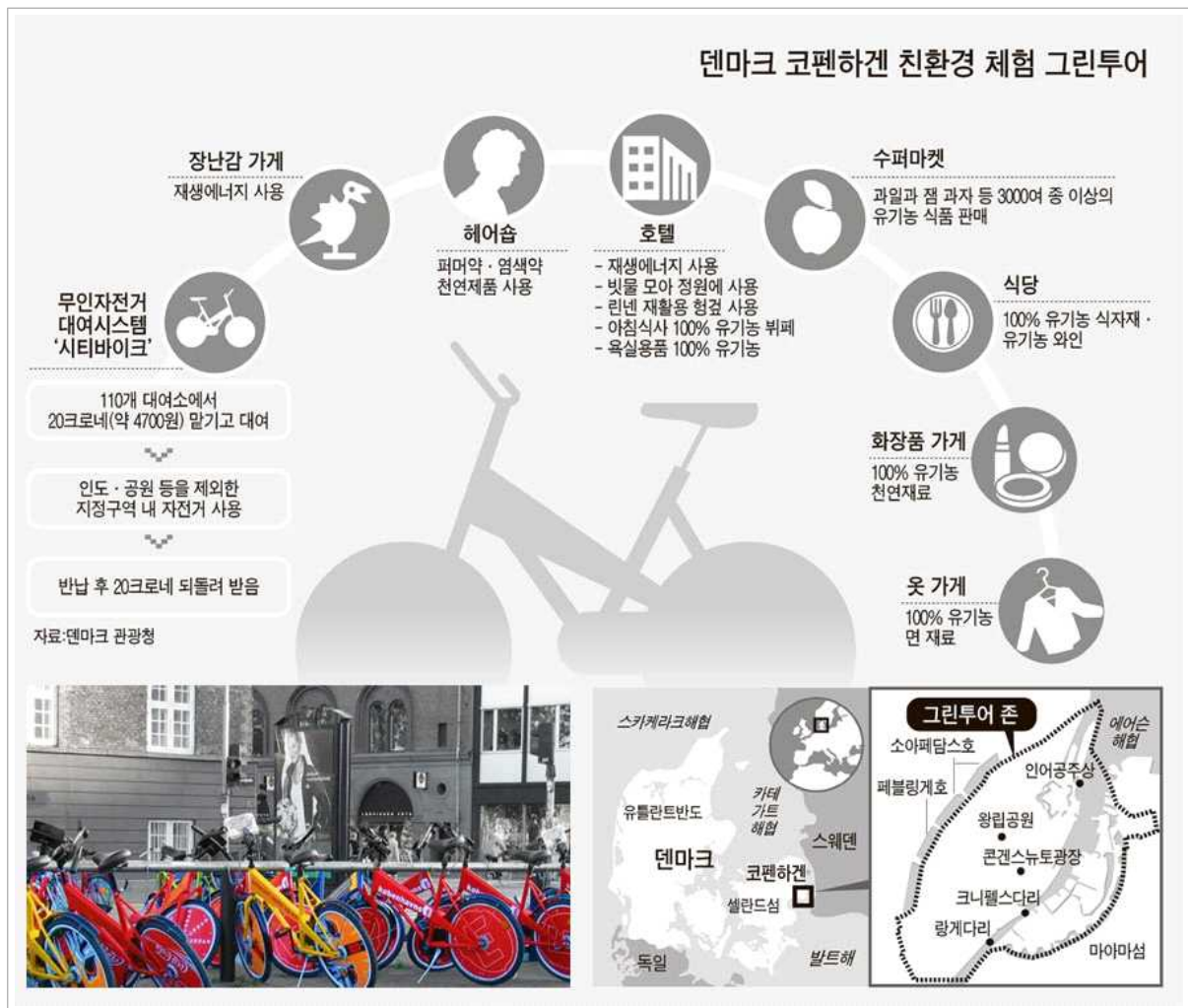
## [녹색관광]

- 생태, 레저, 스포츠 등이 어우러진 체험형관광 수요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로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관광이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녹색관광을 정책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함
  - 녹색관광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후적 지속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관광의 원칙과 관광활동 형태를 의미함
- 녹색과 성장의 자연친화적 개발형태이며, 도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전 산업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 세계 관광 트렌드와 시장 수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녹색관광 활성화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레저활동인 도보관광, 자전거관광도 녹색관광에 포함되며, 자연·생태자원에는 DMZ, 습지, 갯벌, 철새도래지, 해안사구, 자연동굴, 산과 강, 섬, 마을의 역사·문화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
- 유럽 청정도시로 유명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친환경 이미지를 관광에 접목한 ‘그린투어’를 상품화하고 그린코펜하겐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 호텔들은 녹색열쇠가 붙어있는 그린키(The Green Key) 호텔로서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 빗물을 모아 정원 가꾸기에 활용, 각종 에너지 절약장치 및 저탄소 설비 등을 통해 탄소중립지대 지향
- 유기농 식료품만을 취급하는 레스토랑, 카페, 식품점, 농장, 생태마을을 그린투어 코스 개발에 포함
- 2,000여 대의 공용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티 바이크’ 프로그램을 운영, 전기버스를 이용한 시티투어 버스 루트 개발, 전통스쿠터를 이용한 ‘세그웨이 투어’ 개발 등 이동수단 친환경화

〈그림 36〉 덴마크 코펜하겐의 그린투어



\*자료원 : 중앙일보(2009)

- 강원도 어름치마을의 녹색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대상지로서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이 마련됨
-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을 공동 수익사업으로서 생태펜션, 전기자전거, 주민 활력센터, 동강라이더·스카이점프 사업을 추진

- 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의 분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등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함

〈그림 37〉 강원도 어름치마을 사업 관련 조직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2012.12)

## 11) 정책환경 :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관광산업 활성화」가 설정됨
- 국민관광여건을 위한 휴가제도 지원 및 대체공휴일 전체 지정, 융합관광산업 육성,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등이 주된 내용임
-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융합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IT 기술 등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8〉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 관련사항

국정과제	주요 내용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여가 사회실현) <b>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b>(’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체공휴일 확대</b>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li> </ul> </li> <li>(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b>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b>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li> </ul> </li> <li>(관광산업 육성) <b>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b>, ’22년까지 <b>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지원</b>,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li> <li>(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육성</li> <li>(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b>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 명</b>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li> </ul>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li> <li>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li> </ul>

\*출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07)

## 12) 정책환경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정책방향

-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의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수립하였음
- 지역 관광콘텐츠 특화 및 서비스 강화, 여행지 발굴 및 야영장 추가 조성, 관광시설 안전 강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평일여행 활성화 등을 위한 여가문화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함
- 지역관광에 대한 콘텐츠 강화 및 융합형, 체류형 관광의 강조, 고급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도모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광콘텐츠 확충이 예상됨
- 무장애 관광환경 계획 및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로 관광인프라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됨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정책방향 중 관광 관련과제

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역별로 관광콘텐츠 특화, 서비스 전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 ‘관광전략 거점도시’(지방공항 등 연계) 법제화 및 육성계획 마련,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테마여행 10선 지역 특화</li> <li>• (콘텐츠) 문화콘텐츠 융합형 지역 특화 시티투어, 지역명사 여행, 노후관광지 재생, 한류·공연관광 활성화, 태권도·궁도·씨름·택견 관광 상품화 등</li> <li>• (서비스) 지역 교통·숙박·안내 등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li> </ul>
문화의 일상화 실현	사시사철 즐겁고, 구석구석 새로운 국내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시사철) 평창 여행의 달(겨울), 봄·가을 여행주간으로 여행 시기 분산, 연가 사용 촉진 프로모션으로 평일여행 활성화</li> <li>• (구석구석) ‘추천 가볼만한 곳’,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을 통해 시기·테마별 매력적인 미개척 국내여행지 소개, 캠핑장 추가 조성</li> </ul>
기초 문화생활 보장	누구나 편안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애 공간) 열린관광지 조성, 무장애여행 코스 추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li> </ul>
	일과 삶이 균형잡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문화 조성) 휴일 제도 개선, 여가친화기업 우수직장 인증, 국가승인 통계화 등 기반 마련</li> <li>• (근로자 휴가지원) 운영시스템 구축 및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휴가비 등 총 80억 원 이상 적립·지원</li> </ul>
신규 서비스 창출	국민이 산업에 참여, 관광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 관광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등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제공 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li> <li>• (관광 두 레) 2인 이상 지역주민 공동체 운영지원 확대 및 단계별 (준비-창업-유지·발전) 지원 방침 수립</li> <li>• (고급(럭셔리)관광) 희소성 있는 콘텐츠(전통문화, 명인, 미식, 한류 등) 발굴 및 숙박·여행 등 관광서비스와 융합한 고부가 상품 개발</li> <li>• (웰니스 관광)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확대 및 지역 체류형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선정·육성</li> </ul>
문화행정 혁신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관광 개발) 지역 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센터 운영 및 지역 관광 정책·사업 평가체계 개선, 사업 효과성 제고</li> </ul>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문화시설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시설)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복수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야영장(야영용 트레일러·글램핑) 시설 안전기준 강화 추진, 친환경·안전 캠페인 실시 및 안전매뉴얼 보급</li> </ul>

## 2. 관광트렌드

### 1) 글로벌 관광트렌드

- 2017년 글로벌 관광트렌드에 대해 포브스(Forbes)지가 조사한 결과로는 블레저, 로컬여행, 셀프여행, 생태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특히, 개인의 관심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로컬여행과 자기주도형 여행의 증가추세에 따라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르는 나홀로 여행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었음

〈표 30〉 2017 글로벌 관광트렌드

구분	내용
1. 블레저 붐 (Bleisure B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직원복지 차원의 인센티브 관광 열풍이 불고 있음</li> <li>• 출장 시 개인여행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족을 동반하여 현지문화에 몰두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으며, Airbnb 활성화가 이에 기여함</li> </ul>
2. 지역의 매력을 찾는 로컬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레니얼 세대는 물질가치보다 경험을 중시하나, 고가의 관광지를 찾기에 경제력이 부족하여 형편에 맞게 여행지를 선정</li> <li>• 해외가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지역문화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중점</li> </ul>
3. 자기주도형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관련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여행사의 기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li> <li>•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AI 및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행지 예약,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옵션 선택 등 관광소비가 이루어짐</li> </ul>
4. 나홀로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전용의 여행상품 및 여행사 급증과 더불어 특히 여성들의 개인관광이 증가</li> <li>• 보다 개인적인, 경험 확대 기반의 여행에 대한 선호도 증가 트렌드와 함께함</li> </ul>
5. 생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들이 여행에 수반되는 탄소배출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으며, 외딴 곳을 방문 시 더욱 두드러짐</li> <li>• 관광객 스스로와 관광지 및 현지인 모두에게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는나에 따라 여행계획 결정</li> </ul>

\*자료원 : 포브스(2017)

### 2) 국내 관광트렌드

-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여행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S.T.A.R.T’ 라는 키워드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음
- 여행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즐길 줄 아는 밀레니얼세대(1980~2000년 출생)의 특성이 관광트렌드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당일여행 또는 단기 숙박여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광역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레저활동을 위해 원거리의 여행지도 부담없이 찾아가는 추세임

- 증가세가 확연한 나홀로 여행자의 경우, 주요 숙박형태인 ‘게스트하우스’ (61.3%)가 요가강습, 서핑강습, 야간클럽파티 등 단순 숙박 이상의 체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음
- 도시재생지역 또한 볼거리가 있는 단순 방문지에서 벗어나 한복, 교복 등 특색 있는 테마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10~20대 젊은 층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음
-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아 창의적인 색깔을 띠고자 하는 여행욕구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유·피드백 문화 확산과 더불어 국내 관광콘텐츠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1〉 2017~2018년 국내 관광트렌드

구분		내용
S (Staycation)	# 여행의 일상화 # 근거리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일상 중 짧은 시간으로도 여행을 즐기는 추세로 ‘당일치기’ 또는 ‘1박2일 여행지’로 부산, 제주, 서울이 가장 많이 언급됨</li> <li>• KTX보다 저렴한 저비용항공 확대와 KTX(경강선), 서울-양양 고속도로 확충에 따라 18년도에도 여행의 일상화는 지속될 전망임</li> <li>• 특히, 다이빙, 서핑, 패러글라이딩 등과 같은 레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평창올림픽 시설의 체험상품화, 평창-강릉-정선을 잇는 ‘올림픽 아리바우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언급됨</li> </ul>
T (Travelgram)	# 여행스타그램 # 여행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월간 활동 사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이 대세 SNS로 급부상하면서 여행의 행위는 즉시 사진 이미지로 편집·기록되고, 여행자 개개인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게 됨</li> <li>• 또한 ‘인생샷(인생에서 찍은 사진 중 가장 잘나온 사진)’을 찍기에 적합한 장소들이 밀집된 제주, 부산, 서울 일대가 핫 플레이스로 가장 많이 언급됨</li> </ul>
A (Alone)	# 혼행 # 휘게 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밥’과 ‘혼술’에 이어 ‘혼행’까지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트렌드 확장이 두드러짐</li> <li>• ‘올로라이프(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에 이어 ‘휘게라이프(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됨</li> <li>• 아름다운 풍경 감상과 맛집 탐방, 레포츠 활동 등 다양한 힐링 체험이 가능한 제주도가 나홀로 여행자들의 성지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li> </ul>
R (Regeneration)	# 도시재생 # 원도심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명 여행지가 아닌 일상적으로 거니는 거리, 골목,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도심에 문화·예술·역사가 배합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모델인 감천문화마을, 동피랑마을 등이 가장 많이 언급,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서울 익선동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짐</li> <li>• 전통시장 또한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푸드 트럭, 핸드메이드 마켓, 문화공연 등 색다른 즐길 거리·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야(夜)시장 성공사례가 늘어나, 전국 단위로 확산될 추세임</li> </ul>
T (Tourist sites in TV programs)	# 여행예능 # 드라마촬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기 드라마 &lt;도깨비&gt;가 촬영된 강릉 주문진과 힐링여행프로그램 &lt;효리네 민박&gt;이 촬영된 제주도 애월의 인기가 두드러짐</li> <li>• 먹방, 역사, 교양 등 다양한 테마들이 결합된 &lt;알쓸신잡&gt;의 인기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테마여행 상품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li> </ul>

\*자료원 :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 트렌드는 S.T.A.R.T’, 보도출처(2017.12)

- 광역교통의 발달로 당일 또는 단기숙박 여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레저활동을 위해 원거리의 여행지도 부담없이 찾아가는 추세임
-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여행 수요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요구되고 있음

### 3) 융복합관광

- 관광산업은 명확한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산업이며, 최근 관광객도 다양한 체험과 경험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여러 유형의 관광활동을 포함하는 복합관광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림 38〉 융복합관광 유형과 사례

의료 + 관광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ex) 태국의 메디컬 Spa 리조트	
미술 + 관광		유적지나 미술품 등의 문화행사와 관광상품의 결합 ex) 소더비/크리스티 경매, 광주비엔날레	
게임 + 관광		기존 게임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gambling 관광산업 발달 ex)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카지노	
스포츠 + 관광		스포츠이벤트와 관광을 연계시켜 상품화 하는 관광형태 구상 ex) 영국 프리미어리그, PGA 투어	

\*자료원 : 현대경제연구소 한국형 Slow City ‘관광산업 복·융합 촉진방안’

- 관광수요 다양화와 행태 다변화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산업 간 융·복합화를 지향하는 T2(Tourism Technology) 개념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상품이 출현하고 있음
- T2는 관광상품 개발에서 전달에 이르는 가치사슬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공학적 틀을 의미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농어촌관광, 의료관광, 음식관광, 스포츠관광 등과 같은 융·복합 형태의 관광을 창출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전통적인 관광시장의 틀이 깨어지고 관광산업과 신규/첨단산업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복합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4) 주요 관광통계

## [국민 국내여행 총량]

- 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따르면 국내여행의 참가자수, 참가 횟수, 총 비용, 이동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관광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국내여행 총량 주요 데이터
  - 참가자 수 : 전년도 3,929만 명 대비 3.0% 증가한 4,048만 명
  - 참가 횟수 : 전년도 2억4,175만 회 대비 17.9% 증가한 2억8,497만 회
  - 총 비용 : 전년도 25조7천억 원 대비 14.4% 증가한 29조5천억 원
  - 이동총량 : 전년도 4억1,238만 일 대비 16.3% 증가한 4억7,967만 일

〈그림 39〉 2015~2017년 국민 국내여행 총량

(단위 : %)



\*자료원 :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 [여행형태]

- 2017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이 국내여행을 다녀온 횟수는 약 2억8,479만 회로 추정되며, 숙박여행 1억1,278만 회(39.6%), 당일여행 1억7,218만 회(60.4%) 규모로 추정됨

- 여행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광여행은 46.0% 수준인 약 1억3,095만 회, 기타여행은 54.0% 수준인 1억5,41만 회로 추정됨

<표 32> 2017년 국내여행 참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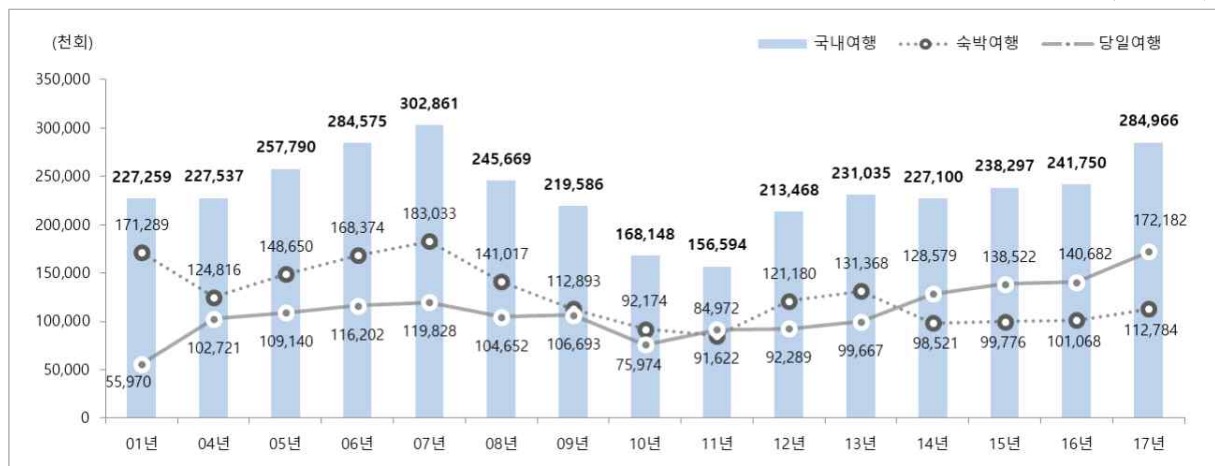
(단위 : 회)

구분	국내여행		
	계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 체	284,966,001	112,784,481	172,181,521
관광여행	130,951,780	54,715,862	76,235,918
기타여행	154,014,221	58,068,618	95,945,603

- 과거에는 숙박여행 횟수가 당일여행 횟수보다 많았으나, 당일여행 횟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숙박여행 횟수를 초과하기 시작, 2017년에는 1.5배에 달함
- 이러한 추세를 통해, 여행의 일상화 및 근거리·저비용 여행의 최근 관광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0> 연도별 국내여행 참가 횟수

(단위 : 천 회)



\*자료원 :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 국내여행 총비용 측면에서는 만 15세 이상 국민이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여행에 약 29조 4,55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 여행유형별로 살펴보면, 숙박여행 지출액은 약 19조 1,714억 원(65.1%)이며, 당일여행 지출액은 약 10조 2,846억 원(34.9%) 규모로 추정됨
- 여행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광여행 지출액은 약 17조 1,656억 원 규모로 전체 국내여행 비용의 58.3%, 기타여행 지출액은 약 12조 2,904억 원 규모로 전체 국내여행 비용의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숙박 관광여행 : 약 12조 5,973억 원, 당일 관광여행 : 약 4조 5,683억 원
- 숙박 기타여행 : 약 6조 5,741억 원, 당일 기타여행 : 약 5조 7,163억 원

〈표 33〉 2017년 국내여행 총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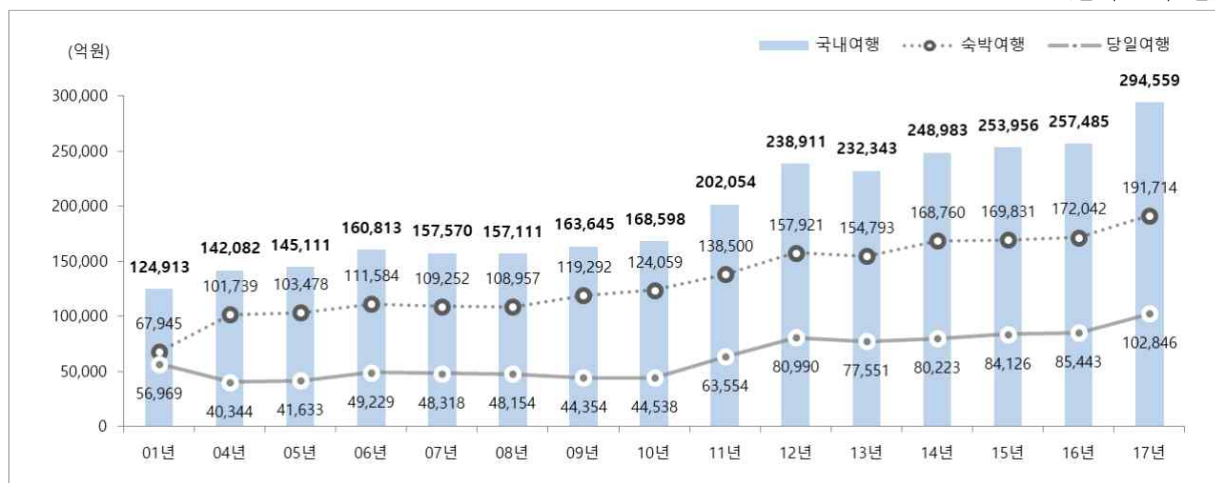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국내여행		
	계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 체	29,455,943	19,171,376	10,284,566
관광여행	17,165,558	12,597,303	4,568,255
기타여행	12,290,385	6,574,073	5,716,312

- 당일여행 횟수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행지출액은 숙박여행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017년에는 당일여행의 1.9배에 달함
- 당일여행의 증가추세에 주목함과 동시에 숙박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광활성화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효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도 수반되어야 함

〈그림 41〉 연도별 국내여행 참가 횟수

(단위 : 억 원)



\*자료원 :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 [여행지 주요 활동]

- 국민여행의 여행지 주요 활동의 비중은 ‘자연 및 풍경 감상(28.5%)’, ‘음식관광(21.2%)’, ‘휴식/휴양(13.9%)’,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12.5%)’,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4.9%)’, ‘역사유적지 방문(4.4%)’의 순으로 나타남
-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휴양’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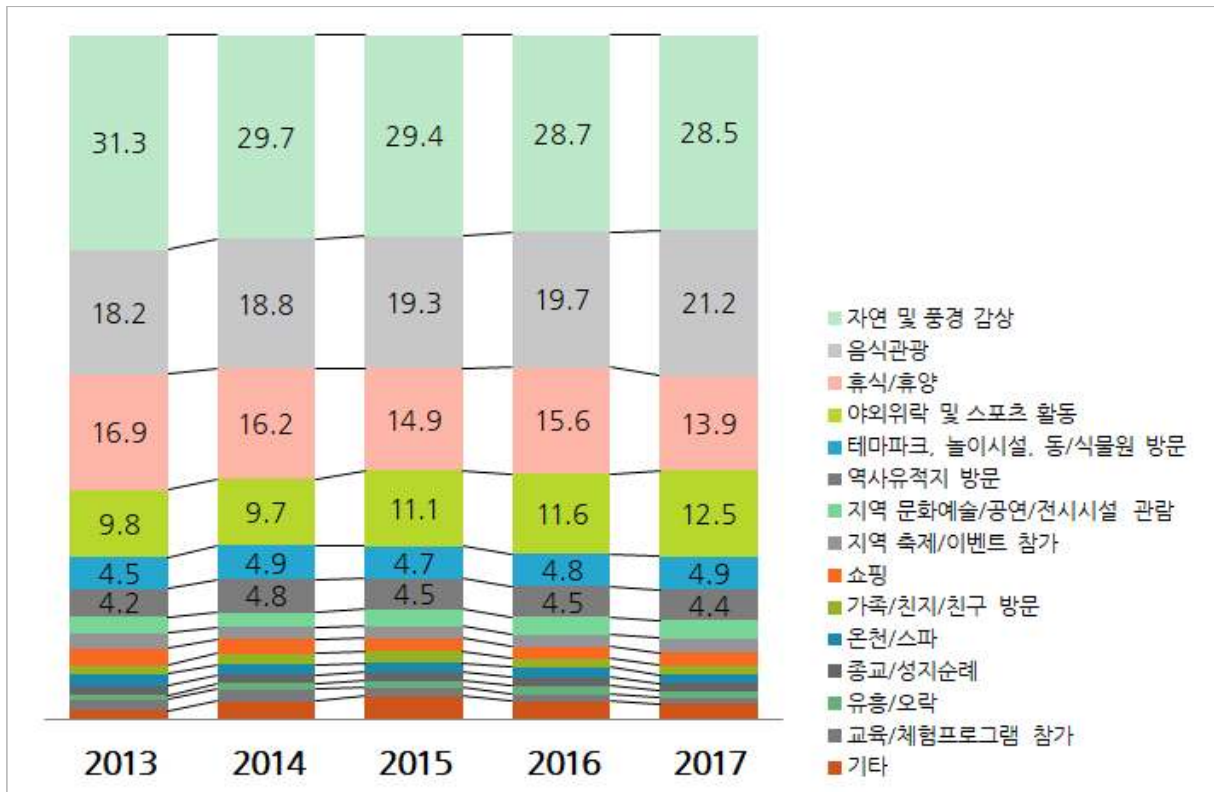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음식관광’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도합 17.4%에 도달하였음
- ‘역사유적지 방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42〉 2013~2017 국민여행 여행지 주요 활동

(단위 : %)



\*자료원 : 2013~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기타 : 갬블링, 시티투어, 드라마촬영지 방문, 회의참가/시찰, 교육/훈련/연수 포함

###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 지역별 체험프로그램 만족도는 가구여행은 세종, 제주, 대전, 광주, 전남 등의 순으로, 개인여행은 제주, 세종, 광주, 전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7개 지역 중 경북은 가구여행 3.83점(12위), 개인여행 3.79점 (13위)으로, 하위권에 속함

〈표 34〉 2017년 관광여행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가구여행, 개인여행 합산 순으로 정렬)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계	숙박여행	당일여행	계	숙박여행	당일여행
전체	3.89	3.95	3.84	3.80	3.91	3.86
제주	4.09	4.09	4.00	4.11	4.12	4.05
세종	4.11	4.18	4.00	4.00	-	4.00
광주	4.00	4.00	4.00	3.96	4.00	3.96
전북	3.94	4.05	3.85	3.96	3.97	3.96
전남	3.95	3.91	4.01	3.92	3.96	3.90
경남	3.92	3.95	3.89	3.93	3.86	3.98
강원	3.98	4.01	3.83	3.86	3.92	3.75
부산	3.90	3.82	4.00	3.87	3.93	3.82
충남	3.83	3.91	3.77	3.92	3.86	3.94
서울	3.89	4.09	3.83	3.85	3.78	3.87
경기	3.90	3.91	3.90	3.84	3.91	3.79
경북	3.83	3.86	3.77	3.79	3.83	3.77
대전	4.06	4.00	4.10	3.50	3.89	3.41
충북	3.66	3.81	3.58	3.81	3.81	3.80
울산	3.82	3.82	3.82	3.63	3.53	3.68
대구	3.68	3.52	3.70	3.76	3.77	3.76

- 여행지 활동 중 신체적 활동 비중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안동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신체적 활동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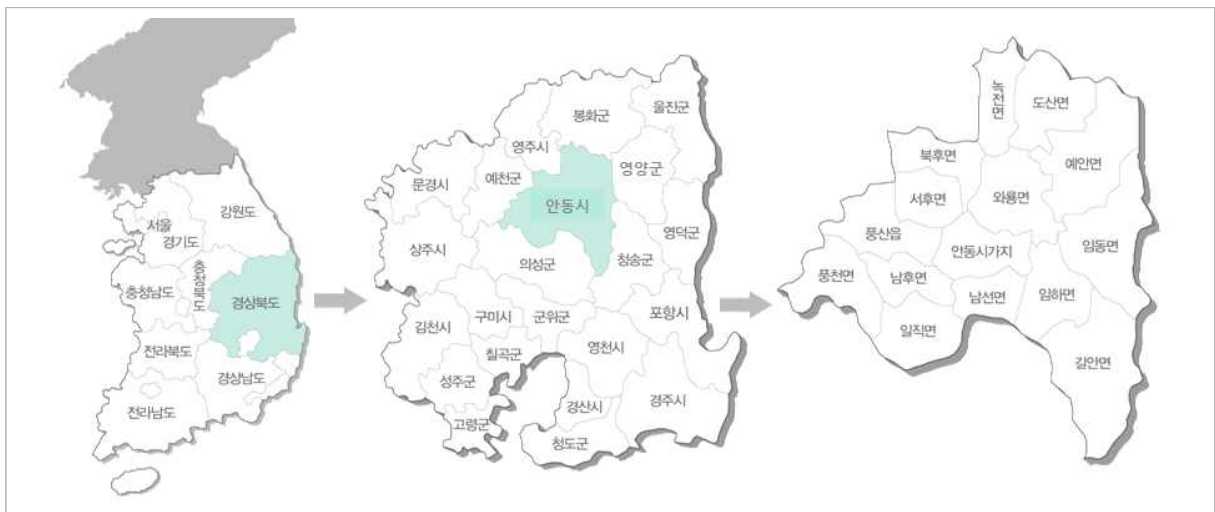
### 3. 안동시 현황

#### 1) 입지여건

##### [입지여건 및 행정구역]

- 안동시는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영양, 청송, 서쪽에는 예천, 남쪽에는 의성, 북쪽에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임
- 태백산맥이 줄기차게 뻗어 그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가지 동측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행정구역은 1개 읍, 13개 면, 10개 동과 42개 법정동으로 구성됨
- 총면적 1,521.94km<sup>2</sup>로 경상북도 총 면적(19,028km<sup>2</sup>)의 8.0%를 차지하며, 서울특별시 면적(605.21km<sup>2</sup>)의 2.5배에 달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시 중 가장 넓음

〈그림 43〉 안동시 입지여건



\*자료원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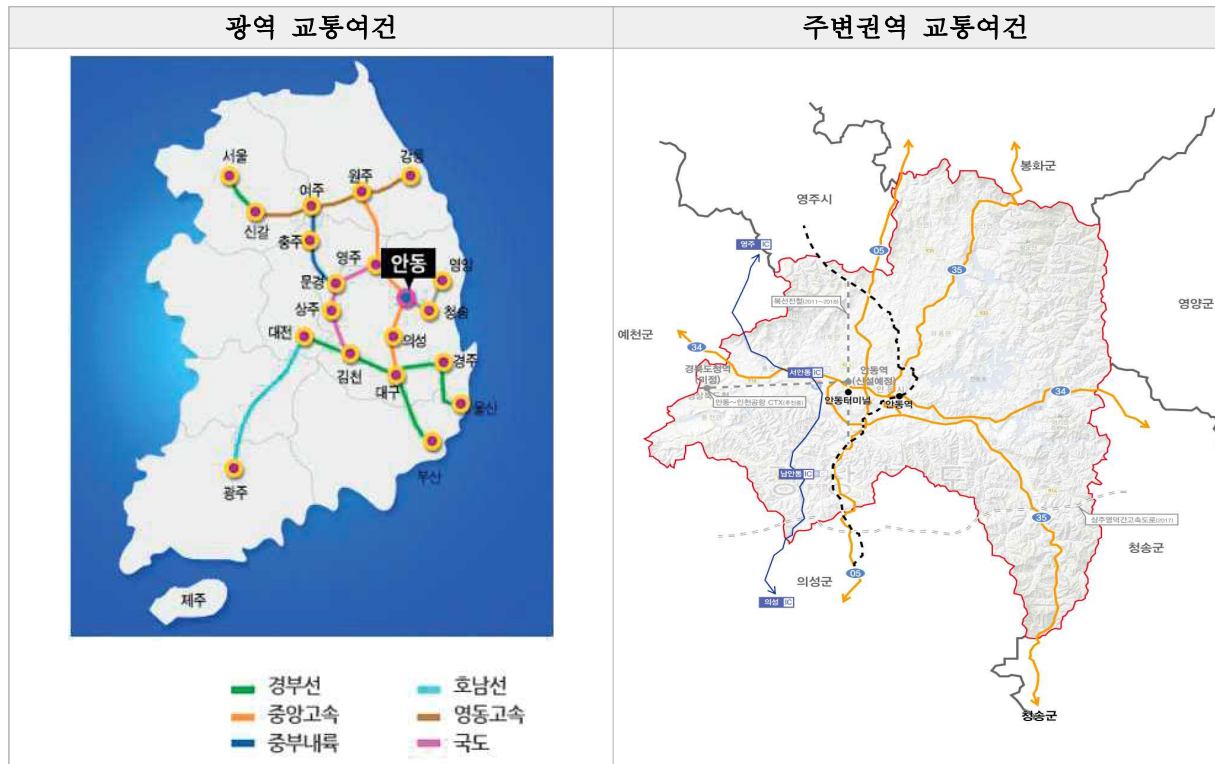
##### [접근성 및 교통여건]

- 중앙고속도로가 서안동 IC와 남안동 IC로 연결되어 안동의 서쪽 통과하며, 당진영덕고속도로 동안동 IC가 동쪽으로 연결되어 동서의 접근성이 용이함
  - 당진영덕고속도로는 일직면에서 중앙고속도로와 만나게 되고 길안면에 동안동IC가 신설됨
- 2009년 착공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는 107.6km 4차로 신설 고속도로이며, 기존 상주에서 영덕까지 3시간20분이나 걸리던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6년 12월 23일 개통함
- 영주와 의성을 연결하는 5번국도, 예천과 청송 진보를 연결하는 34번국도, 봉화 소

천과 청송 현서를 연결하는 35번 국도가 지남

- 철도교통은 중앙선 복선화로 철도가 2019년 개통 예정임
- 항공교통으로는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함

〈그림 44〉 안동시 교통여건



\*자료원 : 한문화 ICT 융·복합벨리 조성 기본계획(2018),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2017)

## 2) 자연환경

### [지형지세]

- 전체면적 중 임야가 70.1%로, 주로 산림 및 숲 등으로 구성되며, 그 밖에 전이 8.3%, 답이 6.0%를 차지함

〈표 35〉 안동시 토지유형별 면적현황

구분	농경지		임야	대지	기타	합계
	전	답				
면적(k㎡)	126.8	91.97	1,066.75	21.49	214.93	1,521.94
구성비(%)	8.3	6.0	70.1	1.4	14.1	100.0

\*자료원 : 안동시청 홈페이지

- 동북쪽으로 태백산맥, 북쪽으로 소백산맥에 닿아 있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분기지대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음
- 태백산 서쪽 비탈면은 영양군 일월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안동 제1봉인 학가산이 비교적 험준한 산맥을 이루고 서남쪽으로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음
- 산은 900m를 넘지 않으며 높이 약 700m~800m의 산으로 학가산 동남쪽의 황학산, 연점산, 갈라산이 있고, 500m 안팎의 산으로는 서후면 천등산, 녹전면 봉수산, 임동면 아기산 등이 있음

〈그림 45〉 안동시 지형지세



\*자료원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2017)

## [하천]

- 안동시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은 낙동강이며 가장 큰 지류는 반변천으로, 낙동강이 안동시를 벗어나면서 송야천이 흘러들고, 이 밖에도 동계천, 미천, 역계천, 광산천, 내성천 등이 안동시를 관통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들
- 직할 하천 1개, 지방 하천 3개, 지방 관리 하천 34개, 소하천 30개가 있으며, 총연장은 516km임
- 강기슭에는 오랜 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단애가 발달하여 하회리의 부용대나 마에리의 마애절벽 등 뛰어난 경관을 만들어내며 용담폭포, 신암폭포 등 하천에 발달된 폭포로 인해 기암괴석과 소(沼)·담(潭) 등의 하천지형이 발견됨

〈표 36〉 안동시 주요하천

(단위 : km)

구 분	유로연장	세부내용
반변천	112.50	• 임동면과 길안면을 흘러 임하면 남선면을 지나 용상동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길안천	75.00	• 길안면 중앙을 지나 임하면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하천
송야천	22.40	• 북후면과 서후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
미천	59.13	• 일직면을 북류하여 남후면 검암리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역계천	15.00	• 녹전면 신평리에서 발원하여 사신리 낙동강으로 합류
광산천	25.88	•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덕봉리에서 발원하여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낙동강으로 합류

\*자료원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2017)

## [기후]

-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는 내륙 분지 지형으로 낙동강 수계의 상류 지역임 낙동강 수계를 따라 안동호, 임하호가 형성되면서 안개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함
- 최근 5개년 연평균 기온은 12.6℃인데 분지 지형 특성상 추위와 더위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안동댐, 임하댐이 건설된 후 더욱 심해짐
- 강수량은 해마다 변동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935.4mm임
  - 비는 7~10월에 집중적으로 내려 여름에 집중되는 하계집중형의 강우 패턴을 보임

〈표 37〉 안동시 연도별 기상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mm)	일조시간(H)	평균 상대습도(%)
	최고평균	최저평균	평균			
2012	18.0	7.0	12.2	1,047.0	2,221.6	64.7
2013	18.7	7.0	12.4	979.9	2,527.1	65.5
2014	18.7	7.1	12.5	960.4	2,434.1	63.1
2015	19.0	7.5	12.9	755.1	2,604.0	63.8
2016	19.2	7.9	13.2	934.4	2,612.6	64.3
1월	3.2	-7.5	-2.3	6.8	221.0	54.0
2월	6.9	-4.8	0.8	32.8	218.9	52.0
3월	13.9	0.7	7.1	45.8	235.1	53.0
4월	20.9	7.6	14.0	126.3	240.0	57.0
5월	26.4	11.4	19.0	51.4	313.5	55.0



구분	기온(℃)			강수량(mm)	일조시간(H)	평균 상대습도(%)
	최고평균	최저평균	평균			
6월	28.8	17.9	23.2	43.4	253.9	64.0
7월	30.5	21.4	25.4	274.5	229.7	77.0
8월	33.4	21.8	26.7	38.0	289.3	68.0
9월	25.7	17.4	21.0	166.8	107.7	79.0
10월	20.3	11.5	15.0	83.8	138.5	77.0
11월	12.6	1.5	6.7	16.6	177.5	69.0
12월	7.4	-3.6	1.7	48.2	187.5	67.0

\*자료원 : 안동시 통계연보(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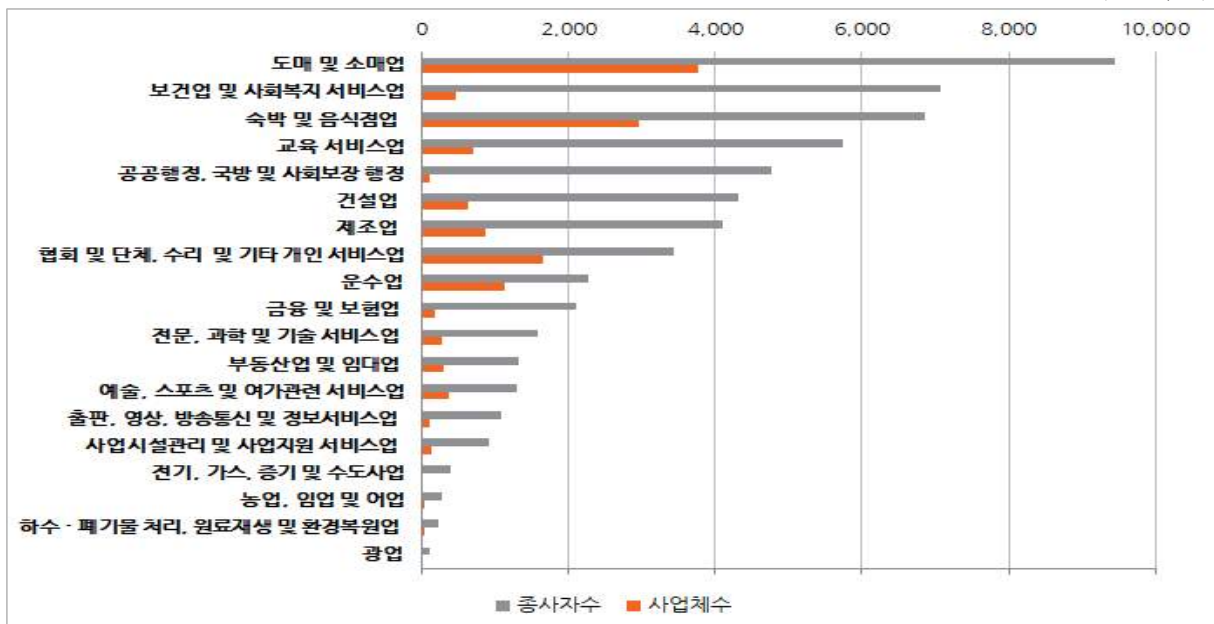
### 3) 산업

#### [사업체]

- 안동시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상 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 이 3,767개(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2,969개(21.6%),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1,661개(12.8%) 등 주로 3차 산업 사업체가 대부분임
  - 종사자수는 ‘도매 및 소매업’ 이 9,449명(16.5%)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073명(12.3%), ‘숙박 및 음식점업’ 6,868명(12.0%) 등 3차 산업 종사자가 대부분임

<그림 46> 2016년 안동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명, 개)



\*자료원 : 경상북도 통계포털 ‘2016년 기준 경상북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 [지역내총생산]

- 2015년 기준, 안동시 GRDP는 3조 3,0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경상북도 내 비중은 3.5%에 해당하며, 10개 시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함
- 경상북도 GRDP의 47.3%가 구미(27조 9,319억 원) 및 포항(16조 9,623억 원)에서 창출됨

〈표 38〉 2015년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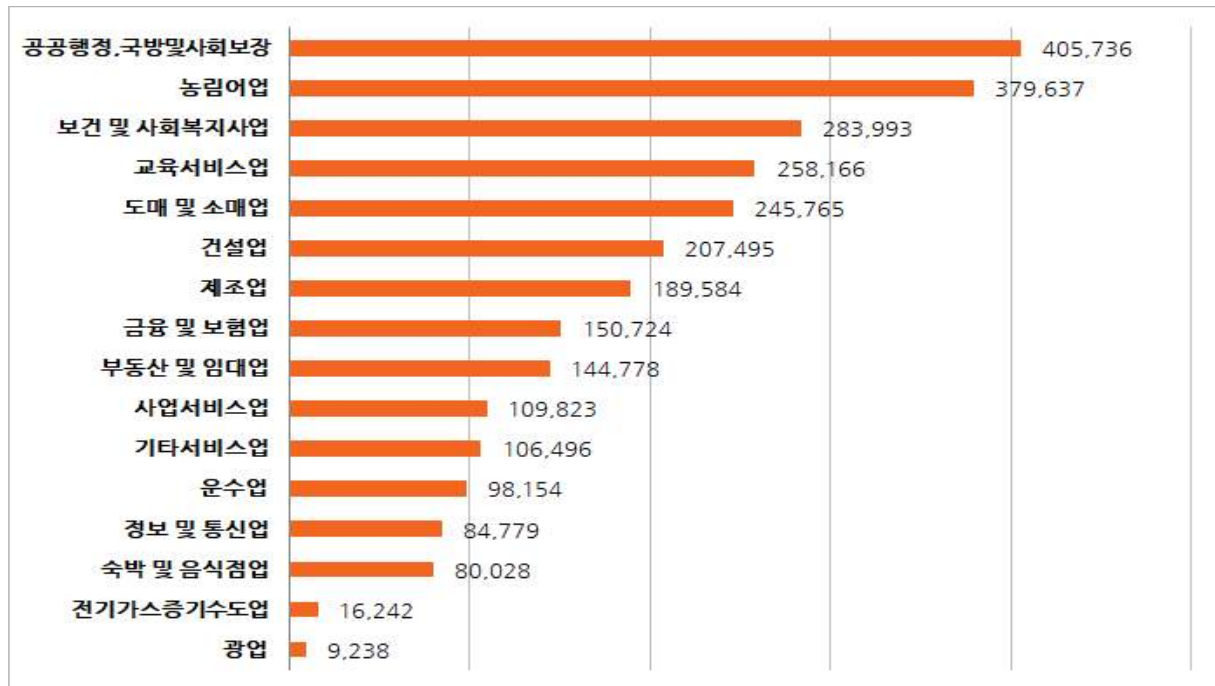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원)

시군명	2014년	2015년	구성비 (%)	기여율 (%)	증가율 (%)	변동원인(산업)
경북도	92,697.20	94,987.70	100	100	2.5	
구미시	29,117.80	27,931.90	29.4	-51.8	-4.1	• 전자통신제조업출하액감소(58조→54조)
포항시	17,478.10	16,962.30	17.9	-22.5	-3	• 철강제조업출하액감소(26조→22조)
경주시	9,066.80	9,630.30	10.1	24.6	6.2	• 원전 발전량 증가
경산시	6,880.50	7,135.80	7.5	11.1	3.7	• 전기장비,금속가공제품생산증가
김천시	3,638.60	4,254.50	4.5	26.9	16.9	• 혁신도시 입주로 공공행정생산액 증가
칠곡군	3,532.80	3,750.20	3.9	9.5	6.2	• 토목건설 증가
안동시	3,061.00	3,307.70	3.5	10.8	8.1	• 토목건설 증가
영천시	3,113.00	3,329.30	3.5	9.4	6.9	• 자동차부품,사과,포도생산증가
영주시	2,423.20	2,882.20	3	20	18.9	• 제1차금속산업생산증가
울진군	1,865.50	2,307.20	2.4	19.3	23.7	• 원전 발전량 증가
상주시	1,972.50	2,196.00	2.3	9.8	11.3	• 토목건설 증가
성주군	1,357.20	1,646.50	1.7	12.6	21.3	• 자동차부품·섬유제품 생산증가
문경시	1,721.90	1,561.20	1.6	-7	-9.3	• 한우사육과 전기제품 생산감소
고령군	1,278.20	1,359.70	1.4	3.6	6.4	• 작물생산 증가
의성군	1,067.70	1,170.20	1.2	4.5	9.6	• 토목건설 증가
청도군	931.9	940.5	1	0.4	0.9	• 작물생산,주거용건물건축증가
예천군	865.8	953.3	1	3.8	10.1	• 주거용 건물건축 증가
봉화군	884.8	980.3	1	4.2	10.8	• 축산업 생산증가
영덕군	662.1	753.8	0.8	4	13.8	• 토목건설 증가
군위군	602.7	666.3	0.7	2.8	10.6	• 가축사육두수 증가
청송군	583.8	608.8	0.6	1.1	4.3	• 토목건설,가축사육두수증가
영양군	349.1	357.8	0.4	0.4	2.5	• 사회복지기관 증가
울릉군	242.2	301.8	0.3	2.6	24.6	• 토목건설 증가

\*자료원 : 경상북도 ' 15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결과

- 안동시 GRDP는 산업별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과 ‘농림어업’ 부문에서 주요한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의 GRDP는 4,057억 원(1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GRDP 역시 3,796억 원(13.7%)로 주요한 부문을 차지함

<그림 47> 2013년 안동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자료원 : 경상북도 통계포털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전략산업]

- BT산업 및 백신산업 : 첨단바이오산업 및 친환경·녹색성장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특화하여 도시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함
  - 바이오소재산업, 바이오건강, 한방산업, 바이오제품판매 등 산업단지 지원·관리 및 교육센터 등을 집적화한 바이오산업종합단지를 육성
  - 지역산업의 집적을 위한 바이오벤처 집적지 조성 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CT산업 : 안동의 전통문화를 문화산업(CT)화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와 새로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며,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지역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지식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

〈표 39〉 안동시 성장동력사업

구분	성장동력사업
BT산업	• 경북바이오산업단지(941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CT산업	• 안동문화관광단지(1,655천㎡), 박물관 도시(20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백신산업	• SK케미칼 백신공장, SK플라즈마 혈액제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
최근사업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2단계, 3대문화권 기반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528천㎡)

\*자료원 : 안동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 4) 인구

- 안동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비중이 21.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해당함
- 본 사업의 대상지에 해당하는 도산면과 임동면은 안동시 내 행정구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며, 65세 이상의 비율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함
- 노령화지수 측면에서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10배를 초과하여 안동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2018년 기준 전국평균 : 110.5

〈표 40〉 안동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인구		0~14세	65세 이상	노령화지수
	수	비중			
안동시	166,272	100.0%	11.9%	21.6%	181.5%
도산면	1,824	1.1%	3.7%	41.7%	1,134.3%
임동면	1,951	1.2%	3.6%	40.1%	1,102.8%
예안면	2,016	1.2%	3.7%	40.1%	1,078.7%
녹전면	1,894	1.1%	4.0%	42.2%	1,065.3%
길안면	3,004	1.8%	4.0%	41.9%	1,050.0%
남후면	2,003	1.2%	4.6%	44.5%	959.1%
북후면	3,318	2.0%	4.5%	39.8%	880.0%
일직면	3,062	1.8%	4.9%	42.6%	870.0%
임하면	3,211	1.9%	4.7%	35.5%	755.6%
서후면	3,873	2.3%	4.7%	33.0%	706.6%
와룡면	4,464	2.7%	5.7%	39.0%	680.5%
남선면	2,320	1.4%	5.1%	32.6%	640.7%
풍산읍	6,980	4.2%	5.8%	36.8%	629.2%
풍천면	4,825	2.9%	8.2%	32.4%	395.4%
중구동	5,372	3.2%	7.7%	24.7%	318.5%
평화동	6,965	4.2%	11.2%	20.7%	185.2%
태화동	14,603	8.8%	10.9%	19.7%	180.5%
명륜동	5,598	3.4%	11.6%	19.9%	172.1%
서구동	10,127	6.1%	13.1%	20.7%	158.3%

구분	인구		0~14세	65세 이상	노령화지수
	수	비중			
안기동	7,028	4.2%	12.1%	17.4%	143.4%
용상동	22,596	13.6%	14.0%	14.9%	106.4%
송하동	15,062	9.1%	15.6%	12.1%	77.4%
옥동	23,867	14.4%	17.5%	11.2%	64.0%
강남동	10,309	6.2%	21.3%	10.0%	47.2%

\*자료원 : 안동시 ‘5세계급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토대로 재구성

- 해당지역은 노령화지수가 높고 지역 내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5) 관광

### [역사문화자원]

- 안동시에는 5점의 국보와 40점의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87점과 도지정문화재 220점이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자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48〉 안동시 주요 지정문화재



\*자료원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을 포함한 건축물과 유적지가 안동시 여러 곳에 분포해 있음
- 지정문화재 외에도 총 161개의 역사적인 유물, 유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표 41〉 안동시 주요 지정문화재

구분	내용
봉정사극락전 (국보 15호)	• 통일신라시대 건축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건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높음
범홍사지칠층전탑 (국보 16호)	• 1487년에 개축되었으며 원형이 보존된 한국 최고의 전탑임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통일신라시대 칠층전탑이며 판석 조각의 수법은 시대가 동일하지 않고 탑신부는 무너 없는 회색 벽돌로 축조됨
하회탈 및 병산탈 (국보 제121호)	• 현존하는 옛 가면 중에서 마을 굿에 쓰이던 신성가면의 성격을 지니면서 예능가면으로도 쓰인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하회탈과 병산탈임
징비록 (국보 제132호)	•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책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난중일기」와 함께 높이 평가됨
운흥동오층전탑 (보물 제56호)	• 무너 없는 벽돌로 5층을 쌓았으며 몸돌에는 층마다 불상을 모시기 위한 방인 김실을 설치했고 특히 2층 남쪽 면에는 2구의 인왕상을 새겨둠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보물 58호)	• 원래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보존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나 세부의 조각 수법이 우수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음
봉정사 대웅전 (국보 제311호)	• 신라 신문왕에 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규모는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팔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임 힘찬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어 조선 전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줌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115호)	• 자연 암벽에 신체를 선으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올려놓은 거구의 불상이며 고려시대 유행하던 지방화된 거구의 불상 가운데 하나로 당시 불상 양식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평화동 삼층석탑 (보물 제114호)	• 탑신을 받치고 있는 기단을 위·아래 2단으로 꾸민 석탑의 모습으로 아래층 기단에 아름다운 안상히 새겨져 있음 전반적인 비례감이 아름답음
조탑리오층전탑 (보물 제57호)	• 통일신라시대의 전탑으로 화강암 석재와 벽돌을 혼용해서 만든 특이한 탑으로 기단은 흙을 다져 마련하고 그 위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화강석으로 5~6단을 쌓아 1층 몸돌을 이루게 함
하회 충효당 (보물 제414호)	• 조선 중기 이름난 문신인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집으로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지을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조선시대 민가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620호)	• 당당한 신체의 표현과 화려한 영락 등이 특징으로 중국의 남송대보살사 오가 연관성을 보이는 작품임
임청각 (보물 제182호)	• 형조좌랑을 지낸 바 있는 이명이 1515년 건립한 주택이며 중앙선 철도부설로 규모는 줄어들기 하였으나 웅장한 모습의 행랑채가 99간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줌

\*자료원 : 안동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andong.com>)

## [서원/향교]

- 향교는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을 마친 유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받는 지방의 국립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안동에는 안동향교, 예안향교 두 곳이 있음
-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 운영기구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유교적 향촌질서 유지, 사람의 공론 형성 등의 역할을 했으며 안동에는 호계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23개가 있음



- 안동은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학문의 조예가 깊은 역사적 인물이 많아 사당과 재사도 다수 분포하고 있음

〈그림 49〉 안동시 주요 서원/향교



\*자료원 : 안동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andong.com>)

〈표 42〉 안동시 주요 서원/향교

구분	내용
안동향교	• 고려시대의 응보요 조선 개국이후 많은 인물이 배출된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개교된 것으로 추정되나 6.25때 기록문서들이 모두 불타 문헌상으로는 고증이 불가능 함
예안향교	• 조선시대에는 1군에 하나의 향교를 두었는데 예안향교는 예안현에 설치되었던 향교임
호계서원	• 안동 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백련사 절터에 여강서원을 세워 퇴계이황의 위패를 봉안하고 도학을 강론하였지만 대홍수로 유실되자 중창함
도산서원	•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당을 짓고 유생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곳으로 이 서원의 건축물들은 민간인들의 집처럼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병산서원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 병산서원의 전신은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으로 고려 말부터 사림들의 학문의 전당으로 1614년 서애 류성룡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존덕사를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함
도계서원	• 숙종13년(1687) 옥봉 권위 선생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며 대원군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8년에 복설하여 매년 3월, 9월 중정일에 향사하고 있음
운곡서당	• 후세에 와서 김학배와 김태중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정면 4칸, 측면 2칸의 서당을 짓고 이들이 학문을 가르쳤던 곳의 지명을 따서 운곡서당이라 함
농암사당	• 조선 중기의 학자 농암 이현보(1467~1555)의 위패와 초상화인 별본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분강서원에 딸린 건물임 원래 도산면 분천동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1975년에 이곳으로 옮겨짐
안동권씨능동재사	• 고려 삼태자 중의 한 분인 권행 선생의 묘제를 위한 재사이며 누문 안의 마당 건너편에 재사와 그 앞 양쪽에 동·서재가 툇ㅁ자를 이루고 있음
광산김씨 재사 및 사당	• 이 건물은 입향시조(入鄕始祖) 농수 김효로(金孝廬) 선생과 그의 증손 근시재 김해(曾孫 近始齋 金亥) 선생을 모시는 재사와 사당

\*자료원 : 안동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andong.com>)



〈그림 50〉 안동시 주요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지



\*자료원 : 안동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andong.com>)

### [관광실적]

- 안동시는 경상북도 시·군 중 경주시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2017년 방문객 수는 567만 명 정도로 경북 시·군 평균 206만 명의 2.7배 규모에 해당함

〈표 43〉 경상북도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순위(2017)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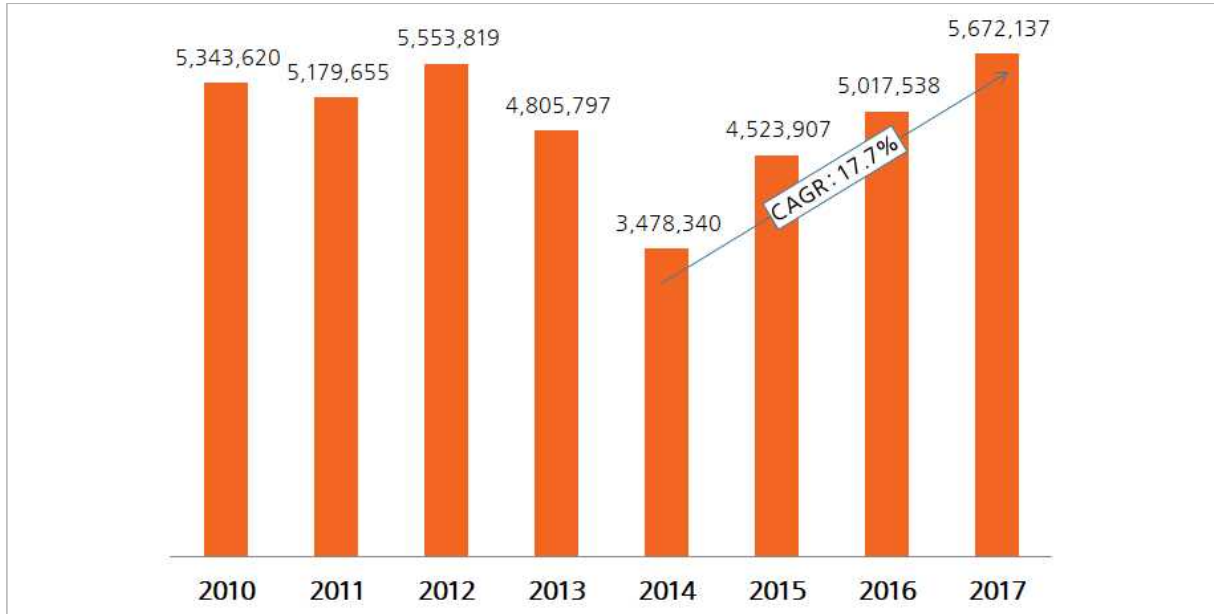
순위	시·군	방문객 수	순위	시·군	방문객 수
1	경주시	6,596,656	13	영천시	1,038,056
2	<b>안동시</b>	<b>5,672,137</b>	14	고령군	1,024,221
3	영덕군	5,344,203	15	상주시	953,847
4	포항시	4,734,798	16	김천시	851,452
5	문경시	3,295,920	17	봉화군	697,085
6	울진군	2,613,871	18	의성군	557,826
7	영주시	2,546,250	19	예천군	532,066
8	구미시	2,517,371	20	울릉군	473,546
9	경산시	2,161,414	21	성주군	245,952
10	청도군	1,823,254	22	군위군	173,546
11	칠곡군	1,803,813	23	영양군	169,722
12	청송군	1,619,976	경북 시·군 평균		2,062,912

\*자료원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tour.go.kr>)

- 안동시 주요관광지점의 연간 방문객은 5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연평균 17.7%씩 증가하여 2017년 567만 명 규모에 도달하였음

〈그림 51〉 안동시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자료원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tour.go.kr>)

- 안동시 주요관광지점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하회마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며, 각각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음
- 역사유적지 중 도산서원은 27만 명, 봉정사는 9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안동시 상위권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평균
하회마을	1,018,752	1,314,088	1,336,712	1,223,18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34,221	1,097,479	1,231,635	1,121,112
시립민속박물관	655,013	501,022	681,399	612,478
학가산온천	597,624	553,976	602,744	584,781
도산서원	220,908	275,271	316,380	270,853
안동체육관	131,700	204,915	152,720	163,112
하회동탈박물관	102,826	106,734	93,541	101,034
산림과학박물관	60,373	94,573	148,127	101,024
봉정사	78,260	88,829	98,170	88,420

\*자료원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tour.go.kr>)

##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은 안동시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대상지인 도산권은 유교문화와 MICE를 테마로 설정하였음

〈그림 52〉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권역 구분



\*자료원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수립’ 보고서(2017)

〈표 45〉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권역별 기본방향

구분	행정권역	기본방향
도심권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안동시가지	•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위락, 휴양, 레저 중심지로 발전
하회권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북후면	• 도청신도시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전통문화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전통문화체험 중심지로 발전
도산권	와룡면, 녹전면, 도산면, 예안면	• 유교 관련 다양한 유·무형 자원이 집적되어 있어 교육/체험 중심지로 발전
동남권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수변/산림)과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곳으로 역사문화와 생태체험 중심지로 발전

\*자료원 : 안동시 ‘중장기 관광진흥계획 수립’ 보고서(2017)

- 교육/체험 중심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험요소가 교육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가족단위 주말관광객 대상의 소구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교육/유교문화 체험과 동시에 다양한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탐방로와 제반 시설을 통하여 제주 올레길에 준하는 테마 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계획에서 2027년까지 안동시 전체의 목표관광수요를 700만 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설치·운영이 필요함

## 4. 관련 상위계획 및 법·제도

### 1) 산지관리법

- 탐방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산림청에 의해 지정된 공익용 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관광, 특히 유희 기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이 곤란한 상황임
- 안동시청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교량 설치를 위한 교대(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의 설치는 가능하나, 관광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매표소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함
- 일반 공익용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편익시설 및 체험·교육 시설 등의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한 행위의 검토가 필요함

〈표 46〉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구성	주요 내용
<b>법률</b> <b>제4조</b> <b>제1항</b>  <b>산지의</b> <b>구분</b>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b>1. 보전산지(保全山地)</b>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구성	주요 내용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시행령 제4조 제3항  산지의 구분	<p>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li> <li>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li> <li>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li> <li>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li> <li>6.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li> <li>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li> </ol>
법률 제12조  보전산지 에서의 행위제한	<p>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li> <li>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li>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li> <li>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li> <li>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li>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li> <li>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li> <li>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li> <li>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li> <li>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li> <li>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li>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li>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li> <li>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진입로</li> <li>나. 현장사무소</li> <li>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li> <li>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li> </ol> </li> <li>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li> <li>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p>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li> <li>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li> <li>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li> </ol> </li> </ol>

구성	주요 내용
	<p>및 시설에 한정한다.</p> <p>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p> <p>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p> <p>가. 진입로</p> <p>나. 현장사무소</p> <p>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p> <p>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p> <p>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p> <p>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b>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b></p> <p>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p>
시행령 제13조 제7항	<p><b>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b></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p>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 제6조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일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됨
- 본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22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토지 용도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성격의 기반시설에만 해당하여 관광, 특히 유흥 기능에 적합한 시설 조성이 곤란함
-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의 용도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결정권자가 광역자치단체장이므로 변경·고시를 위한 업무협약과 이에 따른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성	주요 내용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u>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u>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의 지정	<u>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u>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u>4. 자연환경보전지역</u>  <u>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u>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u>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성	주요 내용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p>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p>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p> <p>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p>
시행령 별표 22	<p><b>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b></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구성	주요 내용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지역의 경우 본격적인 유희시설은 아니더라도 체험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의 조성이 가능함
- 단, 본 사업대상지의 자연휴양림 용도변경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0년 준공예정인 금번 사업에는 적용이 곤란함

〈표 4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성	주요 내용
<b>시행령 제7조</b>  <b>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li> <li>•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 총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li> <li>• 개별 건축물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li> <li>•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li> </ul>
<b>시행령 제7조1항</b>  <b>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 : 숲속의 집·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li> <li>• 편익시설 : 임도·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오토캠핑장·야외탁자·데크로드·전망대·모노레일·야외쉼터·야외공연장·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li> <li>•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샤워장 등</li> <li>• 체험·교육 시설 : 산책로·탐방로·등산로·자연관찰원·전시관·천문대·목공예실·생태공예실·산림공원·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관·곤충원·동물원·식물원·세미나실·산림작업체험장·임업체험시설·로프체험시설 등</li> <li>• 체육시설 :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산악승마시설·운동장·다목적잔디구장·암벽등반시설·산악자전거시설·행글라이딩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 등</li> <li>• 전기·통신 시설 :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li> <li>• 안전시설 : 펜스·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li> </ul>

## 제4절 관련사례

### 1. 국내사례

#### 1) 논산시 탑정호

- 논산의 랜드마크인 탑정호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양 최대규모의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음
- 길이 600m, 폭 2m 규모로, 총사업비 99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함

#### 2) 파주시 마장호수

- 길이 220m, 폭 1.5m의 출렁다리로, 국내 조성된 보도용 현수교 중 최장규모임
- 사업비 7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간 38만 명이 방문하고 있음
- 방문객이 마장호수에서 찍은 사진을 인근의 30여개 음식점에 제시하면 가격의 10%를 할인하는 마케팅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그림 53〉 논산시 탑정호 및 파주시 마장호수 도입시설



#### 3) 제천시 청풍호

- 비봉산의 경사면과 숲을 지나 전망대까지 왕복하는 관광모노레일, 호수 인근의 청풍랜드 번지점프, 이젝션시트, 빅스윙 등을 운영함
- 케이블카를 설치 중이며, 길이 222m의 출렁다리를 설치 예정임

〈그림 54〉 제천시 청풍호 도입시설



#### 4) 의왕시 왕송호수

〈그림 55〉 의왕시 왕송호수 도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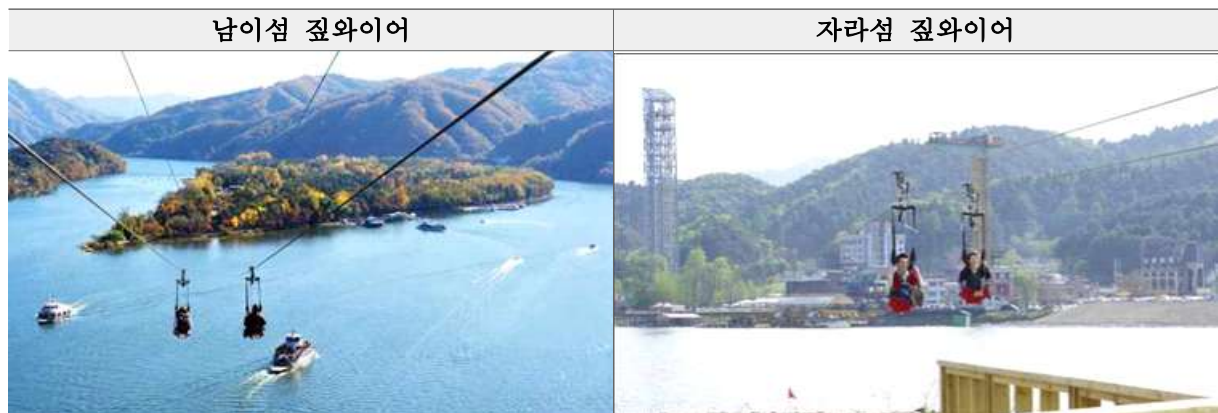


- 의왕 스카이라일(쥘라인)은 41m높이의 타워에서 최고 80km의 시속으로 350m를 하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총 소요시간은 20초 수준임
  - 이용료 15,000
- 의왕 레일바이크
  - 평일요금 : 2인 28,000원, 3·4인 36,000원
  - 주말요금 : 2인 30,000원, 3·4인 40,000원

## 5) 춘천시 남이섬, 가평군 자라섬

- 남이섬은 섬으로 되어 있으므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나, 쥘와이어(쥘라인)을 이용하여 날아서 도착하는 형태로 이용객에게 흥미를 선사함
- 25층 아파트 높이의 타워에서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의자를 타고 남이섬으로 하강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 시속 80km까지 올라가는 스릴이 있음

〈그림 56〉 춘천시 남이섬, 가평군 자라섬 도입시설





## 2. 국외사례

### 1) 스위스 외시넨 호수

- 알파인슬라이더를 설치하여 케이블카 승강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길이 750m의 코스를 하강하면서 알프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음
- 외시넨 호수 여행 시 필수 방문 코스로 여겨지고 있음

〈그림 57〉 스위스 외시넨 호수 도입시설



### 2)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 블레드 호수에 인접한 스트라자 언덕에 길이 520m 규모의 알파인코스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 상부와 하부의 표고차이는 131m, 평균 경사도는 14°로, 최고속도는 40km임
- 1회 기준 이용료는 성인 8~15유로, 어린이 4~10유로임
- 코스 상부까지 스키장 리프트를 타거나 걸어서 올라갈 수 있으며, 코스 하강과 함께 블레드 호수, 블레드 성, 슬로베니아의 알프스 경치를 즐길 수 있음

〈그림 58〉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도입시설



### 3) 독일 라체부르크 호수

- 라체부르크는 라우엔부르크 호수 자연공원과 인접해있는 지역이라 호수를 이용한 레저·관광활동을 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콘텐츠는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철도관광 체험 과 호수의 수상체험을 연결시킨 것임
- 라체부르크에서 홀렌벡까지 폐쇄된 선로 13km 구간이 라우엔부르크 호수와 접하고 있어 구간마다 폐쇄된 선로와 호수를 배경으로 레일바이크 체험, 6인승 자전거 체험, 하이드로 바이크(수상자전거) 체험, 카누, 카약, 수상신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그림 59〉 독일 라체부르크 호수 도입시설



### 3. 국내외 관련사례 시사점

- ‘자연 및 풍경 감상’ 및 ‘휴식/휴양’ 활동에 적합한 관광자원인 호수 또는 수변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연계 시설로서 ‘야외위락 및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 활동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액티비티 및 위락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음

# 제3장

## 탐방로 활성화 방안

---

**제1절 탐방로 활성화 방향성**

**제2절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제3절 변직골 구간 보행편의성 확보**

**제4절 관광활성화 제고**

## 제3장 탐방로 활성화 방안

### 제1절 탐방로 활성화 방향성

#### 1. SWOT 분석을 통한 요인 도출

- 본 사업에 대한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을 도출하였음

##### 1) 내부역량

###### [강점요인 / Strengths]

- 안동호 및 인접지역의 자연경관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함
- 대상지에 3대 문화권사업에 따른 유교문화관광단지가 확보되어 연계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음
- 충분한 탐방로 연장 및 다양한 코스구간 등 일정규모를 확보하여 이를 선호하는 관광객이 활발히 방문하는 추세임

###### [약점요인 / Weaknesses]

- 대상지가 공익용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능한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적임
- 안동호 주변 탐방로 코스 간의 연결지점 부족 및 단절로 인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저하됨
- 대상지 권역의 숙박을 비롯한 관광 관련 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함

##### 2) 외부환경

###### [기회요인 / Opportunities]

- 국내여행 총량이 증가하는 등 관광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며, 안동시 주요 관광거점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당일여행 관광객의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
- 휴양·휴식과 함께 활동성 높은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위협요인 / Threats]

- 젊은 층 관광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낮음



- 당일여행의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숙박여행의 지출액이 높아 약 2배에 달함
- 지역 간 경쟁심화 및 유사 관광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관광객 증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2. 탐방로 활성화 전략방향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들을 바탕으로, 탐방로 활성화의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음

〈그림 60〉 탐방로 활성화 전략방향

내부역량 Internal Analysis		강점	약점
외부환경 External Analysis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동호 및 인접지역의 자연경관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함</li> <li>대상에 3대 문화권사업에 따른 유교문화관광단지가 확보되어 연계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음</li> <li>충분한 탐방로 연결 및 다양한 코스구간 등 일정규모를 확보하여 이를 선호하는 관광객이 활발히 방문하는 추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이가 공익용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능한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적임</li> <li>안동호 주변 탐방로 코스 간의 연결지점 부족 및 단절로 인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저하됨</li> <li>대상이 권역의 숙박을 비롯한 관광 관련 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함</li> </ul>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여행 총량이 증가하는 등 관광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임</li> <li>안동시 주요 관광거점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임</li> <li>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당일여행 관광객의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li> <li>휴양·휴식과 함께 활동성 높은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총 관광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낮음</li> <li>당일여행의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숙박여행의 지출액이 높아 약 2배에 달함</li> <li>지역 간 경쟁심화 및 유사 관광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관광객 증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li> </ul>

<b>S-O 전략</b> 호수 및 산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2차 탐방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b>W-O 전략</b> 안동호 주변 탐방로 단절구간 연결 및 결절점 조성 탐방로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축제·행사 등)
<b>S-T 전략</b>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킬러콘텐츠 확보 도시생활과는 또 다른 색다른 체험활동 제공	<b>W-T 전략</b> 숙박을 비롯한 관광 관련 편의시설 확보 안동호 자연지리를 활용한 차별성 제고

- SO전략 : 강화전략
  - 호수 및 산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 2차 탐방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ST : 다양화전략
  -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킬러콘텐츠 확보
  - 도시생활과는 또 다른 색다른 체험활동 제공
- WT : 회피전략
  - 안동호 주변 탐방로 단절구간 연결 및 결절점 조성
  - 탐방로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축제·행사 등)
- WO : 보완전략
  - 숙박을 비롯한 관광 관련 편의시설 확보
  - 안동호 자연지리를 활용한 차별성 제고

### 3. 2차 탐방로 사업방향

#### 1) 주요 고려사항

##### [관광트렌드]

- 최근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개인 또는 소수 단위의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수요를 가진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를 찾는 추세를 반영해야 함
- ‘역사유적지 방문’,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휴양’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신체적 활동에 해당하는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음

##### [사업현황]

- 3대문화권사업은 유교 등 안동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테마의 관광시설이지만, ‘역사유적지 방문’, ‘지역 문화예술/공연/전시시설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 참가’ 위주의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2차 탐방로의 조성 시 전국 호수지역 탐방로 중 최대규모로 조성되며,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시 연간 28만 명 방문이 예상됨
- 탐방로는 ‘자연 및 풍경 감상’ 및 ‘휴식/휴양’ 위주의 활동에 한정되어,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 수요를 도산권역 내에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안동호 주변 탐방로 코스 간 연결지점 부족 및 단절로 인해 편의성이 저하됨
- 2차 탐방로 조성 후 가능한 잔여예산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체부 승인,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준수 필요

##### [국내외 사례]

- 자연풍경 감상 및 휴식/휴양 활동에 적합한 호수 또는 수변 지역에도 다양한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야외위락·스포츠,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연계시설을 운영함

#### 2) 사업방향 설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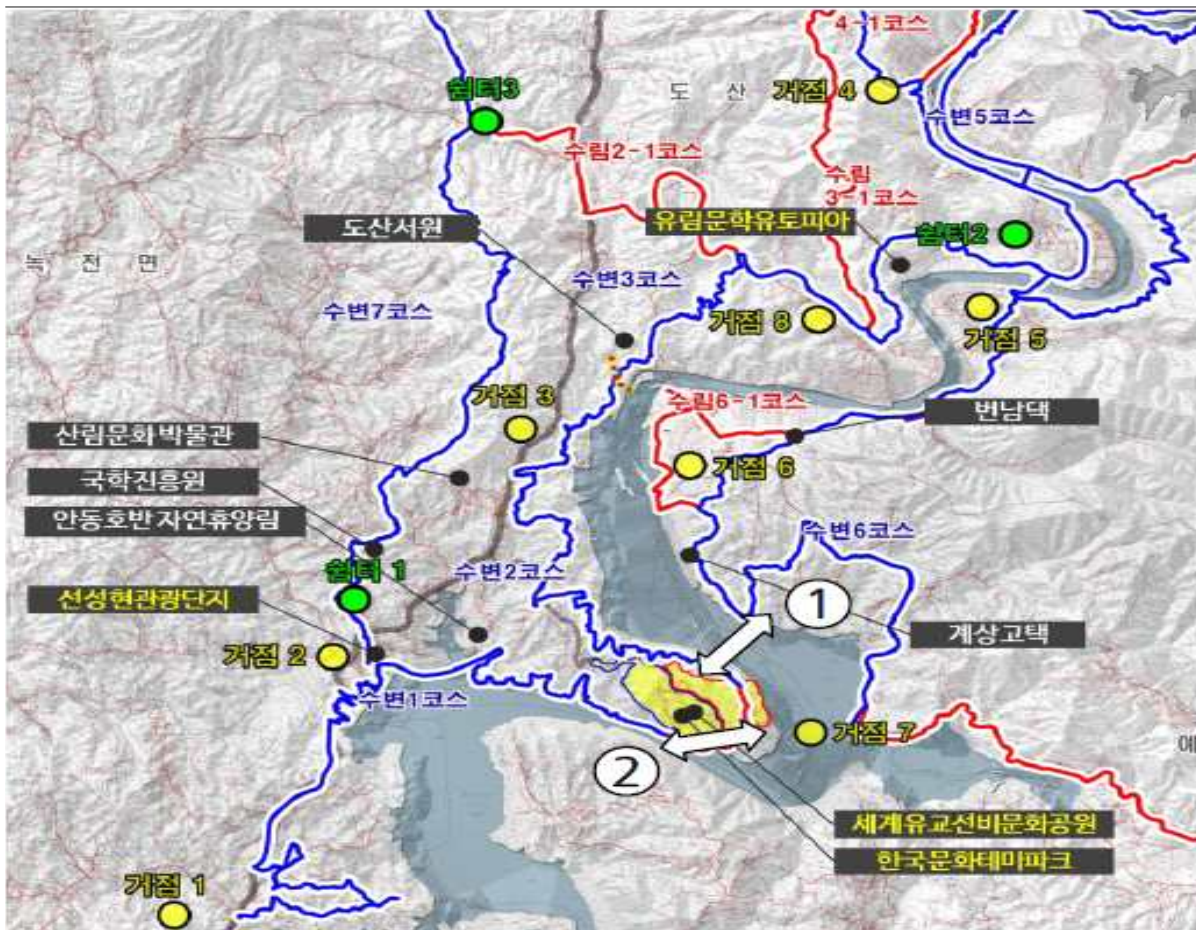
- 2차 탐방로 조성 후 가능 잔여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탐방로의 결절점 확충을 통한 코스 연결성 및 관광객 편의성 제고 필요
- 야외위락·스포츠, 놀이 시설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 도입으로 도산권역의 모객력 제고
- 사업지 용도변경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해 숙박을 비롯한 관광 관련 편의시설 확보



## 4. 사업후보지 검토

- 탐방로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변직골 구간의 보행편의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후보지를 검토하였음

〈그림 61〉 탐방로 활성화 사업후보지 검토



①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② 변직골 구간의 관광객 보행편의성 확보



## 1)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 한국문화테마파크·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계상고택과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자원 연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약 650m 규모의 안동호 횡단로를 조성함
  - 연락선 선착장(거점 7)와의 지리적 중복을 피함
  - 예비 대안으로 선성수산물길 종료지점과 천전리 선착장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대규모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지 확보에 적합한 곳으로 선택 필요

## 2) 변직골 구간의 관광객 보행편의성 확보

-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 변직골 남부의 탐방로 지형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관광객 보행편의성 확보가 필요함
- 탐방로가 단절되는 총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일반적 형태의 탐방로 조성이 곤란한 장소는 약 200m 1개소와 약 100m 1개소에 해당함
  - 탐방로를 찾는 이용객 불편 해소 및 테마파크 내 유료시설 이용객에 대한 보행의 편의성 제고 필요
  - 이를 통해 한국문화테마파크 및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 방문객의 이용 유도 및 편의성 확보에 도움을 줌

## 3) 주요 고려사항

### [사업지 여건]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함
- 이외 주변의 안동호 수변 지역은 공익용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조성 가능한 시설유형이 극히 제한적임
-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 휴양림으로 용도변경 시 다양한 시설조성 등의 검토가 가능하나, 진행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검토사항]

- 주요시설 측면에서 탐방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광기능 및 유희기능을 가진 시설 도입이 필요하나, 사업지 환경여건상 극히 제한적임
  - 교량 설치를 위한 교대의 설치 가능한 상황임
  - 안동호를 횡단하게 되는 측면, 특히 보행현수교의 경우 650m의 연장에 따른 교각 설치 가능성 측면에서 국토부,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도 필요함
-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 성격상 상업성이 강하거나 유희기능에 해당하는 시설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인프라 측면의 개발이 바람직함

- 부대시설 측면에서 탐방로 및 추가적 도입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카페, 농산물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이 뒤따라야 함
- 주요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환경여건상 이러한 개발행위가 제한적인 상황임

### **[연구방향]**

- 사업대상지의 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대상지 용도변경에 장기간 소요됨
- 먼저 도입 가능한 동·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보행현수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외의 관광시설 및 부대기반시설 등은 관광활성화 제고 차원에서 추진과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제2절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 1. 도입 후보시설

- 안동호를 횡단하는 교통로로서의 기능과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유희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측면에서 조성 가능한 시설들을 검토하였음

#### 1) 보행현수교

##### [보행현수교 개요]

- 산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호수 및 바다 등으로 대상지가 확대되고 있음
-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출렁다리 형태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음
-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 마장호수 방문객이 마장호수에서 찍은 사진을 인근의 30여 개 음식점에 제시하면 가격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음
- 소금산의 경우 입장료는 원주시민 1,000원, 외부인 3,000원이며, 3000원 가운데 2000원은 원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줌
- 보행현수교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바, 차별적이고 관광객 친화적인 형태의 조성이 필요함

##### [보행현수교 사례]

- 원주 소금산
  - 길이 200m, 높이 100m, 폭 1.5m
  - 월 20만 명 이상 연간 300만 명 예상
- 파주시 마장호수
  - 길이 220m, 폭 1.5m의 출렁다리로, 국내 최장 보도용 현수교 설치
  - 사업비 79억 원, 연간 38만 명 방문 예상
- 포천시 한탄강
  - 길이 200m
  - 개통 12일 만에 10만 2,000명 이용
- 파주시 감악산
  - 길이 150m
  - 연간 70만 명 방문

〈그림 62〉 국내 보행현수교 사례

구분		규모	비고
수변	논산시 탑정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600m, 폭 2m</li><li>사업비 99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9년 준공예정</li><li>동양 최대규모</li></ul>
	예산군 예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402m, 폭 1.8m</li><li>사업비 94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8년 11월 준공</li><li>2019년 3월 개통예정</li></ul>
	제천시 청풍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22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9년 준공예정</li></ul>
	파주시 마장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20m, 폭 1.5m</li><li>사업비 79억 원</li><li>강화유리 바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8년 3월 개통</li><li>연간 38만 명 방문</li></ul>
	청양군 천장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07m, 폭 1.5m</li><li>사업비 20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9년 4월 준공</li><li>개통 3개월 만에 25만 명 방문</li></ul>
	포천시 한탄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00m, 폭 2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8년 5월 개통</li><li>12일 만에 10만 2,000명 방문</li><li>1,500대 주차장 조성</li></ul>
	통영시 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98m, 폭 2m</li><li>사업비 13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5년 1월 준공</li><li>출렁다리 설치 후 관광객 2배로 급증</li></ul>
산지	순창군 채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70m, 폭 1.5m</li><li>사업비 68억 원</li><li>바닥 뚫림 방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9년 3월 개통예정</li></ul>
	원주시 소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200m, 폭 1.5m</li><li>사업비 38억 원</li><li>바닥 뚫림 방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7년 7월 준공</li><li>연간 300만 명 방문</li><li>입장료 1,000원</li></ul>
	파주시 감악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150m, 폭 1.5m</li><li>사업비 28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6년 10월 개통</li><li>연간 70만 명 방문</li></ul>
	봉화군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90m, 폭 1.2m</li><li>사업비 21억 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8년 5월 준공</li><li>연간 등산객 40만 명</li></ul>



〈그림 63〉 국외 보행현수교 사례

구분		규모	비고
수변	일본 오오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90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계 도보 현수교 10선’에 선정</li></ul>
	일본 미야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315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30만 개의 LED 조명 설치</li></ul>
산지	스위스 알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494m, 폭 0.6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7년 7월 개통</li></ul>
	러시아 소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439m, 폭 1.0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4년 개통</li><li>번지점프 이동경로로 활용</li><li>스카이파크 입장료 징수</li></ul>
	중국 장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430m, 폭 6.0m</li><li>유리다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6년 8월 개통</li><li>대협곡 입장료 118위안, 다리 입장료 138위안</li></ul>
	오스트리아 로이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402m, 폭 1.2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4년 개통</li><li>입장료 8유로</li></ul>
	일본 오이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길이 390m, 폭 1.5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6년 개통</li><li>입장료 500엔</li></ul>



## 2) 케이블카

### [케이블카 개요]

- 케이블카는 공중에 걸친 강삭에 반송용의 객실을 매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장치로 도입이 시작되었음
-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수단으로 승객 대량수송에는 적합하지 않아 대부분 관광용으로 운영함
- 남해안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 한 해 이용객이 100만~200만 명에 달하고, 200억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통영, 여수 해상케이블카에 이어 2017년 6월 운영을 시작한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도 8개월 만에 매출 200억 원 을 돌파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대상지는 케이블카를 도입하기에는 탑승거리가 짧은 한계점이 있음

### [케이블카 사례]

〈그림 64〉 케이블카 사례



- 제천시 청풍호
  - 청풍운동장에서 해발 531m인 비봉산 정상을 잇는 2.3km 국내 최장 규모임
  - 시간당 1,200명, 하루 1만 명 이용 가능하며, 2018년 말 완공 예정임
- 경남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 도남동 하부 역사와 미륵산 정상(해발 461m) 상부 역사 1,975m를 연결함
  - 2017년 이용자 140만 명

- 여수 해상케이블카
  - 2014년 말 완공된 1.5km 규모
  - 2018년 2월 말 누적 탑승자 650만 명 돌파, 한 해 200억 원 이상 매출
-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
  - 운행 8개월 만에 113만 명 이용
  - 1년도 채 안 돼 티켓 판매 수입이 200억 원 달성

### 3) 짚라인

#### [짚라인 개요]

-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하여 스릴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외 레포츠임
- 문경, 용인, 충주, 설악, 청도 등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트롤리와 와이어의 마찰음이 ‘짚(zip)’과 비슷하게 들리는 점에 착안하여 ‘짚라인’으로 브랜드명을 정함
- 하강레포츠는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하여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이드 요원과 동반하여 코스를 이용하므로 사전 지식이나 훈련 없이도 누구나 안전하게 하강레포츠를 즐길 수 있음
- 대한민국의 경우 1998년 충남 천안시 소재 삼성 에스원 연수원에 최초의 하강레포츠 2설 라인이 설치되어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국 54개소에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대한민국 내 최장 길이 하강레포츠 시설은 완공 예정인 경북 영천시 보현산댐 하강레포츠 시설로 단일 구간 시설 4.7km임

#### [짚라인 사례]

- 춘천시 남이섬, 가평군 자라섬
  - 높이 80m, 자라섬까지 640m, 남이섬까지 940m, 시속 80km
  - 총 사업비 35억 원
  - 2017년 9만6,768명 이용
- 용인자연휴양림
  - 울창한 숲속 사이로 지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33m부터 330m까지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코스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코스 특성에 따라 안전줄을 놓고 누워서 탑승하거나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탑승하는 등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

- 의왕 스카이라일
  - 의왕 왕송호수에 설치되어 있으며, 41m높이의 타워에서 최고 80km의 시속으로 350m를 하강
  - 총 소요시간은 20초 수준임
- 군산 선유도 스카이 sun라인
  - 12층 높이에서 하강하는 쥘라인으로 타워 10층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2인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음

〈그림 65〉 쥘라인 사례



#### 4) 휘르스트글라이더

##### [휘르스트글라이더 개요]

- 스위스 휘르스트 지역에서 휘르스트플라이어(쥘라인)와 함께 운영하는 액티비티임
- 쥘라인과 유사한 새 모양의 안전한 공중 탑승 기구이며, 쥘라인과는 달리 엎드린 자세로 내려가 스릴감을 가중시킴
- 스위스 휘르스트 지역 해발 1,950m의 슈렉펠트 역에서 4명의 인원이 시속 40km로 출발 후, 해발 2,168m의 휘르스트 정상에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다시 하강하는 액티비티임
- 기구 특성상 휘르스트글라이더의 안전성은 쥘라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엮드린 자세로 매달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행글라이더 하네스와 유사한 안전장치에 몸을 고정시킴

### [휘르스트글라이더 사례]

- 스위스 융프라우에 위치한 어드벤처의 천국 휘르스트에 설치된 즐길거리임
- 편도 800m 이르는 슈렉펠트~휘르스트 구간을 왕복하며, 휘르스트 정상 아래의 슈렉펠트 역 옆에 탑승장이 있음
- 최고속도는 슈렉펠트 → 휘르스트 구간 72km/h, 휘르스트 → 슈렉펠트 구간 83km/h이며, 키 130cm 이상 및 10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그림 66〉 휘르스트글라이더 사례



## 2. 도입 후보시설 비교검토

- 사업지 확보 가능성 및 사업비 성격 측면까지 종합 고려 시 보행현수교가 우선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그림 67〉 안동호 동·서 단절구간 연결 후보시설 비교

구분	주요 검토내용	매력도	차별화 가능성	실행 용이성	추정 공사비 (650m 기준)
보행 현수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장규모로 조성 가능하나 탐경호와 유사한 수준임</li> <li>대규모 모객 효과로 인해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 중임</li> <li>교량 설치를 위한 교대의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 사업지 여건상 접근성 확보는 제한적임</li> </ul>				166억원 (타 지자체 사례의 면적당 공사단가 적용)
케이블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 또는 해변을 활용한 해상 케이블카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호수 환경 특성상 유사한 모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li>국내 호수에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음</li> <li>코스 상부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하부 설비는 용지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li> </ul>				173억원 이내 (통영 1,975m, 173억 원)
짚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80km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다수 관광지에 도입하여 운영 중임</li> <li>코스 상부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하부 설비는 용지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li> </ul>				35억원 (남이섬 사례 준용)
워프스트 글라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속도 84km로 짚라인보다 더 높은 속도감을 즐길 수 있음</li> <li>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음</li> <li>코스 상부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하부 설비는 용지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li> </ul>				35억원 (짚라인 준용)

\*보행현수교 공사비는 고령, 울릉, 통영, 군산, 곡성 현수교의 면적당 공사단가 평균치를 적용하여 길이 650m, 폭 2m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이며, 시설물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타 지자체들이 많이 건설하고 있어서 안동만이 갖는 차별화된 시설로 도입이 필요함
- 국내 조성된 보행현수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간 40~7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보행현수교 운영사례

구분	규모 및 요금	이용객 및 요금
파주시 마장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220m, 폭 1.5m의 출렁다리</li> <li>현재 국내 최장 보도용 현수교</li> <li>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38만 명(파주시 예상치)</li> </ul>
청양군 천장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207m, 폭 1.5m,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통 3개월 만에 25만 명 방문</li> </ul>
포천시 한탄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200m, 높이 50m,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통 12일 만에 10만 2천 명 방문, 주말 마다 3천여 명 방문</li> </ul>
통영시 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96m,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렁다리 설치 후 관광객 4만1천 명에서 10만3천 명으로 급증</li> </ul>
원주시 소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200m, 높이 100m, 폭 1.5m</li> <li>원주시민 1,000원, 외부인 3,000원(2000원 상품권 반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300만 명</li> </ul>
파주시 감악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150m,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70만 명</li> </ul>
봉화군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90m,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등산객 40만 명</li> </ul>







## 4. 보행현수교 운영주체

### 1) 소요인력

-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선행연구에서는 탐방로 운영인력으로 2명 규모로 운영지원팀을 설계하여 탐방로 일반행사 기획 및 이벤트 운영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 시설 중 보행현수교 관리·운영을 위한 담당인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최소 5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보행현수교 양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현수교 동단과 서단에 각각 매표소를 운영할 경우 매표 담당인력 2명이 소요됨
- 최근 타지자체 보행현수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관광안전을 강화하는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기존 보행현수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를 감안할 때 안전관리 담당인력은 최소 2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행현수교의 일상적 시설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시설관리 담당인력은 최소한의 규모로 1명으로 설정함
- 정밀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용역발주는 시설관리 담당인력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2) 운영주체

#### [대안별 검토]

- 보행현수교 운영주체 형태로는 안동시 직영관리, 시설임대(외부기업), 전문민간기업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첫째, 안동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연계가능한 안동시 사업 등과의 종합적 사업수행에 적합하지만,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순환보직 등 공무원 조직 운영방식에 따라 기술력의 축적 및 전수가 어렵다는 점과 총액인건비제 등에 따른 인력 확충의 한계 등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시설임대 방식은 임대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장료 부과 방식에 따라 시설임대업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셋째, 민간기업에 운영·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성격에 따라 공익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활용할 경우 공익적 측면의 운영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표 50〉 관리운영 방식 비교

구분	직영	시설임대(외부기업)	관리운영위탁
개념	안동시	관리주체의 소유시설을 임대계약 형태로 운영	관련 분야 전문 기업이 위탁받아 운영 총괄
재원조달	정부 100%	민간자본 100%	민간자본 100%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연계성이 유리</li> <li>의사결정 신속성과 업무효율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확보</li> <li>별도 운영(위탁) 수수료 지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부문의 효율성 도입</li> <li>전문성 확보</li> <li>지원서비스의 질 향상</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 결여</li> <li>경쟁력, 기술력 확보가 어려움</li> <li>관료제 조직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어려움 발생 시 계약사 간 및 이해관계상반 가능성 내재</li> <li>보증금, 임대료 부담으로 매장도입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사업만 하게 되어 공익성 결여</li> <li>지원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li> </ul>

- 관리운영위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안동시 소재 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음

〈표 51〉 안동시 협동조합 설립현황(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구 분	주요사업	소재지
경북관광진흥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진흥 기여사업</li> <li>조합원의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 지원사업 등</li> </ul>	송현동
안동고택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택사업 등</li> </ul>	임동면
임동수상레저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키 및 수상스키 강습과 보팅, 숙박</li> <li>스키 및 수상스포츠 관련 장비 및 의류 판매</li> <li>선내·외기 판매 및 수리</li> </ul>	임동면
스텝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제기획 및 연출과 컨설팅, 각종홍보 및 마케팅사업</li> <li>공연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통한 수익증대사업</li> <li>무대, 조명, 음향, 영상, 조형물제작 등 행사 장비운영 및 임차사업</li> <li>시스템 엔지니어 양성교육</li> </ul>	운흥동
Culture Factory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레저,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li> </ul>	천리동
안동레저기획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저 및 레저스포츠 관련 물품판매, 수리, 기획 사업</li> </ul>	수상동
편안동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동관광자원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관광객-소상공인 연계사업</li> </ul>	운흥동
그림애문화마을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 마을복지사업,마을가꾸기,서비스사업,교육사업 등)</li> </ul>	신세동
돌고지 문화체험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고지문화체험사업</li> <li>국가,지방,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i> <li>공공기관과 공동추진 사업 등</li> </ul>	풍천면
문화링크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화를 비롯한 각종 공연 기획, 예능인 섭외, 행사 진행, 촬영 및 편집사업 외</li> </ul>	당북동

**[3대문화권사업 연계성 고려]**

- 「3대문화권 관리운영활성화 방안」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는 3대 문화권사업의 각 시설들에 대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기반의 통합운영 관리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음
-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사한 성격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임
- 본 보행현수교는 우선적으로 3대문화권사업 중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에 해당함
- 더불어, 보행현수교 조성을 통해 편의성 및 모객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3대문화권사업 및 도산권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성격을 감안 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하위사업에 해당하는 보행현수교의 운영주체를 별도로 선정하기보다는, 3대문화권사업 통합운영관리주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 및 시너지효과 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보행현수교를 유료시설화할 경우 3대문화권사업 운영 시 매년 23억 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손실보전금액에 대해 일부 충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5.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검토

### 1)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및 방법론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순수한 실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임
-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법(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법(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 비율법(B/C Ratio) 등이 사용됨

#### 1-1) 순현재가치법 (NPV :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법은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유입을 자본비용으로 할인된 순현재가치에서 순현재가치출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NPV = \sum \frac{CR_t}{(1+k)^t} - \sum \frac{CI_t}{(1+k)^t}$$

$CR_t$  : 연차별 수입,  $CI_t$  : 연차별 투자비용  
k, t :할인율(자본비용), 기간 의미함

#### 1-2)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즉 어떤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음

$$NPV = \sum \frac{CR_t}{(1+k)^t} - \sum \frac{CI_t}{(1+k)^t} = 0$$

$CR_t$  : 연차별 수입,  $CI_t$  : 연차별 투자비용  
k, t :할인율(자본비용), 기간 의미함  
IRR :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k의 값

- 단일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IRR이 자본비용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IRR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함

- 여기서 자본비용이란 이론적으로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어들여야 할 최소한 분석방법으로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되,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순 현재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3) 비용편익 비율법 (B/C Ratio)

- 비용편익 비율법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수익성 지수 (PI : Profitability Index)라고도 하는데, 비용편익 비율은 자본비용으로 할인된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을 의미함
- 즉,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 k)로 할인하여 사업기간중의 편익의 현재가치 총액과 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임
-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며, B/C Ratio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B/C \text{ Ratio} = \frac{\sum \frac{CR_t}{(1+k)^t}}{\sum \frac{CI_t}{(1+k)^t}}$$

$CR_t$  : 연차별 수입,  $CI_t$  : 연차별 투자비용  
k, t : 할인율(자본비용), 기간의미함

## 2) 분석기법

-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 비용편익 비율법을 적용하여 사업의 재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앞서 도출한 전제조건들을 기준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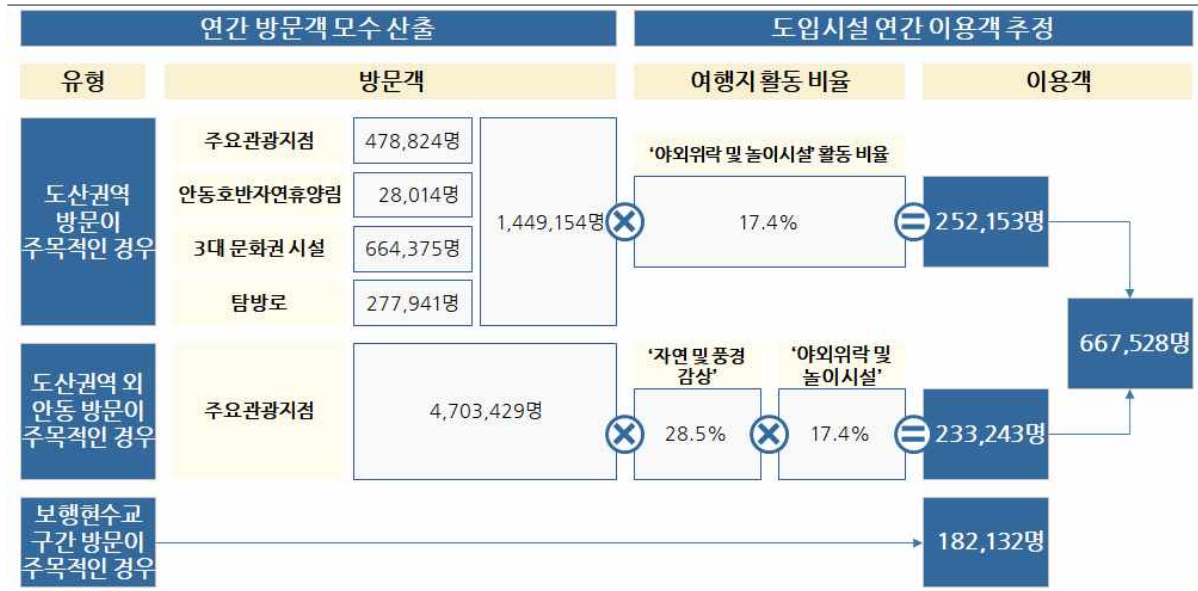
〈표 52〉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법 비교

분석기법	판단	장점	단점
순현재가치 (NPV)	NPV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의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li> <li>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li> <li>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의 어려움</li> </ul>
내부수익률 (IRR)	IRR >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li> <li>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li> <li>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사업 초기에 이익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합</li> <li>값이 없거나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포</li> </ul>
비용편익비율 (B/C)	B/C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li> <li>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익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li> <li>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li> </ul>

### 3) 수요추정

- 보행현수교를 주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도산권역 및 안동시 방문객이 이용하는 경우를 종합한 결과 연간 이용객은 667,528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광총량 관점에서 관광수요 증가분에 해당함

〈그림 69〉 보행현수교 수요추정



- 탐방로 중 보행현수교 구간 방문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은 신규 탐방구간이 생성되는 효과에 따른 방문객 182,132명으로 추산하였음
- 도산권역 방문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행현수교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는 도산권역 예상 방문객 1,449,154명에 '야외위락 및 놀이시설' 활동 비율 17.4%를 적용하여 252,153명으로 추산하였음

〈표 53〉 도산권역 연간 방문객

(단위 : 명)

구분	방문객	자료원
도산서원	270,853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최근 3개년평균)
도산온천	35,571	
산립과학박물관	101,024	
안동군자마을	9,340	
한국국학진흥원	30,951	
농암종택	31,085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최근 3개년평균)
안동호반자연휴양림	28,014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박물관)	175,961	• 3대 문화권 관리운영 활성화 방안」 추정치
한국문화테마파크	260,000	



구분	방문객	자료원
선성현문화단지	184,161	• 측정치 기반 추정치
유림문학유토피아	44,253	
탐방로	277,941	
계	1,449,154	

- 도산권역 외 안동 방문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행현수교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는 도산권역 외 안동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4,703,429명에 '자연 및 풍경 감상' 활동 비율 28.5%를 적용하고, '야외위락 및 놀이시설' 활동 비율 17.4%를 적용하여 233,243명으로 추산하였음

〈표 54〉 안동시 도산권역 외 연간 방문객

(단위 : 명)

구분	방문객	구분	방문객
계명산자연휴양림	30,253	안동한지	22,489
남안동컨트리클럽	78,479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28,777
단호샌드파크캠핑장	23,390	탐블리스 골프장	61,574
봉정사	88,420	하회동탈박물관	101,034
시립민속박물관	612,478	하회마을	1,223,18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121,112	학가산온천	584,78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2,857	갈라산	14,041
안동문화관광단지 온프레피움	50,586	권정생동화나라	18,553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71,744	암산유원지	249,491
안동문화관광단지 휴그린 골프장	78,319	천등산(1코스 2코스)	37,652
안동예절학교	2,651	태사묘	18,453
안동체육관	163,112	계	4,703,429

\*자료원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최근 3개년 평균)

- 보행현수교 연간 이용객 추정치 68만 명을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장래인구추계 비율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년간의 이용객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55〉 보행현수교 연도별 이용객

(단위 : 명)

연차	연도	이용객	연차	연도	이용객
1	2020	671,905	11	2030	684,413
2	2021	673,842	12	2031	684,623
3	2022	675,622	13	2032	684,607
4	2023	677,262	14	2033	684,346

연차	연도	이용객	연차	연도	이용객
5	2024	678,765	15	2034	683,822
6	2025	680,129	16	2035	683,021
7	2026	681,347	17	2036	681,935
8	2027	682,404	18	2037	680,565
9	2028	683,281	19	2038	678,917
10	2029	683,957	20	2039	676,994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4) 수익추정

- 소금산 사례를 준용하여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할 경우 연평균 6억8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56〉 보행현수교 연도별 수익

(단위 : 원)

연차	연도	수익	연차	연도	수익
1	2020	671,904,834	11	2030	684,412,761
2	2021	673,841,761	12	2031	684,623,005
3	2022	675,622,223	13	2032	684,607,402
4	2023	677,262,200	14	2033	684,346,041
5	2024	678,765,232	15	2034	683,821,795
6	2025	680,129,098	16	2035	683,021,476
7	2026	681,346,931	17	2036	681,934,601
8	2027	682,403,943	18	2037	680,565,009
9	2028	683,280,729	19	2038	678,917,172
10	2029	683,957,097	20	2039	676,994,285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5) 비용추정

- 보행현수교 조성비로 약 166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로 평균 4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차별화된 형태로 조성 시 비용증가가 예상됨
- 비용은 보행현수교 건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로 구성함
- 연간 운영비는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인건비, 예비비로 구성함
- 비용항목별 금액의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57〉 보행현수교 비용항목별 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초기 투자비	보행현수교건설비	16,585,452,8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 울릉, 통영, 군산, 곡성 현수교의 m<sup>2</sup>당 공사단가 평균치 12,758,041원 적용</li> <li>길이 650m, 폭 2m 기준</li> </ul>
연간 운영비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165,854,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비 × 1%</li> </ul>
	인건비	146,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급 8만원 5명</li> <li>매표 2명, 안전관리 2명, 시설관리 1명</li> </ul>
	예비비	31,185,4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 인건비) × 10%</li> </ul>
	연간 운영비 계	343,039,981	

- 연도별 인건비,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분을 감안하여 산출한 연도별 비용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2013~2017년 1인당 임금 평균상승률 2.7% 적용
  -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 지난 10년간 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1.4% 적용

〈표 58〉 보행현수교 연도별 비용

(단위 : 원)

연차	연도	비용	연차	연도	비용
1	2020	16,928,492,843	11	2030	420,319,267
2	2021	350,018,724	12	2031	429,039,108
3	2022	357,153,477	13	2032	437,957,117
4	2023	364,447,997	14	2033	447,078,122
5	2024	371,906,135	15	2034	456,407,073
6	2025	379,531,841	16	2035	465,949,049
7	2026	387,329,164	17	2036	475,709,257
8	2027	395,302,256	18	2037	485,693,036
9	2028	403,455,375	19	2038	495,905,865
10	2029	411,792,886	20	2039	506,353,359

## 6) 재무적 타당성

### [입장료 1,000원 적용 시]

- 소금산 사례를 준용하여 입장료 1,000원 징수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사업초기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6억8천만 원의 수익, 4억2천만 원의 비용, 2억6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한 결과, 20년간의 NPV는 약 129억 원의 손실 발생, IRR은 -10.6673%, B/C는 0.4180 수준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단,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산권역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9〉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입장료 1,000원

(단위 : 원)

연도	수익	비용	손익	수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671,904,834	16,928,492,843	-16,256,588,009	671,904,834	16,928,492,843	-16,256,588,009
2021	673,841,761	350,018,724	323,823,037	644,824,652	334,946,147	309,878,504
2022	675,622,223	357,153,477	318,468,747	618,687,506	327,056,136	291,631,370
2023	677,262,200	364,447,997	312,814,203	593,482,566	319,364,542	274,118,024
2024	678,765,232	371,906,135	306,859,097	569,186,285	311,866,108	257,320,177
2025	680,129,098	379,531,841	300,597,257	545,770,306	304,555,723	241,214,583
2026	681,346,931	387,329,164	294,017,767	523,203,405	297,428,414	225,774,990
2027	682,403,943	395,302,256	287,101,687	501,449,837	290,479,347	210,970,490
2028	683,280,729	403,455,375	279,825,354	480,472,847	283,703,819	196,769,027
2029	683,957,097	411,792,886	272,164,210	460,237,759	277,097,256	183,140,502
2030	684,412,761	420,319,267	264,093,494	440,712,323	270,655,211	170,057,112
2031	684,623,005	429,039,108	255,583,898	421,863,833	264,373,357	157,490,475
2032	684,607,402	437,957,117	246,650,285	403,688,246	258,247,486	145,440,760
2033	684,346,041	447,078,122	237,267,920	386,157,064	252,273,505	133,883,558
2034	683,821,795	456,407,073	227,414,721	369,245,212	246,447,434	122,797,778
2035	683,021,476	465,949,049	217,072,427	352,931,159	240,765,399	112,165,760
2036	681,934,601	475,709,257	206,225,344	337,195,740	235,223,634	101,972,106
2037	680,565,009	485,693,036	194,871,972	322,027,291	229,818,475	92,208,815
2038	678,917,172	495,905,865	183,011,308	307,413,946	224,546,358	82,867,588
2039	676,994,285	506,353,359	170,640,926	293,342,834	219,403,816	73,939,019
계	13,611,757,596	24,969,841,950	-11,358,084,354	9,243,797,643	22,116,745,012	-12,872,947,369

〈표 60〉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입장료 1,000원

(단위 : 원, %)

분석지수	값	판단기준	판단	비고
NPV	-12,872,947,369	NPV > 0	타당성 없음	
IRR	-10.6673%	IRR > K	타당성 없음	K = 4.5%
B/C	0.4180	B/C > 1	타당성 없음	

**[입장료 2,500원 적용 시]**

- 입장료 2,500원 징수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사업초기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7억 원의 수익, 4억2천만 원의 비용, 12억8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한 결과, 20년간의 NPV는 약 9억9천만 원의 이익 발생, IRR은 5.2862%, B/C는 1.0449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61>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입장료 2,500원**

(단위 : 원)

연도	수익	비용	손익	수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1,679,762,085	16,928,492,843	-15,248,730,758	1,679,762,085	16,928,492,843	-15,248,730,758
2021	1,684,604,402	350,018,724	1,334,585,679	1,612,061,629	334,946,147	1,277,115,482
2022	1,689,055,558	357,153,477	1,331,902,081	1,546,718,764	327,056,136	1,219,662,628
2023	1,693,155,499	364,447,997	1,328,707,503	1,483,706,414	319,364,542	1,164,341,872
2024	1,696,913,081	371,906,135	1,325,006,946	1,422,965,713	311,866,108	1,111,099,605
2025	1,700,322,744	379,531,841	1,320,790,903	1,364,425,765	304,555,723	1,059,870,042
2026	1,703,367,328	387,329,164	1,316,038,164	1,308,008,512	297,428,414	1,010,580,097
2027	1,706,009,858	395,302,256	1,310,707,602	1,253,624,593	290,479,347	963,145,245
2028	1,708,201,824	403,455,375	1,304,746,449	1,201,182,116	283,703,819	917,478,297
2029	1,709,892,742	411,792,886	1,298,099,856	1,150,594,397	277,097,256	873,497,140
2030	1,711,031,903	420,319,267	1,290,712,636	1,101,780,807	270,655,211	831,125,596
2031	1,711,557,514	429,039,108	1,282,518,406	1,054,659,581	264,373,357	790,286,224
2032	1,711,518,504	437,957,117	1,273,561,387	1,009,220,616	258,247,486	750,973,130
2033	1,710,865,103	447,078,122	1,263,786,981	965,392,659	252,273,505	713,119,154
2034	1,709,554,487	456,407,073	1,253,147,414	923,113,030	246,447,434	676,665,596
2035	1,707,553,691	465,949,049	1,241,604,641	882,327,898	240,765,399	641,562,499
2036	1,704,836,502	475,709,257	1,229,127,245	842,989,351	235,223,634	607,765,717
2037	1,701,412,522	485,693,036	1,215,719,485	805,068,227	229,818,475	575,249,752
2038	1,697,292,931	495,905,865	1,201,387,066	768,534,865	224,546,358	543,988,507
2039	1,692,485,712	506,353,359	1,186,132,353	733,357,086	219,403,816	513,953,270
계	34,029,393,990	24,969,841,950	9,059,552,039	23,109,494,109	22,116,745,012	992,749,096

**<표 62>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입장료 2,500원**

(단위 : 원, %)

분석지수	값	판단기준	판단	비고
NPV	992,749,096	NPV > 0	타당성 있음	
IRR	5.2862%	IRR > K	타당성 있음	K = 4.5%
B/C	1.0449	B/C > 1	타당성 있음	

## 7) 사회적 편익

- 편익시설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무료입장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연평균 58억 원 수준임
- 입장료 2,500원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1인당 편익에서 입장료를 제외한 총편익은 연평균 40억6천만 원이 발생함.
- 사회적 편익은 안동호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로 기능 관점에서 교통비 절감효과와 유희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비용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표 63〉 보행현수교 이용객 1인당 사회적 편익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교통비 절감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계획상의 탐방로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호 서부) 인근에서 계상고택(안동호 동부) 인근으로 이동 시 약 18km 도보이동이 필요</li> <li>• 시내버스 기본요금 적용</li> </ul>
유희시설 이용비 절감	7,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여행 1인 평균 지출액220,292원,여행 지출액 중 문화/오락시설 이용료 6.5% 적용 시 1인당 비용 : 14,319</li> <li>• 본 시설 외에 타 시설 이용병행을 가정하여 50% 적용</li> </ul>
편익 계	8,459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이용객 1인당 사회적 편익 산출결과를 기준으로 재무적 타당성 검토 시의 이용객 추계를 적용한 연도별 사회적 편익 추정치는 아래와 같음

〈표 64〉 보행현수교 연도별 사회적 편익

(단위 : 원)

연차	연도	편익	연차	연도	편익
1	2020	5,683,972,225	11	2030	5,789,782,911
2	2021	5,700,357,639	12	2031	5,791,561,468
3	2022	5,715,419,442	13	2032	5,791,429,468
4	2023	5,729,292,805	14	2033	5,789,218,492
5	2024	5,742,007,695	15	2034	5,784,783,635
6	2025	5,753,545,300	16	2035	5,778,013,348
7	2026	5,763,847,550	17	2036	5,768,818,938
8	2027	5,772,789,333	18	2037	5,757,232,885
9	2028	5,780,206,498	19	2038	5,743,293,029
10	2029	5,785,928,220	20	2039	5,727,026,383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사업초기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57억6천만 원의 수익, 4억2천만 원의 비용, 53억4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함
- 20년간의 NPV는 약 560억8천만 원의 이익 발생, IRR은 47.6451%, B/C는 3.5357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무료운영 시에는 이와 같이 이용객 대상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며, 향후 대상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도산권역에 식당, 카페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지역의 경제효과 도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65〉 보행현수교 연차별 현금 유·출입 : 무료입장

(단위 : 원)

연도	편익	비용	손익	수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5,683,972,225	16,928,492,843	-11,244,520,618	5,683,972,225	16,928,492,843	-11,244,520,618
2021	5,700,357,639	350,018,724	5,350,338,915	5,454,887,692	334,946,147	5,119,941,545
2022	5,715,419,442	357,153,477	5,358,265,965	5,233,780,767	327,056,136	4,906,724,631
2023	5,729,292,805	364,447,997	5,364,844,809	5,020,559,829	319,364,542	4,701,195,287
2024	5,742,007,695	371,906,135	5,370,101,560	4,815,025,688	311,866,108	4,503,159,579
2025	5,753,545,300	379,531,841	5,374,013,459	4,616,938,447	304,555,723	4,312,382,724
2026	5,763,847,550	387,329,164	5,376,518,386	4,426,033,970	297,428,414	4,128,605,555
2027	5,772,789,333	395,302,256	5,377,487,077	4,242,009,882	290,479,347	3,951,530,535
2028	5,780,206,498	403,455,375	5,376,751,123	4,064,555,240	283,703,819	3,780,851,421
2029	5,785,928,220	411,792,886	5,374,135,334	3,893,376,718	277,097,256	3,616,279,461
2030	5,789,782,911	420,319,267	5,369,463,644	3,728,201,489	270,655,211	3,457,546,278
2031	5,791,561,468	429,039,108	5,362,522,361	3,568,752,872	264,373,357	3,304,379,515
2032	5,791,429,468	437,957,117	5,353,472,351	3,414,996,683	258,247,486	3,156,749,197
2033	5,789,218,492	447,078,122	5,342,140,371	3,266,691,819	252,273,505	3,014,418,313
2034	5,784,783,635	456,407,073	5,328,376,562	3,123,626,177	246,447,434	2,877,178,743
2035	5,778,013,348	465,949,049	5,312,064,299	2,985,617,613	240,765,399	2,744,852,214
2036	5,768,818,938	475,709,257	5,293,109,681	2,852,503,993	235,223,634	2,617,280,359
2037	5,757,232,885	485,693,036	5,271,539,849	2,724,186,647	229,818,475	2,494,368,171
2038	5,743,293,029	495,905,865	5,247,387,165	2,600,565,202	224,546,358	2,376,018,844
2039	5,727,026,383	506,353,359	5,220,673,024	2,481,530,774	219,403,816	2,262,126,958
계	115,148,527,264	24,969,841,950	90,178,685,314	78,197,813,727	22,116,745,012	56,081,068,714

〈표 66〉 보행현수교 사업타당성 : 무료입장

(단위 : 원, %)

분석지수	값	판단기준	판단	비고
NPV	56,081,068,714	NPV > 0	타당성 있음	
IRR	47.6451%	IRR > K	타당성 있음	K = 4.5%
B/C	3.5357	B/C > 1	타당성 있음	

### 제3절 변직골 구간 보행편의성 확보

#### 1. 도입 후보시설

- 변직골 구간의 이용객 보행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조성 가능한 시설들을 검토하였으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 남부를 경유하는 코스가 적합한 것으로 보임

#### 1) 에코플라이어

##### [에코플라이어 개요]

- 쥘라인과 같은 케이블에 매달린 레일바이크 형태의 액티비티
- 공중에 있는 자전거에 탑승하여 페달을 밟아 동력이 발생하며, 적당한 속도로 하강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음
- 필요 시 덮개를 설치하여 우천 등에 대비할 수 있음
- 탑승자가 페달을 밟음으로 해서 하강하여 일반적인 하강 액티비티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며, 브레이크로 정지가 가능함

##### [에코플라이어 사례]

- 국내에는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으나, 미국 플로리다 사파리파크, 멕시코, 필리핀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음

〈그림 70〉 에코플라이어 사례



#### 2) 숲하늘길

##### [숲하늘길 개요]

- 생물학자들이 숲 상부의 생태를 관찰·연구하기 위해 나무들 사이 또는 위에 설치한 브릿지 형식의 구조물에서 유래하였음

- 과거에 과학적인 용도로 설치하여 활용되었다가 방치된 시설들이 생태관광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근래에는 처음부터 생태관광 목적으로 설치되어 매력적인 관광시설로 각광받고 있음
- 서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온대우림 지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남미의 코스타리카 등지의 열대우림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음

### [숲하늘길 사례]

- 대전 장태산 휴양림 하늘길
  - 장태산 휴양림은 입장료, 주차료가 무료인 시민휴식 공간임
  - 메타세콰이아 숲에 높이 12m, 길이 116m 규모 설치
- 서천 장항 스카이워크
  - 장항 송림숲에 위치한 높이 15m, 길이 236m 규모 설치
  - 입장료 2천 원, 지역상품권으로 반환
  - 개장 9개월 만에 22만 명 방문
- 철원 금학산 하늘숲체험길
  - 잣나무 숲에 높이 10m, 길이 500m 규모 설치
- 서울 북한산 스카이라드
  - 북한산둘레길 구간에 설치

〈그림 71〉 숲하늘길 사례



### 3) 로프다리

#### [로프다리 개요]

- 로프다리는 로프로만 조성하거나, 바닥에 나무데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 국내 및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음
- 국내에서는 관광 외에도 청소년수련 및 기업연수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음

#### [로프다리 사례]

- 대전 만인산 자연휴양림
  - 2층 건물 높이의 10여 미터 길이로 조성
  - 다수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청소년 극기체험코스으로도 활용됨
- 포천 어메이징파크 히든브릿지
  - 잣나무숲 나무들을 연결하여 300m로 조성
  - 어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 북아일랜드 엔트림 캐릭어리드
  - 높이 30m, 길이 20m 규모 설치
  - 섬과 섬 사이를 연결
- 뉴질랜드 롱로이 빙하트레킹
  - 뉴질랜드 유명 트레킹 코스 진입로에 설치

〈그림 72〉 로프다리 사례

















## 2. 도입 후보시설 비교검토

- 에코플라이어는 실질적으로 단절이 발생하는 200m 1개소, 100m 1개소에 설치하기보다 500m 이상 조성을 하는 것이 유희시설 탑승과 관람을 병행하기에 적합함
- 숲하늘길은 데크형태로 구성되어 기존 탐방로와 가장 성격이 유사하며, 실질적으로 단절이 발생하는 200m 1개소, 100m 1개소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과 500m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가능함
- 로프다리는 안동호를 횡단하는 보행현수교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500m 이상 조성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단절이 발생하는 200m 1개소, 100m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함

〈그림 73〉 변직골 구간 보행편의성 확보 후보시설 비교

구분	주요 검토내용	매력도	차별화 가능성	실행 용이성	추정 공사비 (500m 기준)
에코 플라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일바이크와 유사하며, 질라인보다는 여유있는 속도로 즐길 수 있음</li> <li>•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음</li> <li>• 로프체험시설과 유사한 유형으로, 안전기준도 질라인과 유사하여 자연휴양림에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산림청)</li> </ul>				15억 원 (업체 단가 적용)
숲하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관광에는 적합하나 유희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li> <li>• 국내에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음</li> <li>• 데크로드의 일종으로 자연휴양림에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li> </ul>				21억 원 (선성수상길 1,011m, 43억 원 준용)
로프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지에 설치 시 숲과 안동호 경치를 모두 조망 가능함</li> <li>• 호수변에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음</li> <li>• 로프체험시설과 유사한 유형으로 자연휴양림에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li> </ul>				5억 원 (추정가, 조성형태에 따라 상이)

## 제4절 관광활성화 제고

### 1. 유희시설 도입 검토

#### 1) 도입방향

- 탐방로 및 도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광기능 및 유희기능을 가진 시설의 추가도입도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단, 사업지 여건상 도입 가능한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며, 국비가 포함된 3대 문화권 사업비 성격상 상업성이 강하거나 유희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자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유희시설의 경우 모객력 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에 해당하나 향후 사업지 용도변경 및 경쟁력 있는 민자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함
- 안동호에 적합한 유희시설로는 수변의 경사면을 활용한 신체적 액티비티이면서도, 자연풍광 감상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였음

#### 2) 도입 후보시설 : 마운틴카트

##### [마운틴카트 개요]

- 스위스 휘르스트 지역의 휘르스트글라이더 코스를 마치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액티비티이며, 세바퀴 달린 무동력 카트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면서 산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음
-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내려가는 동안의 감속 및 제동을 위한 브레이크로 속도조절이 가능함

##### [마운틴카트 사례]

- 휘르스트 슈렉펠트(Schreckfeld)역에서 탑승하며 보어트(Bort)역까지 이르는 3km의 울퉁불퉁하거나 완만한 코스를 내려감
- 브레이크로 속도조절이 가능하며, 135cm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그림 74〉 마운틴카트 사례





### 3) 도입 후보시설 : 트로티바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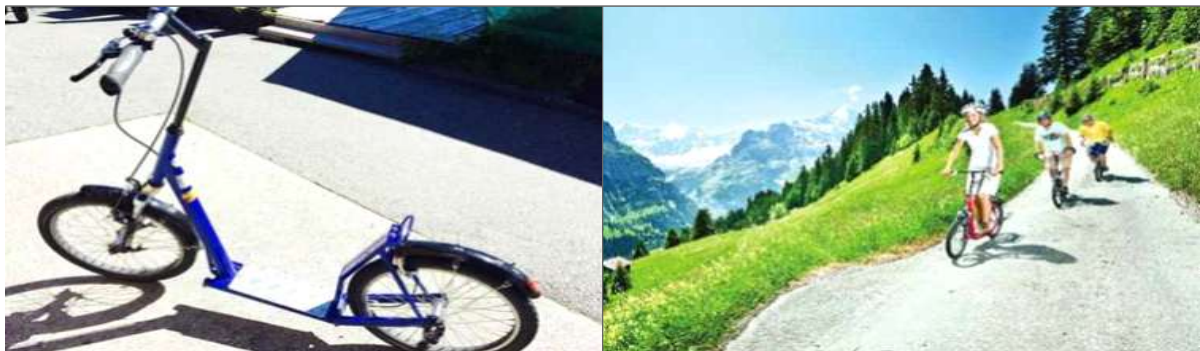
#### [트로티바이크 개요]

- 스위스 휘르스트 지역의 마운틴카트 코스를 마치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액티비티이며, 페달 없이 서서 타는 킥보드 모양의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시원스럽게 달리면서 휘르스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음
-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내려가는 동안의 감속 및 제동을 위한 브레이크로 속도조절이 가능함

#### [트로티바이크 사례]

- 휘르스트 곤돌라코스의 중간역인 보어트에서 그린델발트 마을까지 이어지는 4.5km의 꼬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1시간 가량 달리면서 알프스의 전원마을 풍경을 감상하게 됨

〈그림 75〉 트로티바이크 사례



### 4) 도입 후보시설 : 알파인코스터

#### [알파인코스터 개요]

- 산지의 경사면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최고 시속 40km로 하강하여 경치와 속도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용 무동력 모노레일임
- 산악형 롤러코스터, 마운틴코스터로도 불리며, 차량당 1~2인이 탑승 가능함
- 코스 출발점인 상부로 올라갈 때는 동력을 이용하나, 하강 시에는 무동력으로 운행하되, 브레이크를 이용해 탑승자가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음
- 스위스 글라시어 3000에서는 대표적인 액티비티 시설로 운영 중이며, 해발 3,000m에서의 하강과 함께 알프스 설경을 즐길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유명 리조트인 나트랑 빈펄랜드, 다낭 바나힐 등에서 대표적 놀이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을 위해서는 1~2시간 가량 대기해야 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알파인코스터 사례]

- 단양만천하스카이
  - 총 연장 : 1.0km
  - 총 사업비 183억 원
  - 약 9개월 운영결과 : 입장객 약 50만명, 수입현황 약 17억 원
- 정선 하이원리조트
  - 총 연장 : 2.2km
  - 어른: 15,000원, 어린이 : 12,000원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 총 연장 : 1.4km
  - 어른: 22,000원, 어린이 : 19,000원, 2인 동승 : 36,000

〈그림 76〉 알파인코스터 사례



## 5) 도입 후보시설 : 알파인슬라이더

### [알파인슬라이더 개요]

- 눈발을 달리는 설원 봅슬레이와 비교해서 일명 맨땅 봅슬레이로 불리고 있으며, 5~40°의 경사진 사면에 철판을 깔 활강트랙을 설치하고 썰매를 타는 것임
- 활주 스피드가 시속 20~25km 정도로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보통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뒤 내려옴

- 알파인코스터에 비해 속도가 느리며, 안정적 운행을 위해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함

### [알파인슬라이더 사례]

-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 스키장 부지에 1997년부터 개장하여, 정상 370~234m까지 고저차를 가진 높이 142m, 길이 800m의 규모임
  - 한번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분, 가격은 1회에 대인 6,000원, 소인 5,000원임
- 스위스 외시넨 호수
  - 케이블카 승강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길이 750m의 코스를 하강하면서 알프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음
  - 외시넨 호수 여행 시 필수 방문 코스로 여겨지고 있음

〈그림 77〉 알파인슬라이더 사례



## 6) 도입 후보시설 : 루지

### [루지 개요]

- 루지(LUGE)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땅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놀이시설임
-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에서 처음 발명되어 뉴질랜드(2곳), 캐나다(2곳), 싱가포르(1곳)에 이어 통영에 6번째로 개장하였음



- 동계스포츠인 루지와 이름은 똑같지만, 훨씬 안전하고 쉬우며, 썰매에 방향 조절할 수 있는 핸들과 바퀴가 달린 형태임
- 조작법은 썰매만큼 간단해 키 110cm 이상의 어린이도 혼자서 탑승 가능함

## [루지 사례]

- 통영 스카이라인
  - 2017년 2월 개장
  - 총 1.5km, 시속 10~15km 정도로 8~10분 소요
  - 체어리프트인 스카이라이드 병행
- 용평리조트
  - 스키장 핑크 슬로프 상단에서 옐로우 슬로프 하단까지 이어지는 1,458m 트랙
- 강화 씨사이드리조트
  - 연장 1.8km/line 총 2라인으로 동양 최대 규모
- 양산 에덴벨리
  - 트랙 총 길이 2.2km로 세계 최장 규모

〈그림 78〉 루지 사례



## 기 도입후보시설 비교검토

- 마운틴카트 및 트로티바이크는 시설조성을 위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산책로 또는 도로 형태의 코스조성이 가능한 사업부지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긴 규모의 코스조성이 필요함
- 알파인코스터 및 알파인슬라이더는 레일 및 슬라이드 조성을 위한 투자비용이 가장 높으나 유희기능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음
- 루지의 경우 타 대안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아스팔트 형태의 코스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안동호 주변 자연훼손 정도가 가장 클 수 있음

〈그림 79〉 관광활성화 유희시설 비교

구분	주요 검토내용	매력도	차별화 가능성	실행 용이성	추정 공사비 (2,000m 기준)
마운틴 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유사함</li> <li>•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음</li> <li>• 코스 조성을 위해 경사면 공사가 필요함</li> </ul>				24억 원 (산책로 조성, 장비리프트 기준)
트로티 바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유사함</li> <li>•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음</li> <li>• 코스 조성을 위해 경사면 공사가 필요함</li> </ul>				24억 원 (산책로 조성, 장비리프트 기준)
알파인 코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시속 40km로 하강하여 속도감을 즐길 수 있음</li> <li>• 단양, 경선, 평창 등에서 운영 중임</li> <li>• 코스 조성을 위해 경사면 공사가 필요함</li> </ul>				105억 원 (업체 단가 적용)
알파인 슬라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주 스피드가 시속 20~25km 정도임</li> <li>• 용인에서 운영 중임</li> <li>• 코스 조성을 위해 경사면 공사가 필요함</li> </ul>				101억 원 (업체 단가 적용)
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속 10~15km 정도로 운행함</li> <li>• 통영, 용평, 강화, 양산 등에서 운영 중임</li> <li>• 코스 조성을 위해 경사면 공사가 필요함</li> </ul>				40억 원 (양산 사례 준용)

## 2. 편의시설 확보

### 1) 주차장

- 보행현수교와 3대문화권 시설을 비롯한 도산권역의 관광수용태세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시설 외에도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보행현수교 연간 이용객 67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함
  - 포천시 한탄강 출렁다리의 경우 1,500대 주차 가능한 규모로 조성됨
- 3대문화권사업 및 탐방로사업의 조성계획에 따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1차탐방로를 통틀어 승용차 521대, 버스 29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됨
- 보행현수교 이용객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주차장은 승용차 500~800대, 버스 30~40대 규모로 추정됨
  - 보행현수교 연간 이용객 67만 명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2007)의 방법론을 적용
- 주차장 조성 후보지로는 안동호 서부 및 동부에 각각 500대씩, 총 1천여 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80〉 탐방로사업 주차장 추가확보 후보지



- 우선적으로 간이주차장 형태로 확보 후 장기적으로 상설주차장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함
  - 대상지 여건상 수자원공사와 협의, 소유권 이전 등 절차 필요



## 2) 휴게시설

- 현재, 1차 탐방로 조성공사를 통해 벤치, 정자 등 장시간 보행 중 휴식이 가능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음
-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모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방로 보행 후 안동호 경관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취향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카페 또는 스낵바 등의 휴게시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지 용도변경 선행 필요
- 카페 및 스낵바 도입 시에는 본원적인 휴게기능의 구현 외에도 관광명소화가 가능한 테마 및 디자인 설정이 필요함
- 의왕시 백운호수, 남양주시 북한강 등의 경우 수변을 따라 다수의 모던카페가 운영되고 있어 자연풍광을 찾는 방문객들의 휴게공간이 되는 동시에, 카페 자체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음

〈그림 81〉 수변관광지 카페 사례



- 최근 카페 트렌드는 북카페, 보타닉카페, 하비카페 등의 테마카페를 비롯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고 있음
- 안동호 및 도산권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테마 검토가 필요함

### 3) 포토존

- 최근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여행스타그램’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여행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행위가 관광활동에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SNS 이용도가 높은 젊은 층의 경우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가 여행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수 수변관광지에서는 다양한 컨셉의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안동호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하여 경관조망 적합성과 사진촬영에 적합한 일조량을 고려하여 포토존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를 적용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82〉 수변관광지 포토존 사례



### 3. 3대문화권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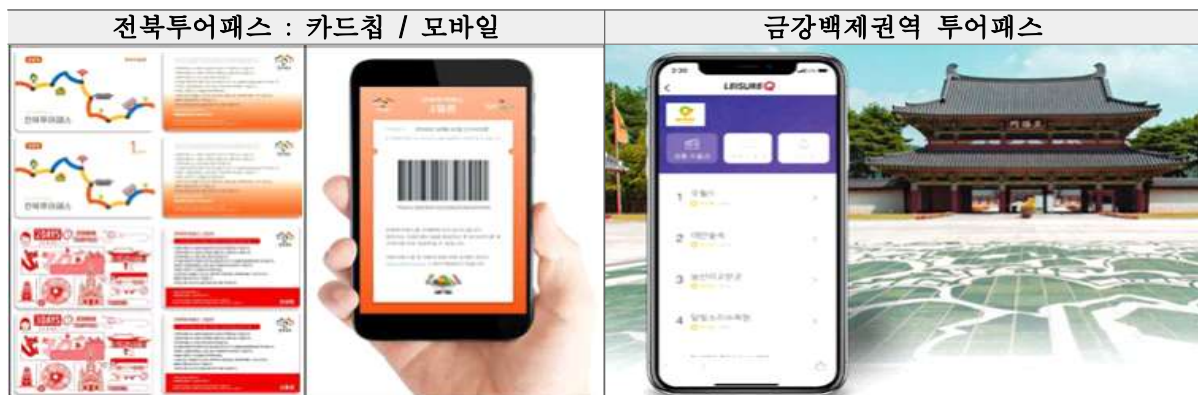
#### 1) 연계관광 인프라

- 현재 조성 중인 130km의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더불어, 안동호를 횡단하는 보행현수교 조성을 통해 도산면, 예안면 수변을 순환하는 도산권역 관광클러스터가 조성됨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계상고택, 홍수터 경관단지, 도산서원 등 주요 관광자원들을 연결
- 장기적으로 변직골 구간의 보행편의성 확보를 위한 시설이 도입될 경우 선성현단지 및 선성수상길 탐방로까지 핵심관광클러스터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2) 연계관광 마케팅

- 보행현수교 조성규모 및 투입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재정 측면의 손실방지를 위해서는 유료시설화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소금산을 제외하고는 타지자체의 보행현수교들이 무료로 이용함을 감안 시 모객력 측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현수교 이용 시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의 유료시설 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통합마케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산권역 전반적으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 발생이 가능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유도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소금산 출렁다리의 경우 외부인 입장료는 3,000원이며, 입장료 가운데 2,000원은 원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함
  - 파주시 마장호수의 경우 방문객이 마장호수에서 찍은 사진을 인근의 30여개 음식점에 제시하면 가격의 10%를 할인 적용함

〈그림 83〉 연계관광 디지털마케팅 사례





- 보행현수교 및 도산권역 관광지 이용에 관한 통합마케팅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나, 최근 관광마케팅 트렌드를 고려하여 지역화폐, 투어패스, 모바일 화폐 등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67>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지역투어패스

안동호 투어패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유료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 모바일 화폐를 도입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상시</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유료시설</li> </ul>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권역 유료 관광시설, 도산온천, 카페 및 식당, 숙박업체 등과 제휴</li> <li>• 카드칩 또는 모바일앱 개발</li> <li>• 1일권~3일권 형태의 자유이용권 구매를 통해 제휴 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li> <li>• 또는, 정액권 구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휴 유료시설 이용</li> </ul>
운영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문화권 시설 이용 시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후 제휴 시설 및 업체 이용 시 디지털 화폐로 사용</li> <li>•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관광자원 방문 시 촬영한 셀카 및 동영상을 방문객 본인 계정의 SNS에 포스팅, 해시태그 작성 시 포인트 적립</li> </ul>
관련 이미지	

## 3) 연계관광 콘텐츠

-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임에 따라 축제·행사 등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발굴 및 연계 운영을 통해 탐방로 및 도산권역 관광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안동호 섬마을 청보리밭 축제, 안동호국제배스낚시대회 등 기존 행사 운영 시 탐방로 및 보행현수교 걷기 행사와의 연계활성화가 가능함
- 탐방로 및 안동호 수상스포츠의 주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하여 트레킹, 각종 수상스포츠, 낚시와 관련된 동호회를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 방문객 유도가 가능한 연계행사 발굴이 가능함

〈표 68〉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걷기 행사

선비순례꽃길 걷기	
개요	• 안동호 동부 수변탐방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홍수터 경관단지와 연계한 걷기 행사 개최
시기	• 봄~가을
장소	• 안동호 동부 수변탐방로 ~ 홍수터 경관단지
소요시간	• 3~5시간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별 꽃식물, 특히 안동에 산재한 야생화 중심으로 꽃길 조성</li> <li>• 초롱꽃, 산골무꽃, 함박꽃, 석잠풀, 꿀풀, 인동덩굴, 갯무, 백선, 엉겅퀴 등 조경에 적합한 다양한 야생화 활동 가능</li> <li>• 자연풍광을 찾는 방문객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유소년 및 학생 대상의 자연체험학습 기회 제공</li> </ul>
운영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길 체험 시 촬영한 셀카 및 동영상을 방문객 본인 계정의 SNS에 포스팅, 해시태그 작성 시 ‘안동호 투어패스’ 포인트 적립</li> <li>• 부포 선착장 인근에서부터 꽃길코스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안면 탐방로 접근성 제고 필요</li> <li>• 한국야생화 안동연합회 협업 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가능</li> </ul>
관련 이미지	

〈표 69〉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사생대회 및 사진공모전

안동호 사생대회 및 사진공모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비순례꽃길 걷기’ 행사 시기 및 단풍철 등을 활용하여 안동호 풍광을 담은 사생대회 및 사진공모전 개최</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중 상시</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변탐방로 전역</li> </ul>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시간</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동호 풍광 및 꽃길 등을 주제로 유소년 및 학생 대상의 사생대회 개최</li> <li>학생 및 성인 대상의 사진공모전 개최</li> <li>우수작 수상 및 상품 지급</li> </ul>
운영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자 전원에게 ‘안동호 투어패스’ 포인트 적립</li> <li>지역업체 및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도시락 및 식음료 판매대 운영</li> <li>매회 수상작을 안동관광정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li> <li>울하 야생화 그림교실 협업 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참가자 지도 가능</li> </ul>
관련 이미지	



〈표 70〉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UCC공모

유교선비문화 UCC공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선비문화 및 안동 관광자원과 관련된 UCC공모전 개최</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중 상시</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산권역</li> </ul>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선비문화 및 의병 등을 주제로 한 콩트 제작</li> <li>3대문화권 시설 체험기</li> <li>미스터 선샤인, 부라더, 스캔들, 태조왕건, 해신, 군주 등 안동에서 촬영된 드라마 및 영화 장면 재현</li> <li>도산권역 음식탐방기 먹방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 가능</li> </ul>
운영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모집 부문을 차별화하여 우수작에 대해 ‘안동호 투어패스’, 장학금,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 지급 가능</li> <li>매회 수상작을 안동관광정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li> </ul>
관련 이미지	

- 더불어,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스토리 기반의 체험 콘텐츠 발굴이 가능함
- 일본 아와지시마섬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공원인 니지겐모리에서는 숲속 산책로를 활용하여 ‘불사조의 나이트워크’ 라는 야간 체험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
  - 효고현의 상징인 ‘불사조’를 소재로 해 유명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의 상상력을 적용하였으며 1.2km 정도의 상상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선사함
  - 스토리 무대가 되는 요정나라를 떠난 불사조를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서 찾아나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임

〈그림 84〉 탐방로 스토리 기반 체험콘텐츠 사례 : 니지겐모리



- 안동호 탐방로에서는 3대문화권 시설 및 도산권역의 주요 테마에 해당하는 유생, 유학자, 의병 등을 테마로 한 스토리 기반의 탐방로 체험콘텐츠 개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스토리 예시 : 월천서당에서 출발하여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활용하여 유학 및 역사 등과 관련된 퀴즈,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유소년 유생에서 장원급제까지 경험치를 축적해나가는 프로그램 운영
- 유생, 유학자, 의병 등 활용 시 각 테마에 맞는 의상체험을 병행 운영하여 체험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다수의 방문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한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걷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관광체험의 즐거움을 강화시키고 있음
  - 주요관광지점, 안내소, 휴게시설 등 탐방로 코스를 따라 조성된 거점을 활용하여 의상 대여 및 환복 시설 운영 가능



〈그림 85〉 의상체험 사례 : 전주한옥마을



- 이러한 스토리 기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주요 거점마다 운영인력이 상황재연 배우역할을 겸하여 방문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효과 극대화할 수 있음
- 한국민속촌에서는 배우역할을 겸하는 운영인력들을 동원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전통문화 및 8090세대의 향수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그림 86〉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사례 : 한국민속촌



〈표 71〉 탐방로 및 도산권역 연계활성화 : 스토리 체험

선비순례 퀘스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학 및 역사 등과 관련된 퀴즈,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유소년 유생에서 장원급제까지 경험치를 축적해나가는 프로그램 운영</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중 상시</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천서당 ~ 도산서원</li> </ul>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시간</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당체험에 적합한 한복을 착용하고 출발</li> <li>코스 진행도중 곳곳에서 퀴즈 및 미션을 수행하여 경험치 축적을 통해 단계적으로 레벨 상승</li> <li>간단한 천자문 및 유교문화에 대한 퀴즈로 시작</li> <li>서원으로 가는 도중 호랑이를 만나 퀴즈 또는 힘겨루기 미션 등을 수행하며, 실패 시 체력 포인트 소진</li> <li>코스 도중에 포켓몬고와 유사한 증강현실 게임앱을 활용하여 아이템 획득 (컨닝쪽지, 머리가 총명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산삼 등)</li> <li>도산서원 도착 시 고난이도 사자성어 퀴즈 등 수행, 최종레벨 도달 시 장원급제 타이틀 부여</li> <li>미션 통과 시마다 레벨 상승을 의미하는 의복을 착용하거나 모바일앱의 스탬프 획득 (땡기→삿갓→감투, 평민→선비→벼슬아치 복장 등)</li> </ul>
운영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을 획득한 참가자에게 도산권역 유료시설 이용권 및 식권 등 경품 지급</li> <li>우수참가자 인증샷을 안동관광정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 (장원급제 명예의 전당 등)</li> </ul>
관련 이미지	   

#### 4. 지역경제 활성화

- 탐방로 보행현수교 조성될 경우 관리·운영 담당인력으로 최소 5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보행현수교 연간 예상 이용객 67만 명에 대해 1인당 2,000원 이상의 지역 내 소비 유도가 이루어질 경우 연평균 13억6천만 원 이상의 주변지역 경제효과 발생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행현수교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반환을 통한 지역 내 소비유도 또는 연계관광 디지털마케팅의 도입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참여업체 발굴 및 수익배분, 자금지원 등에 대한 협의가 병행되어야 함
- 도산권역 중 탐방로 인접지역에는 관광 기반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지 용도변경과 병행하여 카페, 유흥시설 등이 도입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제4장 종합결론

- 
1. 기존계획상의 한계점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 제4장 종합결론

### 1. 기존계획상의 한계점

#### 1)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 유교문화의 재현을 통한 교육적이고 관람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최근 관광트렌드 요소인 액티비티, 체험관광 등의 부족으로 관광수요 창출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음
- ‘3대문화권사업 관리운영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대문화권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3억 원, 매출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매년 약 23억 원의 손실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모객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2) 탐방로 사업

- 기존 기본계획에 따른 총 134km로 조성 완료 시, 규모만을 기준으로 연간 방문객을 산술적으로 추정한 결과, 약 28만 명으로 도출되었음
- 그러나, 3대문화권사업 주요시설이 위치한 안동호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연결로 확보가 미비하여 실제 안동호를 중심으로 단방향의 탐방로를 이용하는 구조로 조성되어, 이용객들의 활발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미흡함
- 이에 따라 탐방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 민원이 우려되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근 도산서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특히 예산면에 조성된 안동호 동부 탐방로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 탐방로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탐방로가 산책로 및 데크 등 단순한 형태의 시설로 조성되어 흥미요소가 제한적이며, 타 지자체에도 유사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서 경쟁력 확보가 제한적임

#### 3) 지역경제

- 본 사업의 대상지에 해당하는 도산면 및 예산면의 경우 안동시 내 행정구역 중 인구가 가장 적고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음
- 더불어, 지역 내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므로, 3대문화권사업 및 탐방로사업으로 관광객 확대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 도산권역 3대문화권 사업별 킬러콘텐츠 강화와 기존 역사문화유적과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관련 위락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의 대상지 여건 및 사업비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유희시설 도입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여건 내에서 최대한 차별화가 가능한 형태로 탐방로의 강화와 보완이 필요함
  - 2차 탐방로 예산이 1차 탐방로 예산보다 많은 규모로 확보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탐방로 확장 검토가 가능함(※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 수반됨)
- 3대문화권사업 주요시설에서 안동호 동부로의 연결로 확보, 지역연결 조성에 적합한 시설로는 사업지 여건 및 사업비 성격 측면에서 보행현수교가 우선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탐방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집중하는 핵심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도산서원 ~ 경관단지 ~ 계상고택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안동호 횡단 보행현수교 설치

## 3. 기대효과

### 1) 탐방로 이용객

- 보행현수교 조성에 따른 탐방로 구간연장 효과로 인해 약 18만 명의 탐방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
  - 기존 사업계획 기준 탐방로 이용객 추정치 28만 명 대비 65.5% 증가
- 3대문화권을 비롯한 도산권역 방문객이 보행현수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됨
  - 도산권역 방문객 추정치 145만 명 중 17.4%가 보행현수교를 이용함을 가정
- 안동시 내 타지역 방문객이 보행현수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됨
  - 안동시 내 타지역 방문객 470만 명에 대해 안동호를 방문하고 보행현수교를 이용함을 가정

〈표 72〉 보행현수교 이용객

(단위 : 명)

구분	방문객	비고
보행현수교 구간 방문이 주목적인 경우	182,132	• 선성수상길 연간 방문객 추정치 45,533명 × 4개 유형 탐방구간
도산권역 방문이 주목적인 경우	252,153	• 도산권역 방문객 1,449,154명 × ‘야외위탁 및 놀이시설’ 활동 비율 17.4%
도산권역 외 안동 방문이 주목적인 경우	233,243	• 도산권역 외 안동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 ‘자연 및 풍경 감상’ 활동 비율 28.5% × ‘야외위탁 및 놀이시설’ 활동 비율 17.4%
계	667,528	

## 2) 사업타당성

- 보행현수교 조성비로 약 166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로 평균 4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차별화된 형태로 조성 시 비용증가가 예상됨

〈표 73〉 보행현수교 초기투자비 및 연간운영비

(단위 : 원)

초기투자비	연간운영비			
보행현수교건설비	연간 운영비 계	안전검사·유지보수	인건비	예비비
16,585,452,861	343,039,981	165,854,529	146,000,000	31,185,453

- 보행현수교 이용객은 연평균 67만 명으로 추정되며, 입장료 2,500원을 징수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17억 원의 매출 및 12억 8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20년간의 NPV는 약 9억9천만 원의 이익 발생, IRR은 5.2862%, B/C는 1.0449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74〉 보행현수교 재무적 수익의 연평균 수치 및 사업타당성

(단위 : 원, %)

연평균 수치			
구분	수익	비용	손익
금액	1,701,469,699	423,228,900	1,279,383,305
사업타당성			
분석지수	NPV	IRR	B/C
결과값 / 판단기준	992,749,096	5.2862%	1.0449
판단기준	NPV > 0	IRR > 4.5%	B/C > 1

- 매년 23억 원씩 발생하는 3대문화권사업 손실보전 필요금액에 대한 일부 해소가 가능함에 따라 장기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됨
- 편익시설 관점에서 무료입장으로 운영 시에도 연평균 57억6천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음
  - 1인당 교통비 절감액 1,300원, 관광시설 이용비 절감액 7,159원 적용
- 20년간의 NPV는 약 560억8천만 원의 이익 발생, IRR은 47.6451%, B/C는 3.5357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75〉 보행현수교 사회적 편익의 연평균 수치 및 사업타당성

(단위 : 원, %)

연평균 수치			
구분	편익	비용	손익
금액	5,757,426,363	423,228,900	5,338,063,470
사업타당성			
분석지수	NPV	IRR	B/C
결과값 / 판단기준	56,081,068,714	47.6451%	3.5357
판단기준	NPV > 0	IRR > 4.5%	B/C > 1

- 입장료 2,500원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1인당 편익에서 입장료를 제외한 총편익은 연평균 40억6천만 원이 발생함
- 도산면, 예안면의 안동호 수변을 순환하는 핵심 관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예상됨
  -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 상권의 소비 유도를 통해 1인당 2천원 이상 소비 시 연평균 13억6천만 원 이상 경제효과 발생

#### 4. 연계관광 활성화

- 탐방로 및 도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광기능 및 유희기능을 가진 시설의 추가도입도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지 용도변경 및 경쟁력 있는 민자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함
- 모객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더불어 카페 포토존 등 안동호의 여건 내에서 관광명소화가 가능한 시설 도입이 필요함
- 탐방로와 보행현수교 도입을 통해 연계활성화를 위한 도산권역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및 투어패스 등의 연계마케팅, 안동호 및 3대문화권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체험콘텐츠 발굴, 지역주민들이 운영 가능한 유료 관광기반 시설의 도입 등이 뒤따라야 함

# 참여 연구진

---

발주기관 안동시

수행기관 [주]더디랩

---

책임연구원 김백규

연구원 양정웅

연구원 류정무